

2007


##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Korean)

Elmer Towns

Ed Stetzer

Warren Bird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liberty.edu/towns\\_flbc](https://digitalcommons.liberty.edu/towns_flbc)

 Part of the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Christianity Commons](#), an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Commons](#)

---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11가지

엘머타운즈·에드스테저·워렌 버드 지음  
이대숙 옮김

교회 모델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의 교회 유형들  
성장하는 교회의 11가지 특성을 찾아 교회를 모델링하라!

요단

# 그들은 과감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 교회도 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감동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바란다. 하나는 독자들의 역량이 놀라게 향상되고 확장되기를 바란다. 다른 하나는 독자들이 책에 나온 여러 방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결심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주님을 따르며 이 책의 교훈을 열심히 실행하는 진취적인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라!

| 스티브 쇼그린의 서문 중에서

40년 전, 저는 엘머 타운즈의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라는 당시 최첨단을 달리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타운즈는 그때와 다름없이 변화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에드 스테저, 워렌 버드와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람은 타운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둔 미래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토미 바넷 피닉스 제일교회 담임목사

“본질은 유지하되, 형식은 변화시켜라.” 우리는 마치 역사가 우리의 두 발 아래에서 지나가는 길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 그 자체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례를 통해 11종류 교회의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각 혁신의 장단점을 되짚어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특정 혁신의 방향으로 더 치중할 것인지 아닐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되며, 설사 변화가 본인과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혁신을 시도하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 밥 버포드 리더십 네트워크의 창립자 「하프타임」 저자

아직도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교회 운영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에드 스테저, 워렌 버드, 그리고 엘머 타운즈는 단지 이런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사례와 교회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독자들을 미래로 향한 여정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자 고유한 교회 사역을 구현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 마크 배터슨 내셔널 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뭔가 새롭고 과감한 것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쳐드는 순간 당신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몇은 당신에게 자극을 줄 것이고, 몇몇은 당신을 흥분시킬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은 생산적인 목회를 시작하는 데 당신의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실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 닐 콜 「오가닉 처치」, 「LTG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저자

## 교회성장의 열쇠를 찾아라!

“본질은 유지하되 형식은 변화시켜라!”



9 788935 013852  
ISBN 978-89-350-1385-2

요단인터넷서점 [www.jordanbook.com](http://www.jordanbook.com)

값 15,000원



### 엘머 타운즈

그는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제리 포웰과 함께 리버티 신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노스웨스턴 대학, 남감리교 신학대학, 달라스신학교, 가렛 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교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Fasting for Spiritual Break through, Praying for Your Job* 의 5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고, 크리스천 북 셀러 협회에서 수여하는 골드 메달리안 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학문 분야의 성과 외에도 주일학교와 교회성장 분야의 권위자다.



### 에드 스태저

그는 20년이상 사역자로 교회를 섬겼으며 한때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또 선교학자로서 선교 연구센터의(조지아 주 알파레타) 책임자이다. 리버티 대학에서 M.A.R과 비슨 신학교에서 D.Min 학위를,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Ph. D 학위를 수여하였다. 현재는 남침례교단 라이프웨이에서 선교학자와 연구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의 저서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라」, 「선교 암호 해독하기」, 「다시 부흥한 324 교회성장 리포트」 등 다수가 있다. 특히 「다시 부흥한 324 교회성장 리포트」(요단)는 2011 한국기독교문화상 목회자료 국외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워렌 버드

그는 리더십 네트워크의 연구 소장이다. 그는 얼라이언스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했으며 17개의 책을 협동 집필하였다. 위튼 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뉴욕 포드햄 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는 그의 저서 *Emotionally Healthy Church*로 골드 메달리안 상을 수상했다.

### 윤건이 | 이대숙

목사로서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동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였고 미국 리버티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동대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하였으며 여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확신의 삶」, 「인물 별 성경 공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의 성경공부 교재를 편찬하였다. 현재 자신의 논문인 인터넷 목회를 현실에 접목시키고자 인터넷 블로그에 성경연구를 연재하고 있으며 조약돌 커뮤니티 처지의 대표이다. <http://blog.naver.com/lds2011>

From The Library Of  
ELMER L. TOWNS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가지 교회 모델

##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가지 교회 모델

2011년 11월 25일 · 제1판 1쇄 발행

지은이 | 엘머 타운즈 · 에드 스테저 · 워렌 버드

옮긴이 | 이대숙

펴낸이 | 안병창

펴낸데 | 요단출판사

158-05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05-4

기획 | (02)2643-9155

영업 | (02)2643-7290~1 Fax (02)2643-1877

등록 | 1973, 8, 23, 제13-10호

© 요단출판사 2011

기획 | 이영림

편집 | 정연숙

디자인 | 꽃밭

제작 | 박태훈 권아름

영업 | 김창윤 정준용 이영은 송석훈

정가 15,000원

ISBN 978-89-350-1385-2 03230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요단출판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 책의 내용이나 표지 등을 복제, 인용할 수 없습니다.

Published by Regal Books From Gospel Light  
Ventura, California, USA

Copyright © 2007 Elmer L. Towns, Ed Stetzer and Warren Bird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2011 by Jordan Press  
605-4 Mok-3dong Yangcheon-gu  
Seoul, KOREA

요단인터넷서점 [www.jordanbook.com](http://www.jordanbook.com)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의 교회 유형들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11가지

교회 모델



엘머 타운즈 · 에드 스테저 · 워렌 버드 지음

이대숙 옮김

요단

로,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영향력만 미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단지 교회 문을 열어 두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년에 했던 것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발견해 내고 무기력증에 빠진 말씀 전파에 생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재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기보다는, 과거의 가치를 더 중시해서 스스로 서서히 죽어가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

변혁인가, 죽음인가? 너무도 많은 교회가 변혁 대신 죽음을 선택한다. 우리가 오늘 내릴 결정은 자녀 세대의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회에서 존다고 더 이상 벌금을 물리지는 말자

1622년 미국 식민지 시절에 대한 최근 PBS시리즈(미국 공영방송으로 주로 교육물, 역사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역자 주)는 과거 400년간 미국의 교회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1600년대 설교는 보통 2시간 이상이었고 교회에서 조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했다! 심지어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 사항이었다. 오르간은 세속적인 악기로 평가되었고, 교회 건물의 침탑과 꼭대기의 십자가를 부적절하다고 치부했다. 주일에 골프를 치면 목에 형틀을 찰 수도 있었고, 침례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잘못

된' 해석을 했다간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었다. 최소한 이러한 일들이 바뀐 게 정말 다행이지 않은가?

더욱 심각한 사실은 미국의 교회들은 세계의 많은 교회가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하 교회와 박해받는 교회들, 심지어 현대에도 존재하는 순교자 교회들이 북아메리카에는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4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목사가 살해되고 투옥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반해 미국 교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4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는 지역사회가 교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뉴스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 영향력의 부흥이다. 필립 켄킨스의 「새로운 기독교 세계: 글로벌 기독교의 도래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북아메리카나 유럽이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지역이라고 한다.<sup>1</sup> 오늘날 기독교가 유일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륙은 북아메리카이며,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 방법과 원칙 구분하기

이 책은 변혁과 새로운 시도들이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런 옛말을 증명해 보인다.



40년 전, 저는 엘머 타운즈의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라는 당시 최첨단을 달리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타운즈는 그때와 다름없이 변화의 선두에서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에드 스태저, 워렌 버드와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람은 타운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둔 미래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토니 바넷 | 피닉스제일교회 담임목사

아직도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교회 운영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에드 스태저, 워렌 버드, 그리고 엘머 타운즈는 단지 이런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사례와 교회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독자들을 미래로 향한 여정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자 고유의 교회 사역을 구현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마크 배터슨 |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담임목사

“본질은 유지하되, 형식은 변화시켜라.” 우리는 마치 역사가 우리의 두 발 아래에서 지나가는 길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 그 자체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례를 통해 11종류 교회의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각 혁신의 장단점을 되짚어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특정 혁신의 방향으로 더 치중할 것인지 아닐지를 가능해볼 수 있게 되며, 설사 변화가 본인과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혁신을 시도하는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밥 버포드 | 「하프타임」 저자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뭔가 새롭고 과감한 것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쳐드는 순간 당신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몇은 당신에게 자극을 줄 것이고, 몇몇은 당신을 흥분시킬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은 생산적인 목회를 시작하는 데 당신의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실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닐 콜 | 「오가닉 처치」 저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꼭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열리 어댑터들과 혁신가를 꿈꾸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핸드북입니다.

데이브 퍼거슨 |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 수석목사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가지 교회 모델」은 “주님의 왕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은 믿음 공동체의 미래 성장과 풍요를 보장하는 11가지 손쉬운 단계별 해결책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은 한 번 돌아 보고 자문해야 할 질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각 지역에 세울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를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도록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여러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J. 맥빈 | 노스스타 커뮤니티 교회 목사

이 통찰력 있는 책은 큰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수백 개의 교회를 탐방하여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이 책을 읽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전 사역자가 이 책을 읽고, 소화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타운즈, 스태저, 버드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넬슨 살시 | 여정 교회(뉴욕) 수석목사


신학생 시절 아내로부터 한 책을 받으면서 저의 혁신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모든 것이 창의적이면 교회는 파분해진다」로 당시의 창의적인 교회를 자세히 서술해놓은 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좀 더 틀을 깬 발상을 하게 되었고,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가지 교회 모델」도 이와 마찬가지로 혁신에 목마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혁신가들은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기대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레그 수랏 | 씨코스트 교회 담임목사


CONTENTS


■서문 10 ■저자 서문 13


서문 16

 1 유기적 가정 교회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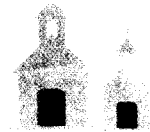
 2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 67


 3 멀티사이트 교회 87

 4 고대-미래 교회 129


 5 도시 복음화를 위한 교회 149

뉴 패러다임  
시대의  
11가지 교회 모델




 6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179

 7 사이버 교회 197

 8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 227

 9 다문화 교회 255

 10 여정 교회 271

 소비자 중심 교회 299

결론 322

■부록 344 ■각주 350



대부분의 출판사는 대중문화를 언급하는 책을 꺼린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고작 1~2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책은 시간이 흐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나의 아내 제니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시청률이 높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다. 바로 <영웅들 Heroes>이다(한국에서는 케이블 방송에서 <히어로즈>라는 제목으로 방영됨-역자 주). 이 드라마의 제목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영웅들은 그들 자체로는 상당히 평범한 인간이지만 — 나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더 평범한 사람이다 — 한편으로는 초자연적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 능력 때문에 잊힐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이 드라마를 예로 든 이유는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이 바로 내 인생의 세 명의 영웅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이다. 각 영웅은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었다. 당신이 나를 만나보면 상당히 의심

이 많고 깐깐한 사람임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피터의 원리(사회계층 구성원은 한 조직 안에서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수준까지 승진하려고 한다는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다보면 꽤나 괜찮은 것이 아직 내 주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다. 세 명 모두 평범하고 인간적이지만 놀랄 만큼 뛰어나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다. 실은 세 명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통찰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력은 단지 영민함이나 학습에 의한 지적 발달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를 깨닫는 것은 겸손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에서 꼽고 있는 11가지 분야는 특별히 인간 행동에 대해 유독 예리한 사람이 아니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위 '기독교 리더십'을 말하는 책이 편한 얘기만 늘어놓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하고 어정쩡한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이 책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감동이 임하길 바라고 기도한다. 하나는 독자들의 역량이 놀랍게 향상되고 확장되기를 바란다. 다른 하나는 독자들이 책에 나온 여러 방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결심하기를 바란다. 동시에 주님을 따르며 이 책의 교훈을 열심히 실행하는 진취적인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라!

책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간이 흐른 후

제발 이렇게 말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세상이 바뀌었네. 심지어 우리 교회도 바뀌었어.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이런 얘길 안 해준 거야?' 다음 장부터 독자들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소개할 일부의 생각과 변화는 일부 독자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변화에는 어떤 영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지 등을 알게 되면 행운이지 않을까? 그 외에 다른 변화들은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향해 좀 더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보여줄 실천적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스티브 쇼그린



당신이 미전도 지역에 파송된 초임 선교사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분명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저와 비슷한 지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에게 뭐 배울 만한 게 없을까요? 특히 복음을 잘 받아들인 지역의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선교사들은 그들의 일을 성경적으로 행하는 법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특한 선교지 문화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지 잘 알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처하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즉, 우리가 새로운 교회들의 움직임의 강력한 진원지를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다.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문화에 대해서 특정한 태도를 취하고 —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 — 그리고 이 태도에 따라서 교회성

장의 모델과 방향이 결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구분이 곧 교회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어떤 교회라도 이러한 가설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했다.'

이 책에서도 비슷하게 접근한다. 독자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11가지 교회 모델을 배움으로써 앞의 내용을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기 원하는지 더 알아보고 이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맞추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의 구조는 단순하다. 첫 번째 파트는 서론으로서 혁신적인 교회 형태가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온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가 쓰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번째 파트는 각기 다른 유형의 11가지 교회를 소개한다. 이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데 돌파구를 찾았다. 각 혁신의 종류를 분석해 가면서 그들이 다른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장단점을 비교할 것이다. 세 번째 파트는 각 장에서 이러한 교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반문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혁의 저변에 어떤 공통된 정신이 있는지 탐구해 나간다.

이 책을 통해 목회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당신이 꼭 담임목사일 필요는 없다. 당신이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훈련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가 효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힘을 부어 주셨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시대에 당신이 더욱 신실하게,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성령님의 격려를 통찰하기 바란다.

엘머 타운즈, 에드 스태저, 워렌 버드

교회는 변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나(에드)는 한 연구의 일환으로 평균 나이 68세, 출석 인원 35명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젊은 층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효과적인 예배를 통해서 젊은 층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다섯 개의 교회를 탐방하게 했다. 35명의 교인은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공사례를 둘러본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노트를 들고 비교적 열린 마음으로 탐방 길에 올랐다.

이 탐방은 2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첫째 주에는 세 교회, 둘째 주에는 나머지 두 교회를 탐방했다. 나이든 여자 성도들과 일부 남자 성도들은 악기 종류부터 교회 육아시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설교 내용과 스타일, 찬양까지 교회 전반에 대해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이 팀들이 조사를 끝낸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회의를 했다. 모든

성도가 모인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봤는지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들이 보긴 많이 본 것 같았다. 이들은 70년대 교회 스타일에 너무 익숙해 있었다. 두 곡의 찬송과 헌금, 그리고 또 한 곡의 찬송과 합창, 특정 형태의 설교로 이어지는 형식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방문한 어떤 교회도 이러한 형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교회들은 익숙했던 기존 형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한 노부인이 일어서서 분노하며 말했다. “목사님, 교회가 변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람의 평가는 그들을 대변하는 발언 같았다. 그리고 모두가 이 말에 동의했다.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이 나이든 사람들이 시대가 바뀐 사실을 너무도 모르는 것에 대해 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교회의 평균 나이가 68세가 아니라 38세라면? 그래도 우리가 시대감각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눈치 챌 수 있을까?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같이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멸해버리지는 않을까? 만약 우리 교회가 70년대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80~90년대에서 멈춰진 것이라면, 아니 작년의 특정 형태에 멈춰진 것이라면? 아무리 작년의 형태라고 해도 만약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면, 올해도 우리가 같은 것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교회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당히 미미한, 심지어는 통계상으로 0퍼센트에 가까운 — 숫자적으로, 영적으

로,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영향력만 미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단지 교회 문을 열어 두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년에 했던 것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발견해 내고 무기력증에 빠진 말씀 전파에 생기를 불어일으킬 만한 재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기보다는, 과거의 가치를 더 중시해서 스스로 서서히 죽어가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

변혁인가, 죽음인가? 너무도 많은 교회가 변혁 대신 죽음을 선택한다. 우리가 오늘 내릴 결정은 자녀 세대의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회에서 존다고 더 이상 별금을 물리지는 말자

1622년 미국 식민지 시절에 대한 최근 PBS시리즈(미국 공영방송으로 주로 교육물, 역사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역자 주)는 과거 400년간 미국의 교회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1600년대 설교는 보통 2시간 이상이었고 교회에서 조는 사람은 별금을 내야 했다! 심지어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 사항이었다. 오르간은 세속적인 악기로 평가되었고, 교회 건물의 침탑과 꼭대기의 십자가를 부적절하다고 치부했다. 주일에 골프를 치면 목에 형틀을 잘 수도 있었고, 침례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잘못

된' 해석을 했다간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었다. 최소한 이러한 일들이 바뀐 게 정말 다행이지 않은가?

더욱 심각한 사실은 미국의 교회들은 세계의 많은 교회가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하 교회와 박해받는 교회들, 심지어 현대에도 존재하는 순교자 교회들이 북아메리카에는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4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목사가 살해되고 투옥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반해 미국 교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4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는 지역사회가 교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뉴스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 영향력의 부흥이다. 필립 켄킨스의 「새로운 기독교 세계: 글로벌 기독교의 도래 *The Next Christi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북아메리카나 유럽이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지역이라고 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유일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륙은 북아메리카이며,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 방법과 원칙 구분하기

이 책은 변혁과 새로운 시도들이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런 옛말을 증명해 보인다.

방법은 여러 갈래. 원칙은 소수  
방법은 바뀔 수 있어도 원칙은 절대 바뀔 수 없다.

사기 미상

교회 성장에 관해서 나와 엘머 교수가 함께 쓴 두 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특정 방식을 통해서 교회들을 축복하신 것에 대한 기술이다.<sup>2</sup>

최근 쓴 책은 21세기 초반에 발견된 새롭고 독특한 방법을 관찰해서 기술했는데 이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축복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내가 전에 다뤘던 많은 교회가 그전에 쓰던 방식, 따라서 지금은 더 이상 소용없는 방법들을 고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놀랄 것도 없이 그들의 복음 전파 영역이 축소되고 몇몇 교회 출석률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다.

“문화가 변화할 때 이에 맞춰서 당신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방법은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절대로 복음의 메시지와 원칙은 바꾸지 말라! 또한 당신이 사용하는 방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추수할 곡식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 당신의 방법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지를 하나님께 여쭙보라.”

과도한 변혁

현재 교회 사역 분야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혁신적인 방법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과연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당신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디킨스처럼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절(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역자 주)이라고 느끼는가?

우리는 지금이 교회의 최고 전성기라고 생각한다. 각 교회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교회 리더들과 구성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음에 드는 도구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 교회는 더 다양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더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사역을 하며 더 많은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추수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시기가 최악이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다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이루라고 하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뜻도 분명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을 쓰라고 하시고, 성경에도 명시되지 않은 결과를 내길 원하신다면?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위임명령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요즘 문화는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컴퓨터는 무제한 용량에 가까워지고, 과학은 인간의 생명을 무제한으로 연장시키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고, 세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옛날, 옛날 이야기’를 새롭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제법 그럴 듯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을 생각해 보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창세기 11장에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갈 만큼 높은 탑을 세웠다. 바벨탑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지만(창 11:5), 그 보신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6절)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했을 때 건축이 끝나고 바벨탑 이야기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혁신을 기쁘게 생각하실까?’를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가 바른지를 확실히 해야만 한다.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요즘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꼭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토론 모임을 교회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 술집을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복음 전파의 한 방법일 수도 있고 전도의 장소가 될 수는 있어도 실제 교회는 아니다. 도시 빈민가 농구대 주변 길가에서 30분 정도 하는 성경공부를 ‘농구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단순히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손을 내민 것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교회라고 부르거나, 수시로 모이는 기독교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교회란 단어를 ‘지역에서 하늘의 영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기독교인들의 외부적 모임’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전문적인 정의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이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란 규율 아래에서 그 규율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임”<sup>3</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회에 대한 ‘더 들어낼 부분이 없는’ 최소한의 정의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의 씨앗을 기초로 해서 모든 변혁을 재고해 보고 과연 “이 변혁의 형태가 신약성경의 초기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저명한 경영학자이고 작가이며 교회와 비영리기구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다. 우리 세 명의 저자는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특권을 누렸다. 드러커가 가장 즐겨하는 질문 두 가지를 알고 있다. “당신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와 “당신의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다. 앞으로 교회의 변혁을 다룰 때 이러한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질문을 교회 상황에 맞게 옮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명하신 사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이다.

만약 교회의 기본 업무가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마 22:34-40) 이를 수행하는 것(마 28:19-20)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선교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대부분의 변혁은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손을 뻗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일어났다. 이러한 실패들은 새로운 변혁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변혁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사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오토바이 교회’가 호그 라이더(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의 모임)에 다가가고 있는가? ‘카우보이 교회’가 카우보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가정 교회가 각 가정에서 규율을 세우고 있는가? 변혁 전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변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 이다.

## 배우고 분별하기

다음에 나오는 변혁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당신에게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잡으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꼭 잡을 것을 부탁한다.

이 말에 동의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것을 몸에 익혀서 실행하기까지 누가 가장 힘들어 하는지 아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다. 기존 패러다임 하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만약 다시 1972년으로 돌아간다면 — 혹 1952년, 2002년으로 — 그들은 사역을 잘 해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겠지만 지금은 2009년으로, 그때와는 너무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역 모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따라서 그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 특정 모델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렸다 해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델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논리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가 현 문화의 ‘누구에 의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영역에서,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종종 과거의 성공은 미래에 있을 다양한 방식의 개방을 제한한다. 이는 특히 성령의 바람이 새로운 방향으로 불어올 때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이며, 앞으로 교회들이 나아갈 대안을 마련해준다.

우리 세 명의 저자는 강한 편견 아닌 편견을 갖고 있다. 그것은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모든 유형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북아메리카 교회의 ‘패러다임 전쟁’을 지켜본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인 동시에 괴로운 일이기도 하다. 교회는 무엇이 적절하고 무

엇이 적절하지 않은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종종 말씀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기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꼭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장만 읽고 나머지는 내던져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교회를 성장시킬 때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sup>4</sup>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불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종 다양한 방법에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눈의 결정 모양이 모두 다르고,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의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쓰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를 쓰신다고 믿으며 교회가 성경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일부의 변혁들은 성경에 충실하지 않거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교회는 자신이 여러 가지 교회 모델들 중 하나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신약성경의 표준이라고 자부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이들이 아무리 신실한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고 말씀에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해도 이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태도다. 또한 이들 중 몇몇은 본인들의 접근 방식이 성경에 확실히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신을 다른 교회로부터 상당히 차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기적 가정 교회의 핵심 리더인 볼프강 심슨은 하나님이 유기적 가정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분의 방법을 회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교회에 머무신다’고 다소 거창하게 표현했다.<sup>5</sup>

한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신봉자(여기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성경공부 교재로 삼는 것 이상인, 그 책을 신앙생활의 최고, 유일한 도구로 사용하는 약간 극단적인 집단을 지칭 -역자 주)들은 그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성경적이고 영원한 것에 관한 책이다. 다섯 가지 목적은 지상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다섯 가지가 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교회가 핵심적으로 완수해야 할 주님의 명령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6</sup>

엘머 타운즈 교수의 책 「예배 전쟁 멈추기 *Putting an End to Worship Wars*」에서는 이 외에 다섯 가지 교회 모델을 그들의 성경적 근거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sup>7</sup> 이 모든 교회 모델들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방식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델일 지라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자란 면들을 얼마나 잘 참아 주시는가! —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간혹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5-18).

우리는 교회 모델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모델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변혁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분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단정하지 않고 배우기

변혁을 평가하는 것은 교회와 그 관련된 것을 평가하는 방식과 같다. 이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엘머 교수는 간혹 “하나님을 터치하고 하나님에 의해 터치된다”라는 구절을 내 글에서 인용하곤 했다. 이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터치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골 2:28, 행 2:17).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비가 오지 않고 구름만 있어도 습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독교 모임에 들어갔을 때 당신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당신은 분명히 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분이 그 교회에 무엇인가를 하실 것임을…….

이것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일을 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당신이 특정 교회가 행하는 변혁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다면 이것은 그 변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일 것이다. 만약 어떤 변혁이 하나님의 힘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 변혁에서 빠져 나와라. 그러나 그 변혁이 말씀과 동일 선장에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 있다.

배우기, 분별하기, 나아가기

우리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교회들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는 것이지 판단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타운즈와 스테저의 저작 「빛의 영역 *Perimeters of Light*」<sup>8</sup>에 그 외의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 책은 당신 스스로 생각하라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우리의 바람은 당신이 변혁을 읽어가면서 배우고 분별하는 것이다.<sup>9</sup> 일부 변혁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 아마 그런 건 우리 역시 안 좋아할 것 같다. —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의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변혁은 그것이 설사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자연스

렵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중 몇몇의 변혁은 지속될 것이다. 이때 살아남은 변혁은 대부분의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책에서 다루게 될 50여 개의 각기 다른 교회를 통해 당신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 중에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듯한 변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시도에는 배울 점이 많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교회들은 포함하고, 정말 바르지 못한 생각을 시도함으로 자멸하고 있는 교회들은 제외시켰다.

당신이 열린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11가지 변혁을 신중하게 공부하길 바란다. 이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소리가 아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그 지역사회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들의 경우를 배우고, 그것이 과연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끄시는 방향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책은 단순히 변화를 시도한 열한 개 교회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열한 가지 종류의 변화 자체를 다루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교

회의 예를 들었다. 따라서 지금 부상하는 교회들을 배움으로써 당신의 사역이 좀 더 풍요롭기를 바란다. 단, 이 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딱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 장마다 ‘그래서?’란 고민을 한다면 당신의 교회에 왜 이 방법이 잘 맞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변혁이 당신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그 변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과도하게 진행되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이 개혁가들의 이야기를 펼쳐 놓음으로써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지금 당신의 교회는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기도한다. 첫째, 이 책을 통해서 불변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둘째, 이 책이 교회에 변화를 만들 힘을 불리일으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뒤늦게야 “교회는 변했어. 그런데 아무도 이를 말해주지 않았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책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당신이 이를 생각하고, 성경의 렌즈를 통해 분별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최상의 방향으로…….



##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 Chapter 1

# 유기적 가정 교회

## Organic House Churches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 해 5:42

닐 콜과의 첫 만남은 상당히 맥 빠지는 것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능력 있고 활발하게 교회 수립 네트워크를 이끌어간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책도 여러 권 썼으며 여러 곳에서 강의도 했다. 나(에드)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려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갈 때만 해도 상당히 들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길을 잃는 것은 회의시간에 깜빡 조는 일만큼이나 흔한 일이라 나는 좀 무리를 해서 차에 내비게이션을 달았다. 공항에서 콜의 사무실로 가는 내내 콧소리가 섞인 여성의 음성이 “좌회전

역자 주 | 오가닉(organic)이란 말은 유기체의, 유기적인, 유기 재배, 유기농 등의 뜻이 있는데 살아 있는 생명체의 의미로 중식하는 교회를 일컫는다.

하세요”, “5킬로미터 더 가서 오른쪽 진입로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했다(아내가 공짜로 해주는 걸 돈 내고 듣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아무튼 내비게이션은 비음 섞인 목소리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표지판도 주차장도 없었다. 나는 내비게이션이 이상하다 싶어서 꺾다가 다시 켜고 그 주위를 빙빙 돌았다. 그러나 여전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나는 결국 포기했다. 당신도 그 여자 분이 두 번이나 ‘저기가 맞다’라고 가르쳐 주면 압전히 듣는 편이 나온다. 나는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려 길옆에 있는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서 닐 콜이 나왔다.

좀전에 콜과의 만남이 맥 빠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던 것은 콜 자체가 맥 빠진다는 게 아니다. 물론 콜이 어깨를 움찔거리고 말할 때 몸을 지나치게 뒤로 젖히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의 성격이 아닌 그를 둘러싼 상황 때문에 힘이 빠졌다. 콜과 그의 주변에서는 세련됨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고 궁상맞기가 그지없었다. 콜의 메시지 중 하나는 기독교인의 힘은 ‘단순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메시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엉망이었고 좁고 더웠다(콜은 에어컨 시설이 너무 비싸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비좁고 지저분한 사무실에서 우리가 간신히 기대앉은 소파는 거의 골동품 수준이었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그의 신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가 갖고 있는 열정 때문이었다. 열정, 그 열정은 교회를 더 단순하고 ‘유기농’(더 순수하고 자연에 가깝게)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의 주장은 ‘매일 빠르게 교인의 수를 늘리려는 대규모 모임과 큰 예배 없이’ 교회는 단순해져야 하며 교회를 세우기가 더 쉬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범한 사람이 교회를 좁고 지저분한 사무실에 세워야 하며 또 이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낡은 소파에 앉아서 콜이 힘주어 말했다. 나는 콜에게 여러 수치와 통계결과 등을 물었다. 나는 선교학자로서 통계 내는 것이 천직이며, 또한 새로운 교회의 초신자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콜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전도 배가운동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사람 수를 집계할 수 없을 테고, 만약 수를 집계할 수 있다면 배가운동이 아니란 소리겠죠.” 콜은 교인 수나 앞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데 있었다. “요즘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자기 보존 욕구입니다. 교회가 일 년 밖에 못 버틴다 해도 사람들을 거둬나게 한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콜은 비호감 교회의 비호감 리더이다. 그리고 콜은 자신의 모습 그 대로를 좋아했다. 그는 큰 교회가 아닌 바른 교회를, 고급 교회가 아닌 변화하는 교회를 원한다. 그는 “우리는 어떻게 목회할지에 있어서 눈높이를 낮춰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됨의 의미에 있어서는 눈높이를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콜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경험이었다. 보통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만날 때 매주 출석 인원을 말하기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콜은 달랐다. 콜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수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변화했고 몇몇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콜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게 희생은 크지만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콜은 흔히 말하는 관참은 규모의 ‘잘 나가는’ 교회의 목사로 사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반 교회를 결점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았고 단순한 세 개의 원칙을 세웠다.

1. 우리는 ‘일’ 하는 것이 아니다.
2.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정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3. 우리의 목표가 사람과 교회 수의 증가일지라도, 이것은 단순하고, 언제나 전환 가능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콜은 그 단순함을 DNA로 정리한다.

D — 하나님의 진리(Divine Truth)

N — 관계 맺음(Nurturing Relationships)

A — 사도적인 사명(Apostolic Mission)

콜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건강하지 못한 상호 의존 관계가 문제라고 본다. 목회에 있어서 교회의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의존하며 교인

들은 목회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관행의 독소를 빼내는 근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성도들은 언제 앉고 일어서고 언제 무릎 꿇어야 할지 알려주는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유기적 가정 교회의 많은 지지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교회 — 기관과 같은 교회 — 에 대해 비우호적이다. 하지만 콜은 그렇지 않았다.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자루에 담는 게 맞죠”라고 말한다.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데 투자해야지 건축물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쏟아 붓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라고 했다.

콜은 그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의 거대한 사역을 운영하는 직원은 총 1.5명이고 건물 주차장도 없지만, 미국 12개 주와 전 세계에 걸쳐 2,000여 명을 양육하고 있었다. 구멍 뚫린 소파를 가진 사람 치곤 대단한 일이었다.

## 구별되는 특징 만들기

콜은 저서 「오가닉 처치 *Organic Church*」에서 “세상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있지만, 그의 신부인 교회에는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sup>2</sup> 꼭 집어서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데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애석해 하면서 “현재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sup>3</sup>고 말한다. 그의 주장은 너무 많은 교회들, 이미 자리 잡고 시설을 갖춘 교회들이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그들의 원래 세웠던 계획을 잊어버렸다”고 말한다.<sup>4</sup> “주일날 출석 교



인 수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콜은 말했다.

콜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아닌 ‘사람’이다. “교회의 사명은 변화된 삶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일에 부르신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이다”라고 콜은 말했다.

콜은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교회의 세계에서 떠났다. 역사상 교회가 가장 잘 조직화 되어 있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자원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콜이 가정 교회를 선택하면서 포기한 것들이다. 콜의 길은 ‘과도한 성공에서 되돌아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도한 성공이란 미국의 교회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최상의 것들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서 물질주의에 휩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며 그분과 매일매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 — 을 망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콜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레볼루션 Revolution」에서 조지 바나는 2000년도에 미국 내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적 활동은 근처 교회에서 이루어진 반면 오늘날에는 종교적 활동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전체 성인의 9퍼센트가 가정 교회에 참여하고, 이보다도 높은 비율인 22퍼센트가 다양한 장소에서 영적 모임을 갖는다. 이를테면 시장, 직장 등 여가 장소에서 사람들은 만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지역교회 자리

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교회 트렌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타임>지에 주요 기사로 다뤄지거나 CNN이나 MSNBC의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다. 많은 종교단체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기관도 이러한 움직임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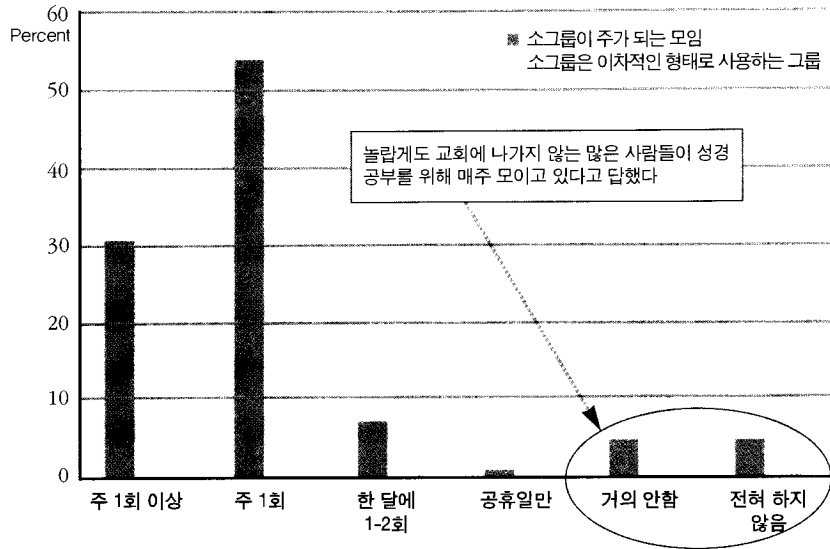
내(에트)가 이끄는 미션 리서치 센터(Center for Missional Research, CMR)에서는 가정 교회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를 통해서 가정 교회에 연관된 전체 사람들의 수를 밝히려 했다.

CMR는 조그비 인터내셔널(Zogby International)과 제휴해 3,6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과 대안적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들에게 “당신은 매주 20명 이하의 사람들과 만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주된 신앙 활동인가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조사에 참가한 24.5퍼센트가 이러한 소규모 모임이 주요한 신앙 활동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교회, 성당, 이슬람교 성전의 소그룹 모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모임들이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종교 기관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그룹 참여자의 교회 출석률을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실험 참가자 3,600명의 성인들 중 50명이 소모임에 나가지만 공예배에는 거의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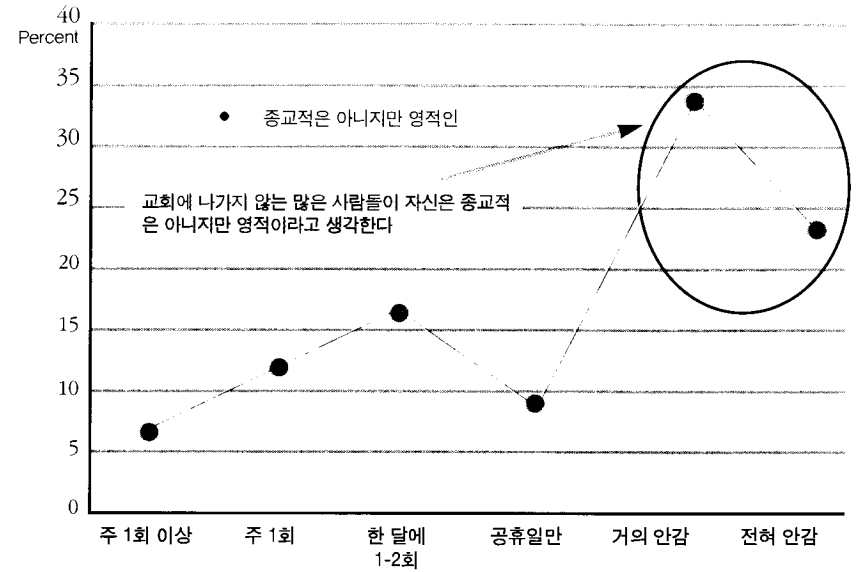
소그룹(20명 이하 모임) 참여자의 공예배 참여율



이 결과로 볼 때, 1.4퍼센트의 미국인이, 즉 4백만 명이 교회, 성당, 이슬람 성전 등 어떠한 종교기관에 참여하지 않고도 가정 교회 같은 대안 신앙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sup>7</sup>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건물도, 프로그램도, 교회 예산도 아니다. 교회는 관계와 공동체이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정의하는 문화 트렌드와 부합한다.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퍼센트의 사람들이 자신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이것은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졌다.<sup>8</sup>

영성, 종교성 자기 평가와 공예배 출석 빈도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종교적인 만남의 장소가 아니다. 전통 교회에서 접할 수 없는 신앙적 체험이나 종교적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전통 교회로부터는 멀어져 간다.

### 가정 교회 알아보기

지난 2006년의 조지 바나 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가정 교회의 성립 조건과 그 구성원의 종류가 나와 있다.

- 80퍼센트의 가정 교회는 매주 만난다. 11퍼센트는 한 달 간격으로 모임을 갖는다. 모임이 가장 많은 날은 수요일(27퍼센트)과 일

요일(25퍼센트)이지만, 20퍼센트는 주중의 각기 다른 날 모임을 갖는다.

- 가정 교회의 모임은 주로 2시간 정도이다. 평균적으로 1시간 이하가 7퍼센트, 3시간 이상이 9퍼센트이다.
- 대부분의 전통 교회들이 매주 같은 형식을 따르는 데 반해, 38퍼센트의 가정 교회는 만날 때마다 융통성 있게 형식을 달리한다고 답했다. 모임에서 하는 영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93퍼센트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다.

\*90퍼센트가 성경을 읽는다.

\*89퍼센트가 그룹 밖의 사람들을 도와준다.

\*87퍼센트가 사람들의 개인적 필요나 경험을 나눈다.

\*85퍼센트가 모임 전후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한다.

\*83퍼센트가 성경 공부와 토론시간을 갖는다.

\*76퍼센트가 형식을 갖춘 교육시간을 갖는다.

\*70퍼센트가 음악이나 찬양시간을 갖는다.

\*58퍼센트가 예언이나 방언의 시간을 갖는다.

\*52퍼센트가 참여자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특정 사역에 도움을 준다.

\*51퍼센트가 성만찬을 한다.

\*41퍼센트가 교육의 일환으로 비디오 자료 등을 본다.

- 대부분의 가정 교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64퍼센트의

가정 교회가 자녀들이 함께한다. 이중 41퍼센트의 교회들은 자녀들을 모임 내내 참여시켰고, 38퍼센트의 교회들은 자녀들이 따로 모임을 갖도록 분리시켰다. 나머지 가정 교회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과, 아이들과 어른을 구분하여 진행되는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 가정 교회의 평균 인원은 20명이다. 가정 교회에서 어린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명의 어린이(18세 이하)가 함께한다고 보면 된다.
- 최근 가정 교회의 급성장이 두드러진다. 많은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평균적으로 54퍼센트의 사람들이 참여한 지 3개월 미만이다. 집계상 75퍼센트의 가정 교회 참석자들이 참여한 지 1년 미만 자들이고, 20퍼센트의 성인들이 가정 교회에 참여한 지 3년 이상된 자들이다.<sup>9</sup>

### 성경적인 공동체에서 '여왕' 없애기

2007년 2월에 최초로 열리는 오가닉 가정 교회 전국 컨퍼런스가 있었다. 이 컨퍼런스에 몇 백 명이 모였고 콜은 내(에드)가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설문 중의 한 질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모임이라고 답했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표현에는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자리',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매력적이기보다 사명적인 자리' 등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믿

음의 공동체를 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정의했고 그 고유함을 찾으려 했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참여자들의 평등함을 강조하고 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목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내 글 중에서 '가정 교회' 대신 '코이노스'란 표현을 소개한 바 있는데 그것은 친밀한 공동체를 강조한 것이다. 「선교적인 교회 세우기 *Planting Missional Churches*」에서 왜 '코이노스 교회'란 표현을 이 운동에 썼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다.

'코이노스 교회'란 표현은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다. 나는 '가정 교회'로 종종 불리는 이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운동이 '가정'이란 단어를 통해 정의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교회가 그저 단순히 집에서 만나는 것이 아님을 강하게 피력했다. 실제로 식당, 직장 등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를 장소로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코이노스 교회는 온전히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만 작동되며 만일 모두가 나누지 못하면 더 이상 코이노스 교회가 아니다. '코이노스'란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44절의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에서 기인했다. 코이노스 교회는 사람들이 정말로 삶을 같이 살아갈 만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작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sup>10</sup>

조사에 따르면 이 운동은 단순하지만 혁신적이다. 한 응답자는 이

것을 '탈중심화 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는 성장하게 되며 이것이 작은 가정 교회로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정리했고, 다른 응답자는 이러한 신자들과 그 그룹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회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있어서 예배처럼 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알랜 히르시는 체스를 빨리 배우는 방법은 여왕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왕 말을 없애고 체스를 해봐야 비로소 다른 말의 가치와 사용법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보다 전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큰 것'에 덜 의존할 수 있게 된다. 폴과 다른 유기적 가정 교회들의 경우 '여왕'은 크고 멋지고 매력적인 '주일 예배'이다. 그들은 여왕이 없어진 후에 다른 것들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가정 교회의 간략한 역사

신약성경의 초기 교회들은 가정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예수된 5천 명을 5천 가구로 해석하면 여기에 여성들과 아이들의 수를 포함시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는 2만 5천 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런 초대형 교회는 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집에서 모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것은 '초대형 가정 교회'라 할 수 있다.

가정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해 왔다. 초기 기독교인 공동체는 첫 수세기 동안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첫 교회 건물의 연대는 AD 201년으로 추정되며 이보다 이전 시기의 건물에 대한 기록은 아

직까지는 없다. AD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합법화한 후에도 많은 사람이 집에서 모였으며 이러한 관행은 사회 변두리에 있는 기독교 그룹에서 지속되었다.

중세 시대에는 유럽 전역에서 공동생활 형제회(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14세기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신앙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모였다. 또한 많은 사람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이러한 가정 교회가 기반이 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sup>11</sup>

미국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가정 교회에 대해 잘 모른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폐쇄적이었던 중국에서 기독교가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을 들어본 적은 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는 가정 단위로 모이는 8천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sup>12</sup> 혹자는 이런 가정 교회의 숫자가 1억을 넘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중국이 1947년에 서양의 문물과 문화 — 특별히 기독교 — 의 영향을 막기위해 대나무 빗장을 철컥 걸었을 때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중국 스스로가 그 빗장을 열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영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후 현재 중국의 가정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하나님께서는 서양 선교사 없이, 서양 국가의 재정 후원이나 보호 없이 — 물론 서양의 중보기도의 지원은 포함되겠지만 — 중국에서 부흥을 일으키셨다. 중국의 가정 교회들은 정식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도 없고, 교회 건물이나 신앙교육 프로그램, 주일학교 교재도 없이 계속 성장해 왔다. 심지어 성경이 없어서 한 권의 성경을 여러 교회가 돌려보는 경우

도 있다.<sup>13</sup>

방글라데시의 '예수의 집'이라는 곳에서는 몇 천 명의 새신자들이 금요일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슬람의 문화적 영향이 강한 이 땅에서 그들은 이슬람 전통에 따라서 옷을 입기는 했지만, 이슬람 국경일에 가정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러한 예들은 단지 과거 천 년간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했을 뿐이다. 코이노스 교회는 교회의 성장기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문화의 가장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다.

### 공동체로서의 가정 교회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미국에는 가정 교회가 적은 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운동의 전체적 그림을 보면 상당히 놀랄 것이다. 많은 가정 교회 사람들은 반체제적(이 책에서 사용되는 이 개념은 반사회적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구속적이고 답답한 조직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뜻한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내서 계수하는 것은 꽤 힘든 일이다. 구글 검색을 통한 인터넷 리스트에는 최소한 100개의 가정 교회 그룹이 나와 있다. 마이크 스틸은 전국제자 단체인 '다운' (DAWN: Disciple a Whole Nation)의 책임자이다. 이 단체에서는 150개의 가정 교회 네트워크를 알아냈는데, 각각 여러 개의 개인교회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제노스 펠로우십이란 한 가정

교회 네트워크는 그 지역에 110개가 넘는 가정 교회를 갖고 있다.

코이노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주요 지역으로는 콜로라도 주 덴버를 꼽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그곳의 극단적인 포스트모던 문화에 기인한 것 같다. 따라서 현대적인 가정과 교회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콜로라도 주의 대형 교회를 외면하고 가정 교회와 같은 대안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옮겨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교회를 떠나서 작은 가정 교회를 선호하는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코이노스 교회의 대면적 공동체로 이끌었을까? 일반적으로 그들은 다른 신앙인들과의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코이노스 교회로 온다. 어떤 이들은 거대한 대형 교회나 도시 교회를 떠나서, 또 어떤 이들은 집 근처 교회를 떠나서 이곳으로 온다. 형태가 어떻든 그들이 기존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인과의 친밀한 영적 교류의 결핍 때문이다.

다음은 가정 교회의 일곱 가지 특징이다. 이는 어떻게 가정 교회의 영적 동력이 기존 대형 교회를 이탈한 교인들과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특징이 모든 가정 교회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가정 교회 운동에는 여러 지류가 있다. 어떤 교회는 은사 중심적이고, 어떤 그룹은 특이하게 홈스쿨링이나 자연 분만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특정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어떤 교회는 교리적, 영적으로 단지 표류하기도 한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가정 교회는 성경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교회임을 밝혀둔다.

## 1. 가정 교회는 신념의 공동체다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신앙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받게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가치나 태도를 공유하고 경험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인의 경험을 받아들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며 이는 대형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나 이를 수 있을 만한 일이다.

대부분의 가정 교회는 성문화된 교리나 원칙들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 행동 원칙이 없으며 새로운 멤버들에게 서약을 하게 하거나 특정 약속 등에 사인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가정 교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신앙인들의 특정 가치나 태도를 주고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가정 교회의 우선순위와 공유하는 경험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깊이 헌신하게 된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가정 교회는 신념의 공동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답을 공유한다. 넓은 의미로 이 신념의 공동체는 새신자들을 가정 교회로 끌어들이는 매력 포인트가 된다.

## 2. 가정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다

가정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져 하

나가 되며, 자신이 신앙 공동체의 일부가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라고 부른다.

공동체의 본질은 서로 공유하는 경험을 통한 하나 됨이다. 공동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 등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는 상호 교류 과정을 통해서 성립된다. 현대인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가정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자신의 인생을 서로에게 열어 보이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

하나 됨과 진정한 공동체 형성은 사람들 각자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있고 거듭남에 대한 공통된 깊은 체험과 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꼭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로소 소통할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3. 가정 교회는 믿음으로 형성된 공동체다

믿음은 꼭 교실에서,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리를 설명해 줄 때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실습을 통해 이 교리를 배우고 실제로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는 장면을 그려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은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교리가 그들 인생의 일부가 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을 명사와 동사로 쓴다. 믿음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 교리적 선언, 사람 안에 내면화되는 믿음을 뜻한다. 그러나 믿음이 동사로 쓰였을 때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예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된다.

대부분의 가정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 문답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정형화된 교실에서 신앙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올바른 교리적 믿음은 사람들이 그들의 내적 믿음을 활용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 이는 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척도가 된다.

살아 있는 믿음과 교리적 믿음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까? 가정 교회의 정신처럼 공동체를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살아 있는 믿음을 우선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믿음은 성경을 읽음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그러나 다른 신앙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신자는 기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많은 초신자는 기존 신자가 믿음으로 내딛는 것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도 하고 길러지기도 한다.

초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 가고 그분을 섬길 장소를 찾는다. 보통 그들은 가정 교회의 작은 일부부터 시작해서 더 책임감과 무게가 따르는 중요한 일로 옮겨간다. 이렇듯 공동체 안에서 어린 신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해 나간다.

#### 4. 가정 교회는 가치 중심적 공동체다

공동체가 새신자에게 중요한 존재가 됨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우선 되는 가치는 사람들에게 전염된다. 새신자들은 그룹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게 된다. 만약 그룹의 다른 멤버가 사업에서 정직함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새신자도 정직함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같은 식으로 마음의 정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섬김 등이 초신자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한다. 계속해서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 증폭되면서 '나는 전적으로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 5. 가정 교회는 멘토링 에이전시다

가정 교회는 새신자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기독교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새신자들은 관찰과 비언어적 경험과 대면적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 체계에 융화된다. 이러한 멘토링 관계는 필요에 의해 형성되며 잘 짜인 커리큘럼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가정 교회는 스스로를 밀접하게 연결된 확대 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믿음이나 그 실행에 대한 공식적 선언문 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실제 가족 안에 성문화된 규칙이 없는 것과 같다. 새신자들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만 곧 교회 다른 성도들의 태도를

따라야 하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초신자를 가정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멘토링 기관이 됨을 의미한다.

#### 6. 가정 교회는 공동체에 소속된다

가정 교회는 새신자들에게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새신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준다. 따라서 이 가정 교회 공동체는 새신자의 인생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 멘토링에 있어서 가정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를 성취하게 된다. 첫 번째, 새신자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 가운데 들어오도록 만든다. 두 번째, 가정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협조적이다.

#### 7. 가정 교회는 자기정체성을 부여한다

사람들이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정체성이나 다른 곳에서의 소속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 교회 밖의 다른 곳에서도 — 가정 교회의 정신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라도 — 충성하고 있다.

신앙 공동체가 개인들의 '거듭남'을 시작으로 형성되더라도 가정 교회 모든 사람이 다른 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듭남은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우선순위를 특정 방향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가정 교회의 사람들은 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된다.

공동체는 서로를 따뜻하게 수용하고 격려한다. 가정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를 섬기며 존경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다. 이것은 서로를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자유와 하나 됨을 가져온다.

가정 교회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리를 학습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 교회들이 성문화된 신조나 고해 기도문 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한 동의를 강요하지 않으며 각종 방침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선언문보다도 공동체 자체가 그들을 강하게 묶는 더 큰 의미의 '접착제'임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서로의 개성과 개별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한다.

### 가정 교회의 종류

많은 매력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을 가정 교회로 이끌고 있고 접착제 같은 것들이 그들을 가정 교회에 머물게 한다. 가정 교회를 분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미 많은 독자들이 가정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이중 몇몇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몇몇 가정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옷을 직

접 만들어 입고, 지하실에 음식과 총기류를 보관하고, 욕조에서 아이를 낳는 등의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모든 가정 교회가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 교회를 말하고 다닌다. 이들의 특이한 생각과 취향 때문에 가정 교회 개념에 이끌리는 것인지 반대로 가정 교회 자체가 이런 낯다른 생각들을 갖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다룰 것이다.

최근에 가정 교회의 확산을 사회적 '운동'이라고 칭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가정 교회의 경우 현재 너무 많은 변수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무 적은 통일된 원칙들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가정 교회 그룹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가정 교회를 이슈화한 여러 단어들 이 뜰 것이다. 이들 중에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라' 성경 공부, 홈스쿨링, 경계선 인격 장애 문제, 일반 교회들에 대한 분노, 오순절 신학, 심지어는 자연분만까지 있다. 이러한 유기적 가정 교회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1. 분리론자: 이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연분만과 홈스쿨링을 강조한다. 빌 고타드(세상 음악과 세상 교육 교재를 사용하기보다 기독교 음악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음악을 권장함) 같은 목회 스타일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2. 반제도적 성향자 : 이 그룹은 기존의 조직적, 제도적 교회에 대한 경멸 정도에 있어서 양 극단의 중간쯤에 있다. 기존 교회에 대해 어떤 이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일을 다르게 할 뿐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그룹은 갖춰진 형태, 건물, 서열 등에 질색한다. 그들은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유물이나 체계화된 구조를 가지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바라신다고 믿는다. 이러한 운동에 있어서 주요 인물인 오스틴 스팍스는 이렇게 쓴 바 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사람들과 연합해 사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이다.”<sup>14</sup> 이 운동의 다른 주요 인물로는 진 에드워드, 조지 워녹, 늦은 비 운동(the Latter Rain Movement)과 샘 파이프 등이 있다.

3. 더 깊은 이해 추구형 : 정신적인 리더인 워치만 니와 윌트니스 리가 이 그룹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두 사람의 가르침을 지속시키기 위해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워치만 니와 윌트니스 리의 전술만을 전적으로 출판하는 미국 출판사 -역자 주)가 일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회복역 성경 *The Recovery Version Bible*」을 만들기도 했다. 워치만 니와 윌트리스 리의 글을 읽으면 가정모임에서 예언이 사용되는 것과 기도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과 서로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는 일들이 모두 비슷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점은 그들이 퀘이커 교도들과 닮아 있음을 보여준다.

4. 외부 노출 그룹 : 이 그룹은 일반적인 가정 성경 공부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경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룹 리더가 그의 의견을 떠벌리고 다니며 이 성경 공부 모임에는 없는, 다른 관점의 장점을 배격하는 식으로 말하는 가두 연설 형식을 갖고 있다. 이 그룹은 종말예언에 서부터 여러 가지 은사에 이르기까지 카리스마적 은사들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그룹은 더 많은 사람이 이 그룹으로 데려오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다.

5. 즉흥적 그룹 : 일부 가정 교회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특정 인도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가정 교회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힘으로 갑자기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 그룹 일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가정 교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모두가 정통 교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진 것도 아니다. 모든 가정 교회를 같은 범주 안에 넣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sup>15</sup>

## 유기적 가정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가정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신앙인들이 가정에서 만나고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가정 교회에서 무엇을 재발견할 수 있을까?

그전에 한 가지 물어 보고 싶다. 다음 중 어떤 사람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 인생이 변화될 확률이 가장 높을까? 이웃집 가정 교회에 나가면서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서로의 영적 성장에 책임을 지는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전형적인 시설 중심 교회에 나가는 사람일까?

다음은 한 가정 교회 리더가 그들의 공동체를 설명한 내용이다.

먼저, 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더 알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안다. 우리는 종교적 만남 외에도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의 마음에는 형제애 같은 것이 있다. 우리는 여러 의미에서 가족 같은데... 예배 중 모든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거나 곡을 택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목회자가 시작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의 관점을 더할 수 있다. 이런 건 자주 일어난데 이는 즉흥적이며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 ... 우리는 서로 돌보는 데 책임을 느끼며(우리 자체가 교회이다) 어떤 것이든 한 몸으로서 결정을 내린다. 우리는 만남과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스스로 결정

한다. 우리가 때로 무슨 어떻게든지 스스로 결심한다. ... 우리는 서로를 함께 한다. ... 나의 영적 성장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이 그룹은 매주 주님과 함께 나를 돌본다. ... 우리는 한 수 놓인 우애를 쌓고 서로 힘을 준다.<sup>16</sup>

이와는 반대로, 전형적인 미국 교회에서 성공의 정의는 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며, 그들이 십일조를 하고, 교회 사역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제자훈련은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 이것은 모두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결정적 영향력과는 큰 관련이 없다.

전형적인 미국 기독교인들은 이미 복음의 능력과 교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이들 안에는 변화보다 평범하다는 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가정 교회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배워야 한다. 공동체는 교회의 중심 가치이다. 제자훈련은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생활 패턴이다. 공동체는 고유한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그냥 매일매일 열정적인 설교자의 얘기를 듣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 기독교인의 삶은 진정한 공동체에서 더 자연스럽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번 결정하는 것,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것, 성도가 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교인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말해 왔지만 지금 공동체의 수는 50년 전 주일학교 운동이 최절정이었을 때보다 적다. 그렇다고 해서 소그룹 공동체에 압박을 주면 그들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대다수의 소그룹 리더들은 말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랜디 프레이지의 「교회 연결시키기 *The Connecting Church*」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교회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많은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오히려 공동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관계 형성이 없는 딱딱한 프로그램, 교회 활동과 동떨어진 가족들, 밤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왔으면 하는 기대 등등이다. 관계 형성과 무관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는 성도들의 삶을 나누지 못한다. 이제야 몇몇 교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몇 가지의 특정한 행동은 그 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떤 교회는 두 가지 사역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의 셀 모임. 가정 교회는 이러한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인데 이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교회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토니 데일과 펠리시티 데일은 목회에 있어서 그들의 방법을 '단순

한 교회 적 접근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는 대부분의 교회가 단순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교회는 각종 위원회와 장기 계획, 재정 문제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교회는 커다란 관료제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단순한 공동체가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교회는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복음의 힘에 의한 인생의 변화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알맞도록 단순해져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는 적당히 복잡해야 한다. (이에 도움을 줄 만한 참고 자료로 톰 레이너와 에릭 게이저의 책 「단순한 교회 *Simple Church*」를 추천한다.)<sup>18</sup>

—우리는 낮은 성과를 내는 시스템을 두둔해서는 안 된다.

미국 기독교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가정 교회를 두려운 움직임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고사되고 있거나,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교회를 두둔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정 교회를 통해 다시 역사하신다는 것, 특별히 누구라도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현 시대의 문화에서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목회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의 비성경적인 구분을 철폐시킴에 따라 새롭고 더 효율적인 교회의 형태가 탄생할 것이다.

## 고려해야 할 점

우리는 가정 교회에 관한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흥분했다. 우리는 또한 현재의 건물 중심 교회의 안락함을 과감히 포기한 기독교인들을 존경한다. 교회건물+목회자+교회 프로그램=콘스탄티니안 모델(제도권) 교회는 성경적 그림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문화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가정 교회가 답일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현재 선진 34개국이 이 가정 교회 운동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까지 주류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지 못했다. 서양에서는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데이비드 케리슨은 「하나님의 교회개척 배가 운동: 하나님의 역동적인 영혼구원의 현장을 보라 *Church Planting Movements: Redeeming a Lost World*」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가정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돌파구를 원했고 또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가정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운동의 연구는 항상 현실에서 실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순전히 열정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서양 문화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전문화에 길들여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후기 공업시대, 분업화로 인한 파편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 만약 자동차가 고장 나면 정비소에 갈 것이다. 아프면 의사와 진료 시간

을 잡을 것이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면 종교적 '전문가'를 찾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경제적 능력과 자유를 가지게 되면서 그들은 더욱 더 큰 그룹 안에, 더욱 더 기술화된 리더십 아래 들어가길 원한다. 이것은 문화적 현실이다. 가정 교회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 교회들이 이들의 성장을 저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개념 자체가 현대 문화의 흐름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는 비교적 당연한 것이다. 가정 교회는 신학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기존 교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 방법을 믿고 또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상한 신학적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가정 교회에 끌린다는 것이다. 가정 교회가 이상한 신앙을 부추겼다가보다 특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 교회에 끌렸다고 보는 입장이다.

우리는 또한 많은 가정 교회 모델에 성경적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리더십이 부족하고 제도적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이, 성경이 장로와 목사, 집사의 성경적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러한 리더십이 무시되도 좋다면 왜 신약성경에서 초기 기독교의 가정 교회들에게 그렇게도 많이 리더십에 대해서,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또한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서약 공동체의 중요성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서약을 했다. 물론 비기독교인들도 환영하고 포괄적 의미의 공동체도 있었다. 서약 공동체의 일원은 쉽게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성경은 행실이 좋지 못할 경우 그 공동체에서 내칠 것을 명하시고(고전 5:9, 고후 2:6) 개선된 이후 다시 이 언약 공동체로 받아들여 주라(고후 2:7-8)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사항도 있다. 한 예로 성경 의식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은 단순하다. 신약성경이 어떤 식으로 하라고 정해주는 많은 부분들은(특히 리더십과 신앙의식, 규율, 서약 등) 초대교회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규율, 의식들은 현대에 만들어진 유물이 아닌, 신약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지금도 모든 교회에 적용 가능하다.

### 하나님은 가정 교회를 사용하신다

잘못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가정 교회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당신의 교회에 대해 고려해 보기를 원한다.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가? 당신 교회는 얼굴을 맞대고 관계하는 가운데서 과연 진정으로 열린 삶을 살 수 있는 코이노스 공동체가 되어 주었는가? 당신은 그렇게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야만 서로 챙겨 주는 수준이라면 목회적 돌봄 시스템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돌보

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사람들은 친구 같은 교회를 원하지 않고 친구를 원한다. 사람들은 돌봄의 원칙을 원하지 않고 돌봐 주는 친구를 원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 줄 곳을 떠올렸을 때 즉시 생각나는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고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변화는 두드러질 것이며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와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감당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 주일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현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가정 교회에서 이 말씀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기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이 집에서 일어나든 초대형 교회의 벽돌 건물에서 일어나든, 당신의 교회나 나의 교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나 진실된 성경적 교회가 아니다.



##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 Chapter 2

#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

## Recovery Churches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 4:6)

데일 라이언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주일이면 좋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잘 자란 꽤 괜찮은 아이였다. 라이언은 생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을 하다가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다.

졸업을 준비하면서 라이언은 부인에게 말했다. “나는 좋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에게 잘 대우해주는 좋은 교회를 찾는 중이고 이런 곳이라면 모든 것이 좋을 거야!” 이런 목표는 그에게 너무 중요했다.

그는 실제로 꿈꾸던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다. 마텔(Mattel: 바비 인형을 만드는 회사 -역자 주)사의 바비와 켄(바비 인형과 짝을 이루는 남자 인형 -

역자 주)처럼 꼭 들어맞을 만한 곳이었다. 교회 건너편에는 골프장이 있었고, 보기에도 꽤 괜찮았다.

그러나 라이언이 목사로 부임한 첫날, 한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 성도로부터 성적 학대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 부임한 지 한 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가정이 알코올 중독으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주에는 약물 중독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뭔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라이언이 말했다. 그는 숨겨진 모든 고통의 근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2주짜리 핸드벨 세미나에 교회의 핸드벨 단장을 보냈다. 2주 후 그녀는 핸드벨 성가대를 이끌기에 충분할 만큼 배우고 돌아왔으며 다음 해 핸드벨 심화반에 들어가서 더 배우려는 열의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가 갖고 온 자료를 보며 이렇게 탄식했다. “나는 재활 그룹을 인도하는 것보다 핸드벨 단장 훈련 자료가 더 많은 것에 당황했습니다.”

라이언은 지금까지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중독 문제를 그저 다른 사람의 일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도 분노와 건강하지 못한 의존적 관계와 완고함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과 은혜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에 더 위안을 삼았던 사실을 발견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결국 나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분노에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말했다. “나의 열정은 예수님의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성적 학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25~30퍼센트의 여자 성도들이 성적 학대 경험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이들을 — 위험에 처한 추수할 곡식 —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이언에게 강하게 역사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12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 72명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훈련하시는 계획에 대한 말씀이다. 2절은 모든 목회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의 ‘회복 목회’에 대한 그의 해석은 무엇일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즘 세상에는 모든 곳에 중독이 창궐하고 있다. 모든 곳에 고통이 있고 세계 각지에 주정뱅이들이 가득하다. 따라서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추수할 곡식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등 온갖 중독자들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을 찾아 나서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라. 당신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될 수 있다.”

현재 라이언은 풀러신학교 회복 목회 교수다. 그는 1989년 미국 기독교재활협회를 창립했다([www.nacronline.com](http://www.nacronline.com)).



## 변혁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회복'은 새로운 것이지만 실제로 초기 교회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1865년에 시작된 구세군은 기본적으로 콘셉트 목회였다(11장 참고). 그들은 방치된 런던 슬럼가 거주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군복, 군가, 군대 용어 등을 사용했다. 그러나 원래 회복 목회는 광의의 개념으로 병원, 미혼자의 집, 숙소, 노숙자를 위한 재활센터, 교도소 사역, 긴급 재난 구호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초기 선언문에 나와 있는 구세군의 목적을 보면 그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빈곤의 정도와 상관없이 사회 복지 활동을 제공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고 말한다.

교회는 항상 알코올 중독 문제를 다루어 왔다. 아마도 1900년대 초기 미국 주요 도시에 있었던 '구세선교'에서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주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헌법 제19조였다. 또한 미국양심협회는 알코올 중독이 가족과 특히 어린이를 해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당시 교회들은 임신한 어린 소녀들을 위한 목회 사역으로 유명했다. 이때부터 교회는 사람들을 성 중독에서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추측된다. 요즘 사람들은 일 중독,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음식 중독, 스포츠 중독, 열댓 가지도 넘는 '받아들여질 만큼 가벼운 중독'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중독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건강한 인간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왜 이렇게 중독이 많을까? 혹자는 미국인들의 도덕성 상실이 마음의 도덕적 공백을 만들어 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본성에 따라 미국인들도 이 공백을 특정한 버릇으로 채우게 되었고 이 버릇이 중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됨에 따라 미국인들이 그들의 도덕적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중독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성령님이 말세에 사라지게 되어서(딤후 4:1-3, 딤후 3:1-7)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줄어들고 어두움이 홍수처럼 몰려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풍요로움과 이에 수반되는 '쾌락주의'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다 보니 중독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속박의 사슬을 끊고 *The Bondage Breaker*」의 저자이며 폭발적인 치유사역([www.FreedomInChrist.com](http://www.FreedomInChrist.com))을 하고 있는 네일 앤더슨은 중독을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심각한 암 덩어리라고 묘사한다.<sup>2</sup>

## 회복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

질 스미스는 알코올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15세 때 새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맥주를 받아 들었다. "그 선택은 나를 33년간의 긴 여정으로 이끌었다"라고 스미스가 말했다. 그는 곧이어 알코올과 약물을 남용하기 시작했다.

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섬길 때까지도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했고 결국 중독에 이르렀다.

1982년에 그는 교인들에게 별문제 아니라고 말하고 병원에 들어갔다.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얼마간 진통제를 투여 받아왔는데 이제 진통제 사용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고 부작용을 우려한 주치의의 권유로 잠시 입원을 해야 한다고 둘러댔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저는 그때 깨끗하게 인정하고 털어놨어야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0알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심각한 중독 상태였고 목사로 계속 일한다는 것은 사기라는 걸요.”

스미스의 인생은 곤두박질쳤다. 결국 목사 자격을 상실했고 해임되었다. 그 후 그는 애틀랜타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와플 하우스에서 접시를 닦고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최악의 시간에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살고 싶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구세군 노숙자로 등록했다. 그리고 신학교 시절 알고 지내던 스티브 셀리 목사에게 연락을 했다. 셀리는 스미스를 받아주었고 교회 건물에서 살도록 해주었다. 셀리의 교회는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고 그의 회복 과정에 함께했다. 스미스는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무르며 자동차 딜러로 일했고 결국 원룸 아파트와 750불짜리 차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스미스는 회복되었고 치유되었다.

현재 스미스는 그 교회의 회복 목회 책임자다. 이 교회는 테네시 주

의 녹스빌에 있는 콕스버리 연합감리교회이다. 이 교회는 미국 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교회이며 목요일 저녁 집회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한다.

스미스가 말했다. “나는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도록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서로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웃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회복 목회

스미스의 목회 그룹은 미국 전 지역에 약 2퍼센트의 교회 — 그것도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회복 그룹을 돕는 — 를 이루고 있다. 회복 목회는 더 이상 이류의, 지하 창고에 숨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클라이드 나라모어나 라파 메이어와 미너스 메이어 같은 전문의, 「상한 감정의 치유」의 저자인 데이비드 시멘즈 같은 목사들, 캘리포니아 주 레이크 포레스트의 새들백 교회 같이 눈에 띄는 교회들에 의해 이 회복 목회는 꾸준히 공인되고 있다. 2004년 이래로 성경 출판업자들은 「회복역 성경」을 선전해 왔는데, 이 성경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지 회복과 관련해 쓰임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말씀과 증언들을 강조해 놓았다.

## 회복 목회를 가르치는 교회들

최근에 회복 목회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새들백 교회일 것이다. 이 교회에서는 '회복 축제' 프로그램과 여러 형태로 전환 가능한 커리큘럼을 창조해 냈고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관한 컨퍼런스까지 개최한다. 회복 축제는 '목적 이끄는 삶'의 전략을 쓰는데 비기독교인들을 먼저 인도해 와서 그들의 마음을 얻은 후 영적 성숙으로 이끌고, 사역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목적이라 함은 「목적 이끄는 삶」에 나온 그 목적을 뜻한다.

'회복 축제'는 존 베이커의 작품이다. 그는 새들백 교회의 부목사이며 알코올 중독자 재활을 담당하고 있다. 베이커는 사람들이 AA모임(Alcoholics Anonymous: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으로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 모임)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고민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예수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는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성경의 팔복(마 5:3-10)에 기반을 두는 '8가지 회복의 원칙들'을 고안해 냈다. 이 원칙들은 AA프로그램의 12단계와 합쳐지면서 '회복 축제'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회복 축제는 '상처입고, 고질적 습관을 갖고 있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치유사역이다. 회복 축제는 AA와 같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도박 중독자, 익명의 음식 중독자 등의 사람들을 특정 12그룹으로 묶기보다 모든 중독자들을 일률적으로 받아

들인다. 분노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일 중독인 사람, 부정적 생각들로 고군분투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자들이 모두 같이 모인다. 베이커는 "우리는 모두 망가졌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다. 우리는 모두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회복 축제 웹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다.<sup>3</sup>

AA 참가자들은 모임에 들어가서 "내 이름은 ○○○이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예요"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정의한다. 그러나 회복 축제에서는 참가자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제 이름은 ○○○이고 알코올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신앙인이에요"라고 말한다.

2시간에 걸친 회복 축제의 첫 45분은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이 예배와 찬양 그리고 참여자들의 간증으로 구성된다. 그 후 45분은 남자와 여자들이 나눠져서 소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12가지 단계와 8가지 원칙들을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각 그룹마다 리더가 한 명씩 있다. 마지막 30분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친교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새들백 교회의 회복 축제는 1991년, 43명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이 성장함에 따라서 새들백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모임의 70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85퍼센트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교회에 남기로 결정하였고 반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의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다.

###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들

어떤 교회는 오직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의 노스스타 공동체를 방문한다면, 당신은 이 교회 모든 만남이 회복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 교회는 찬양, 가르침, 아동사역, 안내원 등 진짜 교회라는 외부적 증거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공동체'라고 부르지,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스스타의 주보 뒷면에는 AA의 12단계를 어떻게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 교육은 복음 중심적이고 더 명백하게 성경을 끊임없이 매일의 인생에 적용하게 한다. 단, 이때 모든 내용들이 12단계 안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이번 주에는 4단계를 집중해서 다루려 합니다. 이번 단계에 해당하는 성경구절은 이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 당신은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찬송 선곡부터 성경 적용까지 이 집단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실행되기를 원한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어떤 문제에서든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테레사 맥빈이 말했다. 그는 아웃리치 사역에서 본에어 침례교회를 시작한 사람이다. ‘일 중독, 과소비, 두려움, 걱정, 중독, 완벽주의, 도박, 과식, 우울, 이혼, 건강하지 못한 상호의존적 관계, 거짓말, 분노, 죄책감, 남용, 불안감, 파괴적인 관계나 다른 것들’로부터 회복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교회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전도를 해왔지만 이제는 전통 교회의 기존 교인들에게 복음전도를 할 수도 있다. 맥빈은 이를 ‘상처입은 교회들’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부연했다. “우리 집단에는 신앙인, 연구자, 심지어 교회에 대해 방어적, 적대적인 사람까지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 회복 그룹에 속하게 되었고, 회복되는 중에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sup>4</sup>

### 작은 교회도 회복사역을 할 수 있다

작은 교회도 회복사역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합니다”라고 데일 라이언이 말한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치유 대상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다. 다양한 회복 그룹들이 어디서 모이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성용 화장실에 ‘여성의 쉼터’ 같은 단체의 직통 전화번호와 기독교 상담사의 전화번호가 있는 조그만 카드를 넣어 놓는다.

라이언은 작은 교회가 재활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 컨퍼런스의 예를 들어 말해 주었다. 세미나가 끝나자 한 목회자가 라이언에게 “도와주세요”라며 털어놓았다. “저는 성찬식 탁자를 3피트만 옮겨도 해임될 정도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회복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라이언은 교회 예배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는 틈이 있는지를 물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장난으로 덧붙였다. “글쎄요, 광고시간에 몇 분 정도 잠이 있기는 한데 아무도 주의해서 듣지를 않거

든요. 그때는 제가 회복 그룹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별 쓸모가 없을 거예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서 광고에 들어가는 말을 달리해 보기로 했다.

다음 주 그 목사는 광고시간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심한 상처가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를 믿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는데 따지려는 의도가 아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그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가 또 라이언에게 말했다. 6개월 후 성적 학대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상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그룹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 진실을 아무런 방어 의지 없이 털어놓은 순간 — 그는 되돌릴 수 없는 한 걸음을 띄게 된 것이다.

“아무튼, 다친 사람이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데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기대하시는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라이언은 말했다.

### 고려해야 할 점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는 다양하다. 회복 목회를 잘 하는 교회도 있고, 아예 회복 목회를 위해 세워진 교회도 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전자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후자의 경우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리라곤 본다. 복음 그 자체가 회복이며, 성경적 회복은 일반적 재활운동과는 다르다. 또한 우리는 중독에 있어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중독이 죄보다 더 큰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독자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며 심지어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회복 운동은 우리에게 도움 될 만한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 새들백 교회의 말을 빌리면, 우리 모두는 ‘상처입고, 고질적 습관이 있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 악전고투와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어떤 무형의 ‘강한 영적 힘’이 아니다.

기독교를 기초로 하는 회복 그룹이 일반 세상의 재활 그룹보다 더 효과적이란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삶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과학적 연구들도 두 그룹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일반 재활 프로그램의 통제 그룹과 턴 챌린지(Teen Challenge, 기독교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서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는 12-18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 중독 문제만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역자 주)의 비교 그룹을 비교했을 때, 결과는 명백하고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인 약물 사용에 대한 틴 첼린지와 일반 그룹의 치료 빈도

(술의 경우 하루 단위, 다른 약물의 경우 한 주 단위로 계산함.)

약물 종류	치료 빈도	
	틴 첼린지 그룹	비교 그룹
코카인	57.6	45.9
술	55.9	30.1
마리화나	49.1	37.1
각성제	15.3	4.8
환각제	15.3	5.6
아편	10.2	5.6
진정제	10.2	13.0
진통제	6.8	12.8
최음제	3.4	10.5
다른 약물	5.1	0.0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이 만성적 고통과 문제와 필요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많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 보이는 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들의 내면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포장하는 데 더 능숙할 뿐이다. 회복 재할 교회 — 우리 모두는 필요를 채워야 함으로 — 는 모든 사람을 그 목회 대상으로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

는 것에 대해 놀랐다. 영화 <블랙 호크다운>의 한 대사는 이를 잘 설명해준다. 엄격한 장군인 대니 맥나이트는 부상당해 죽어가는 병사들로 가득 차 있는 한 군용 차량을 본다. 그는 오틱 일병을 가리키며 소리 지른다. “너, 거기서 일어나서 운전해!” 그러자 오틱이 “장군님, 저는 총상을 입었습니다”라고 답한다. 맥나이트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쳤어! 운전해!”라고 말한다.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는 우리가 무너진 세계에 살고 있고 이곳은 ‘모든 사람이 다친’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오랫동안 교회는 더 깊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교회는 사람들이 단지 ‘구원을 받으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믿어 왔다. 역설적인 것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개인적 위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고 또 도움을 요청할 때 교회는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댄 모건은 새들백 교회에서 초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다. 모건은 초신자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적인 안정감, 관계에서의 안정감, 기능적 안정감이 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영적 훈련과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그러나 정작 술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사고로 가족을 잃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초신자를 돌볼 교회는 극소수인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변화에 내몰린 새신자

들을 감당하기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경제적 파산이란 위기를 만난 여인은 이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파산상태이다. 많은 교회가 회복 목회에서 답을 발견했다.

#### 죄는 복합적인 문제다

회복 목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서 전부가 죄는 아니지만 몇몇은 죄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죄악은 다른 죄보다 더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성경은 종종 이것을 '뿌리박힌 죄'라고 부른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따라붙는 특정 죄를 극복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친구의 도움도 받고 시간과 헌신도 투자해야 한다. 회복 재활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깨우쳤고 이를 삶에 적용시켰다.

####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괴롭다

당신이 중독 문제에 한번쯤 빠져서 고통을 겪어 보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처한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는 왜 그 문제를 뛰어넘질 못하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뛰어넘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꾸준히 노력해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의 힘으로 같이 일해 나가는 것 자체도 인생 변화의 일부이다.

###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

회복 목회와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역사적으로 회복 사역은 일반 교회들과 별 관계 없이 이루어졌다. 이는 교회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모든 사람이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회심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재활 등 회복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과거에는 거듭남으로 초신자들이 알코올 중독과 분노문제나 다른 중독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몇몇은 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성도들이 정말 거듭난다고 해서 회복 프로그램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 회복 목회가 죄를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묻는 건 좀 엉뚱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죄를 '질병'이라고 한다면 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건 좀 힘든 질문이다. 과학적 연구들은 알코올 의존과 유전자에 일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함은 죄라고 말한다. 이 두 관점은 모두 맞을까?

신학은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고, 각기 사람마다 특정 유형의 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향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좋은 교회나 목회는 우리가 특정 죄에 대해 성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십자가는 모든 죄를, 심지어 그것이 중독이라도 덮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죄에 대해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몇몇 회복 목회는 오히려 병을 키운다

여러 경우에, 회복 중인 사람들이 문젯거리를 정말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데에 회복 목회를 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사람들이 질병과 죄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복 모임을 다른 중독에 걸린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관점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금방 다시 '아프게' 된다. 가장 좋은 회복 목회는 서로에게 연대 책임을 지워서 건강과 영적 상태 모두가 나아지는 것이다.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는 스스로를 일반 교회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죄와 상처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회복 목회에 무게를 두는 교회라면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정한 직장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교회 주차장을 담배꽂초로 덮어버릴 정도의 골초들, 알코올 중독자 등의 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열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필요를 갖고 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 과거나 중독 문제가 없는 사람도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들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해야 한다.

## 영성과 재할 합치기

회복 그룹의 기원은 AA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흥미롭게도 이 AA모임은 기독교인 변화 운동인 옥스퍼드 그룹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옥스퍼드 그룹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많은 원칙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기반으로 세워졌다. 그들이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을 하기 바란다.





##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 Chapter 3

## 멀티사이트 교회

### Multi-site Churches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산타아나)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거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교회가 이 질문에 ‘양쪽 다’의 전략으로 대답한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자.”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도록 하자.” 이것이 멀티사이트 교회의 매력이다.

내(워렌)가 처음으로 멀티사이트 교회를 접한 것은 1992년이다. 그때 나는 출장 차 캘리포니아에 갔고 주말에 평소 가보고 싶었던 갈보리 교회를 방문했다. 산타아나에 있는 갈보리 교회는 예수운동의 첫 근원지로 유명하며 척 스미스가 담임목사로 있었다. 나는 예배 시작 전 아침 9시 30분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

었다.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 모여 있고 몇몇 사람들은 전면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몇몇은 교회 바깥에 설치된 스피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바깥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어진 부속 건물로 모여드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한쪽 벽면에 예배 실황과 설교자가 실물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다. '밖에서 의자 끄트머리에 간신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네'라는 생각에 바로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자리를 잡고 방을 둘러보니 공간의 반 정도는 의자로 채워져 있었고, 나머지 반은 유모차를 위한 공간이었다. 젊은 엄마들은 스크린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이가 탄 유모차를 이리저리 밀어주었다. 또 어떤 엄마들은 방 뒤에 있는 커피 코트에서 제공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그때 강한 인상을 받아서 아직도 그 상황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갈보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필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다른 교회도 갈보리 교회와 비슷하게 특성화된 예배 장소를 들먹거리며 관심을 끌려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엄마, 아빠들, 아기들을 교회 데리고 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울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서 떨어져 있고, 접근하기에도 쉽고,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 마음껏 아이를 돌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

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든 이유는 교회가 꼭 틈새 시장 — 교회에 가있는 동안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기보다는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부모 그룹 — 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라도 설교, 연극, 간증, 가수의 찬양 장면 등을 얼마든지 방송으로 중계하거나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갈보리 교회 방문 이후 나는 지역 공동체 중심에 있는 쇼핑몰 안에 세워진 교회의 예부터 약물재활센터 안에 세워진 교회까지 — 재활 중인 사람들은 센터에서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아예 교회를 그들에게 제공하자란 발상에서 나온 교회 — 다양한 교회 예를 듣게 되었다.

이러한 온-캠퍼스(각 지부를 뜻함 -역자 주) 접근법은 다른 곳이나 오프-캠퍼스 방식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요즘에 들어와서 '비디오 베뉴'(video venue, 비디오 방송 중계 등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역자 주)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비디오 베뉴의 대부분은 온-사이트 예배와 이것과 동반하는 온-사이트 담당목사, 그리고 비디오 중계(녹화된 생중계든)를 통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회를 한 장소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확장시키는 하나의, 그러나 유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다.

신학생 시절, 내가 다니던 교회는 멀티사이트 교회였다. 그러나 멀티사이트란 이름으로 정의되기까지는 1~2년이 걸렸고, 이 교회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위험도가 낮은 모델'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저소득층 주택 공급 계획지구로부터 1마일 안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많은 교인들은 저소득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일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센터에서 근처 신학교의 목사 지망생, 전도사와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과 간증과 말씀 선포로 이루어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위험도 낮은’이란 말은 저비용, 간소화된 행정절차, 후원 교회의 저출혈로도 효과를 창출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렇게 얻어지는 고수익을 지역 주민들의 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던 팀원들의 인생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또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요즘 멀티사이트 교회의 ‘파트너십 모델’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접하기도 했다. 이것은 교회와 지역 공동체가 파트너를 이루어, 단순히 행사나 프로그램을 위해 장소를 빌리는 차원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목적에 공헌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내가 이것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은 한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교회에서였다. 그 대학교는 일반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교회에 학교 강당을 빌려 주었다. 학교는 신앙적 뿌리를 갖고 있었고 학생과 교수진들은 지적인 성장 못지않게 학생들의 영적인, 전인격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교회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다. 학교에 교회가 있음으로 학교는 혜택을 받았고 교회는 학교에 있음으로 이득이 되었다.

멀티사이트 교회의 다른 예로는 요즘 알려진 ‘교육 팀’ 멀티사이트 교회를 들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가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어윈 맥마너스 목사가 많은 예술인이 모이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어윈의 형제인 알렉스 맥마너스(Alex McManus)가 목사로 섬기고 있는 또 다른 모자이크 교회를 방문했다. 이 교회는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교인들 중에는 대학생 비중이 높았다. 같은 모자이크 교회이지만 장소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가르침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었다. 둘 다 모자이크 교회였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각각 특성화 되어 있었다.

다른 예는 시카고에 있는 월로우 크릭 지부 교회이다. 아내와 나는 예배를 마친 후 이 교회 고정 멤버인 부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지부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집에서 교회까지 이동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편의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었다. 한 부부는 “지부 교회를 통해 예배 장소와 정말 가까워져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 많은 모델들, 그러나 공통의 목적

한 교회가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발상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감리교 순회 목회의 선구자 존 웨슬리는 1700년대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며 1800년대에 그의 추종자들은 그 비슷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감리교가 다른 교파보다 더 빨리 퍼지는데 공헌했다. 감리교도들은 지역교회 기능을 하도록 여러 교육을 받았고

이는 여러 지역을 섬기는 순회 목회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

1900년대 중반, 잭 하일스는 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지역을 감당했고 이것은 매주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인디애나 하몬드 제일침례교회로 이끈 이동식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10대 교회에 랭킹되어 있는 애틀랜타의 목사인 폴 워커에 의하여 자동차라는 수단이 도입되었다. 그는 파란 산 하나님의 교회(Mt. Paran Church of God)에서 한 지부의 설교를 마치고는 몇 마일 떨어져 있는 다른 지부로 설교하러 자동차 경주를 하다시피 달렸다.

현재에는 많은 목사들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사역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디지털 기술이다. 이렇게 한 교회가 여러 지역을 담당하는 사역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교회를 파송하는 것과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곳의 사역 장소를 만드는 것, 그리고 2~3개 이상의 지부로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포함된다.

오늘날 대도시, 교외 지역, 시골 등에서 멀티사이트 교회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주류 교회들과 초교파 교회로 대표된다. 1,000개가 넘는 멀티사이트 교회의 목록을 작성한 리더십 네트워크는 현재 이런 교회들이 49개 주에 걸쳐 있으며 뉴햄프셔 주에도 바로 생길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다.<sup>2</sup>

이러한 멀티사이트 방식은 상황에 따라 '위성 지부', '지부 연장 장소', '비디오 카페', '비디오 베뉴'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교인들은 많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을지라도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그 교회의 공통된 중심 가치, 공통의 사명, 행정과 예산을 공유

하게 된다. 이러한 멀티사이트 교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력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인데 리더십 네트워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가 멀티사이트로 변화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 지역의 확장이다.<sup>3</sup> 리더십 네트워크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 69퍼센트의 멀티사이트 교회는 다 지역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서 더욱 복음 전파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고 보고한다.<sup>4</sup> 릭 워렌은 '미니스트리 톨박스(뉴스레터)'의 한 글에서 "강력한 구동력 없이 두 번째 장소를 시작하는 것은 임신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평한다.<sup>5</sup>

멀티사이트 접근에 대한 관심과 여러 시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목회 연구자인 톰 레이너는 2003년 미국의 교회들을 무작위로 샘플링한 후 그들이 멀티사이트 모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혹은 움직일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1/20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2년 후에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1/3이 그렇다고 대답했다.<sup>6</sup>

실제 이 현상은 상당한 관심을 얻고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서全美 멀티사이트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매진되는 상황이다. 2004년에는 이 컨퍼런스에 200명이 등록했는데 2005년에는 500명, 2006년에는 700명으로 늘어났다.<sup>7</sup> 이러한 교파와 지리적 위치를 초월하는 큰 관심의 결과로 한 멀티사이트 교회 목사는 이를 '멀티사이트 변혁'이라고 부르고 「멀티사이트 교회」라는 책을 썼다.<sup>8</sup>

멀티사이트 운동을 중요하게 다룬 첫 번째 책으로는 빌 이어섬과 데이브 트레이비스의 공저 「교회의 담을 넘어: 혁신적인 교회의 사역 Beyond the Box: Innovative Churches that Work」이다. 이들은 멀티사

이트 접근 방법은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간혀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 책에서 이들은 “담 안에서 교회 리더들은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담을 넘어설 때 그들은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한 장소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속받지 않는 교회를 발전시킵니다. ... 이러한 교회에서 더 이상 공간이 제약이 될 수 없으며 물리적 공간보다도 사명이 그들의 계획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렇듯 다지역 접근법은 교회에 있어서 지리적인 지역 개념이 더 이상 주요인이 되지 않는 현대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멀티사이트 교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교회들

위에 나온 5가지 모델에 관한 내용은 ‘멀티사이트 교회’에서 더 발전시켜 다루었는데 이 교회들은 예배 시간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또 그 지역과 다른 지역에 교회를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에서 어떻게 두 번 드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꽤 좋은 조언이 엘머 타운즈의 책 「두 번 예배에 참석하는 방법 *How to Go to Two Services*」에 나와 있다.<sup>10</sup> 비슷하게 찰스 안의 「새로운 예배 어떻게 시작 할 것인가? *How to Start a New Service*」의 책에도 나오듯이 많은 교회는 대안적 방식을 도입하거나 예배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가령 토요일 저녁 또는 주일 저녁).<sup>11</sup> 이 책들보다 더 최근에 쓰인 「멀티사이트 교회 혁명 *The Multi-site Churches Revolution*」에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가 어떻게 더 멀리 확장되고 있는지, 지부를 복제하는 운동의 전체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사례가 미국 안에 수만 개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교회는 선한 성품의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영적 생명력의 흐름을 이끌 어떠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워렌)는 살아남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 루크 두덴호퍼를 방문했다. 시카고의 니어 사우스 사이드의 노동자 계층이 주로 사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젊은 부부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우리는 그들의 안내로 성전을 둘러보았는데 100년이 넘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그 안에 놓여진 22개의 수공예 장의자에 감탄했다. 두덴호퍼는 이 아름다운 장의자가 몇 년간 거의 비어 있다는 사실에 통탄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두덴호퍼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비전을 갖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교회의 몇몇 사람들과 공유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솔직히 저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건물 안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시카고 지역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기도 응답으로, 그는 무디성경학교 출신의 마크 줍

(Mark Jobe)을 만나게 되었고 이 비전을 나누게 되었다. 마크 줍이 처음 소규모로 시작했던 도시 선교 교회(urban mission church)는 이후 새생명 커뮤니티 교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교회는 시카고 다운타운 전역의 여러 개 위성지부로 뿔어나가게 되었다.<sup>12</sup> 두덴호퍼의 교회가 이 새생명 커뮤니티 교회의 브리지포트 지부로 알려지면서 여러 유익을 얻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새생명 교회는 루크의 교회에게 좋은 연결망을 제공해 주었다. 새생명 교회 소속 목사들은 루크와 같은 젊은 목사들로서 그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었다. 루크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 있기 때문이죠.” 저는 새생명운동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마다 그룹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새생명 교회 팀은 함께 모여서 설교를 연구했다. 성경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설교 예화 자료를 모으고 개발했다. 루크는 “우리 팀은 같은 설교 시리즈를 갖고 각기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본문을 썼지만 각기 고유한 설교 개요나 말씀 적용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 새생명 교회는 제자 훈련 모델과 단계별 계획표를 제공해 주었다. “그들이 개발한 「퍼스트 스텝」 시리즈는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관계 중심적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었고 신자들이 더욱 제사장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다른 새생명 지부에서 열정적인 한 부부를 브리지포트 지부로 파송해 주었다. 이 부부는 교회의 큰 전환기에 예배 리더와 평신도 리더로서 교회를 잘 섬겼다. 원래 6개월만 머물기로 했는데 2년 넘게 교회를 섬겼다.

- 새생명은 브리지포트 지부에 시설 관계 비용으로 3만 5천 달러를 빌려주었다. 이 액수는 당시 브리지포트 예산의 70퍼센트에 육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도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현재, 새생명 브리지포트 지부를 들여다보면, 100년 된 건물의 22개 수제 장의자는 약 150명의 사람들로 가득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근에 사는 30대 가정들이다. 또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월요일마다 ‘생명의 빵’ 운동을 통해서 15~30명의 사람들을 먹고 있다.

이 교회는 새생명 교회의 지부로 전환할 때 교회 안에서 자체 투표를 거쳐야 했고 그리스도 연합 교회로부터 허가도 받아야 했다. 2002년에 두 과정 모두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교회가 새생명으로 병합되

는 건에 대한 토론은 상당히 치열했지만 사람들은 변화 없이는 교회가 고사할 것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 1942년부터 그 교회 신자였던 디는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교회 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쯤 기존 성도들이 전화로 그녀에게 앞으로 있을 합병에 대해 언질을 주었을 때 그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교회는 다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두덴호퍼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교회 이름이었다고 한다. “교회의 예전 이름은 도레머스 교회였습니다. 이 이름을 바꿀 때 사람들은 도레머스 스쿠터란 이름과 관련된 추억을 잃을까봐 두려워 힘들어 했지요. 도레머스 스쿠터는 교회의 두 번째 담임목사이자 그 교회에서 첫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결단력 있게 합병을 결정하고 일을 진행시켰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 사람들은 교회가 추억을 잃지 않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느꼈다. 두덴호퍼는 이 합병을 두고 평가하기를 “합병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이룰 만큼 충분히 성장했고 동시에 서로를 돌볼 만큼 작은 상태도 충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네트워크에 소속되는 좋은 점이죠”라고 말했다.

새생명 교회는 현재 해묵은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며 써름하면서 점차 사라져 갈 교회들이 새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

## 멀티사이트 교회가 될 때 생기는 장점

「멀티사이트 교회 개혁」은 멀티사이트 교회가 될 때 따라오는 혜택을 13가지로 정리한다.

1.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2. 교인들이 많이 몰리는 예배에도 참석 가능한 인원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다
3. 구획 정리 지구처럼 교회 시설 확장이 어려운 곳에서도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4. 새로운 장소나 지부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은사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펼칠 수 있다.
5. 사람들에게 확장된 사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6.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예배 스타일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선택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7. 장거리 이동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다시 전도할 수 있다.
8. 교회의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변혁의 바람을 촉진한다.
9. 교회의 자금과 재원 사용에 있어서 청지기 정신을 강화한다.
10. 교회는 압 병동이나 공공 건물 등의 틈새에도 확장될 수 있다.
11.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도 그 사명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12.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모델을 제시한다.
13. 떠오르는 리더들과 미래의 스태프를 양육하는 데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sup>13</sup>

### 교회 개척을 위한 제안

교회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멀티사이트 접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멀티사이트 교회에서 지부를 확장하는 것과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공통의 비전, 재정, 지도자와 운영위원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이 멀티사이트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양쪽 다’의 접근방법을 쓴다. 현재 있는 교회의 지부를 확장하면서 많은 장점을 누리게 되는데 이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공동 책임
- 자원과 자료의 공유
- 훈련된 사역자들의 병합
- 비전과 중심 가치의 공유
- 더 큰 기도 후원
-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리 세워진 네트워크 사용
- 시스템을 재창조하지 않아도 됨
-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지부 사람들과의 연결<sup>14</sup>

그리고 모 교회나 후원해 주는 교파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부 교회가 자치 교회로 복제할 수 있는 스피노프(spin-off: 회사를 분할해서 자회사를 만드는 것 -역자 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멀티사이트 교회는 상당히 효과적인 (새)교회 개척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의 경우(특히히 에드) 멀티사이트 교회 확장이 자칫 새로운 교회 개척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하지만 아직 그렇게 되리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최근 대부분의 교회 개척 컨퍼런스에서는 멀티사이트 접근 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 복제 교회의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복제’를 우려한다. 최근에 한 기독교 풍자 사이트에서는 한 가상의 교회(에버그린 공동체 교회라고 하자)를 설정하고 멀티사이트 접근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버그린은 2001년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에버그린의 복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이들은 문고리부터 안내원이 입고 있는 재킷과 설교에 이르기까지 똑같다. 심지어 강대상과 주일학교 방까지도 똑같은데 이를 두고 에버그린의 브랜드 매니저 스테판 보치는 “우리는 버거킹이나 서브웨이 샌드위치 체인점처럼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sup>15</sup>

일부 목사들은 이 멀티사이트 교회 개념이 미국 전역에 지역 공동체의 특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복제품을 배출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



다. 우리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하지만 이것이 꼭 문제가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반면 어떤 목사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멀티사이트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지부답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몇 명의 리더들이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안디옥으로 갔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행 15:2).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교회 교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졌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들은 우선 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정의 내려야 했고, 각 지부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필요했다.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20마일이나 떨어진 교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부 교회의 그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그래서 큰 교구와 작은 지부의 역할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종종 새 지부에는 본부 처럼 행정 절차에 익숙한 사람들이 없으므로 경험이 많은 노련하고 재능있는 스태프들을 지부로 파견한다.

### 교회 재생산의 필요성

사도행전 15장은 교회들이 재생산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재생산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려준다. 씨코스트 교회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의 성장하는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이다. 씨코스트가 예배 시설 확장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샬레스턴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했다. 이때부터 교회는 다른 지역에 지부를 세우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현재 씨코스트는 10개의 지부를 갖고 있다. 5개는 샬레스턴 지역에 있고, 나머지 5개는 다른 도시에 있다. 대부분의 지부는 극장을 예배당으로 사용한다. 매주 예배 참석 인원은 7,000명에 이르며 이 숫자의 2/3는 롱 포인트 로드 지역에 있는 본부 교회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새 지부를 세울 때, 씨코스트는 ‘어떻게 그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다른 지부, 다른 장소로 잘 이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씨코스트 고유의 예배 의식, 찬양 스타일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들의 답은 ‘솔직히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다’ 였다. 오히려 씨코스트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생명을 주는 실제적 메시지, 예배 중 느껴지는 하나님의 능력, 편안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분위기, 뛰어난 주일학교 사역, 관계 중심적 소모임 등이다. 그리고 씨코스트는 지부에서 공통의 이름을 사용하고 — 씨코스트 콜롬비아, 씨코스트 그린빌, 씨코스트 사바나 등 — 공통의 로고를 만들어서 이러한 씨코스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을 만들었다.

또한 씨코스트는 여러 지부에 DVD나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을 보내서 교육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는 비디오나 방송 중계를 통해 같은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여 본부와 지부 사이에 핵심 가치와 비전이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설교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강화할 때 한층 더 그러하다. 방송 중계를 사용하지 않고 지부 교사를 자체적으로 세우는 교회의 경우에 '여러 지부에 있는 하나의 교회'란 느낌을 살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에 있어서 씨코스트는 공유하는 자료를 쓰게 하거나 비슷한 설교를 사용하도록 했다(위에서 예를 든 뉴 라이프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다).

모든 멀티사이트 교회의 경우 방송 중계 설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결국 성공 여부는 그들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무엇이나에 따라 결정된다. 지부 교회가 모 교회와 유사하든 다르든, 여러 방법과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 목록이 비록 소수의 몇으로 축소될지라도 '여러 지부에 있는 하나의 교회'란 느낌은 계속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멀티사이트 교회에서 사역하는 각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멀티사이트 교회의 각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성공 사례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멀티사이트 교회」라는 책에서 위치와 역할 구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지부 총괄 책임자: 이 사람은 멀티사이트 교회의 키를 잡고 조종

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모 교회가 처음으로 혹은 두 번째로 지부 교회를 시작할 때 담임목사나 교회 원로들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 지부가 늘어날수록 이 역할이 중요하다.

2. 지부 담임목사: 어떤 교회를 시작하더라도 열쇠는 지부 담임목사 일 것이다. 일단 지부 교회가 시작되면 모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또한 지부 목사는 교회의 핵심 그룹을 구성하고 새로운 리더들을 양육하고 목회를 수행하게 된다. 만약 방송 중계 설교를 사용하면 본인이 직접 설교하지 않더라도 지부 담임목사의 중요도는 여전히 핵심적이다. 지부 목사가 성공적으로 목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아래와 같다.

- 교회의 비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존 리더십에 충성하는 사람
- 관계적 능력이 강한 팀 플레이어
- 다른 사람들 안에서 비전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팀을 세우는 능력을 가진 사람
- 그룹과 개인을 돌보려는 목자로서의 심장과 강한 열망을 가진 목사다운 목사
- 유연한 생각을 가진 기업가적 면모를 가진 사람

3. 예배 책임자: 예배 책임자는 지부 목사와 함께 새 지부의 예배를

관리하게 된다. 이 사람은 모 교회 예배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고유한 예배 경험을 창조하는 책임이 있다.

4. 어린이, 청소년 사역 책임자: 매 주일 대예배 외에 종종 어린이 사역의 질이 새 지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이 된다. 어린이 사역 책임자의 역할은 예배 책임자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들은 본부의 어린이 사역 환경을 지부에서 최대한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소그룹, 영성 훈련, 제자 교육 책임자: 이들은 종종 처음에는 봉사자로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영적 성숙 프로그램과 새 지부의 목회를 발전시키는 데 책임을 지게 된다.<sup>16</sup>

### 어떤 점이 새로운 것인가?

요즘의 멀티사이트 모델은 기존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려는 일련의 시도들(설교, 미션 본부, 라디오 목회, 텔레비전 목회, 그리고 각종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과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네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1. 관계 VS. 구원: 대부분의 멀티사이트 교회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따라서 단지 복음을 선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관계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멀티사이트 교회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2. 더 큰 사역으로의 디딤돌 VS. 제한된 서비스 미션: 멀티사이트 접근은 더 큰 지역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데 디딤돌이 된다. 예를 들어 예배의 텔레비전 중계 자체는 지역 예배 공동체의 탄생에는 별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단지 설교를 텔레비전 중계해주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만약 교회가 그 지역 교도소를 지부로 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수감자들의 경우 감옥에서 나온 후 교회에 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멀티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교회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지역 소방서에서 지부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소방관들이 주일날 하루를 쉬게 될 경우 아무래도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고 지내던 그 교회 지부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확률이 높다.

3. 개인 맞춤 VS. 쿠키 커터(cookie cutter: 쿠키 모양이 같듯이 생각이나 취향이 유사한 것 -역자 주): 대부분 멀티사이트 교회의 경우 한 명의 지부 목사를 두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지부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대표하게 된다. 이때 목회는 그 지역의 지원자 그룹에 의해 유지되면서 교회 예배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 배경에 맞도록 형성된다. 지역에 맞는 목회가 되는 것이다.

4. 평신도 권한 부여 VS. 목회자 의존 : 멀티사이트 지부로서 틈새를 공략하는 교회들은 더 많은 지원자들을 사역에 배치함으로써 단지 새로운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목회의 내적 역량을 넓혀 가기도 한다. 멀티사이트 교회에서는 해야 할 사역 리스트만 살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역에 참여시켜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한다.<sup>17</sup>

###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교회가 멀티사이트 교회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무래도 재정 문제일 것이다. 예수님도 이 점을 다루셨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 14:28).

〈Pastors.com〉 사이트의 글에 의하면, 멀티사이트 교회는 다양한 재정의 자원을 가진다고 한다.<sup>18</sup> 그리고 각각의 목록을 보여주고는 이러한 여러 재정 원천의 전체적인 시너지가 진짜 재원이라고 말한다. 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부 운영에 드는 비용이 대부분 본부 운영비보다 덜 들기 때문이다.

#### 특별 현금

라이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클라호마 시티에 다섯 번째 지부를 세우라는 부르심을 느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처음 아이디어

는 전통적인 펀드 레이징(fund raising: 기금 조성, 자금 마련 -역자 주)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자 등을 새 지부에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새 계획에 대한 사람들의 비전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는 이 비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 최소한의 홍보만 하고 이 비전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다음 주에 사람들은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 가장 많은 현금을 그들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새 지부를 위해 내놓았다. 라이프 교회는 2005년 봄에 남쪽 지부를 열 수 있었고 지금은 출석 교인이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 지부에서 초기 투자비용 감당

크라이스트 더 킹 교회는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다. 이 교회의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는 교회 고유의 ‘미리 당겨서 내기(선불)’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것은 처음부터 각각의 새 지부가 그들 예산의 10퍼센트를 선불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지부 교회가 스스로 감당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재정 자립

종종 어떤 지부 교회는 첫날부터 자금자족이 가능하다. 특별히 위험도가 낮은 교회의 모델이 이에 해당된다. 브라우닝 목사는 한 지부

가 이런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2003년 우리 사미시 아일랜드 지부가 문을 열었을 때 대부분의 경비를 자원자들이 충당했습니다. 지부 자원자들은 자비로 공동체 센터를 빌렸고 스스로 음향 비디오 장비를 구입했으며 첫 예배 광고까지 그들이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정부 보조금 지원받기

루이지애나 주 바톤루즈의 힐링 교회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교회 연합(이 교회를 탄생시켜준 단체)과 함께 활발히 활동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정부 지원금 6백만 불 이상을 확보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디노 리조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에이즈 걸린 고아든,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도날드손빌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 다른 방법들

몇몇 교회는 지부 교회의 재정을 본 교회 재정으로 운영한다. 어떤 교회는 지부를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로 취급하여 새 예산으로 운영한다. 또 어떤 교회는 새로운 지역에 다가가기 위한 아웃리치 선교자금의 일부로서 운영하기도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부부터는 아무래도 같은 회계원, 같은 비디오 작가, 같은 소그룹 목사를 공유하게 되며 운영비도 한 행정 사

무실에서 여러 지부의 비용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런 운용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하나는 ‘하나의 보험과 하나의 월급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씨코스트 같은 몇몇 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형식처럼 각각의 지부가 독립된 단체로 여겨진다. 하나의 총괄 예산이 있고 하나의 은행 계좌가 있지만 각 지부는 예산을 따로 운영하고 그들의 수입 중 일부는 중앙 예산으로 보내져 운영 비용과 새로운 지부 설립에 자금을 조달하게 한다.

#### 어디로 뻗어나갈 것인가

씨코스트 교회는 교회들이 새 지부를 어떻게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자들과 스태프를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멀티사이트 교회」에서 씨코스트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교회들이 다음 지부를 어디에 세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 1. 지역 사람들이 이미 씨코스트에 나오고 있지 않은가?

첫 번째 단계는 씨코스트 교인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그 후에는 지금 있는 씨코스트 지부에서 10분 이상 떨어진 지역 중 씨코스트 교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 공동체를 알아보는 것이다.

##### 2.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일까?

씨코스트는 성장하고 있는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교회들과 경

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없는 지역 중에서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알고자 했다.

### 3. 새 지부는 성장하는 지역 안에 자리 잡았는가?

씨코스트는 성장하는 지역에 새 지부를 여는 것을 선호했다.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지역이어야 다른 교회의 성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새 지부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공급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지부를 세울 지역을 선정한 후에는 정확하게 어떤 지부에 세울 것인지를 정하고 후보를 좁혀 나갔습니다.” 씨코스트의 담임목사인 제프 서랫이 말했다. “성공적인 지부를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적절한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장소이고요. 장소가 적당하지 않으면 새 지부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지역, 주택 개발 지구 안에 있는 눈에 잘 띄는 좋은 장소를 봐 두었습니다.”

씨코스트가 이상적으로 보는 지부의 크기는 최소한 300명의 어른들과 6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어야 하며, 장소를 4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어야 하며, 200대의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어야 한다. 왜 이런 크기일까. 서랫은 “양적으로 어떤 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새 지부를 위한 리더들과 좋은 장소를 찾은 후에는 좋은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서랫은 “학교가 막 시작한 시점, 한 해가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부활절 기간이 새 지부를 시작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라고 말했다.

### 시작 전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씨코스트는 넓은 찰스턴 지역에 5개의 지부가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 주에도 5개의 지부가 있다. 지부 교회가 모 교회로부터 1시간 거리 안에 있으면 경험상 이것은 추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 새 지부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모 교회의 사람들이 새 지부에 있기 때문이다. 서랫은 종종 “우리 일은 지부의 일원이 될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지부 팀 구성의 첫 번째 단계는 지부 위치가 가깝든지 멀리 있든지 간에 먼저 지부 담당목사를 찾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지부 목사는 모 교회의 리더가 맡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부 담당목사가 정해지면, 목사는 가족들, 친구, 다른 지인들 중 일부를 모아서 핵심 팀을 구성해야 한다.

지부 담당목사를 정한 몇 주 내에, 본부 교회에서는 보고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의 목적은 비전을 공유하며 새 지부 일원이 될 사람을 초청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부 담당목사와 함께 일하게 될 핵심 팀 멤버가 확정되면 이상적이다. 그 후 새 지부 핵심 팀은 새 지

부 설립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중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만난다.

새 지부를 열기 한 달쯤 전에 씨코스트는 비전 세미나를 연다. 씨코스트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이거나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그들은 행사에서 새 지부의 주일 예배의 맛을 보게 되고 새 지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 이 비전 세미나는 새 교회를 열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사역 팀에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본부 교회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 지부를 시작하는 것은 새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새 예배를 추가로 여는 것과 비슷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부 담당목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씨코스트에서는 모든 지부 목사가 새 공동체로 파송되기 전 본부 교회에서 최소 3개월의 멘토링 과정을 받게 한다. 이 훈련과정은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씨코스트의 중요 가치와 비전에 폭 빠지게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새 지부 핵심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소모임 등을 만드는 것이다. 이 그룹은 매주 주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하며, 비전을 세우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전도를 하게 된다. 이 핵심 그룹이 20~30명의 성인이 참석하는 크기로 자라난 후에는 '워십 카페'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이 매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중간 크기의 예배당이 마련되어야 한다. 카페 모임 이후에 두세 개의 소모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주 전체 모임에서는 소모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와 교육, 아동 목회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핵심 그룹이 60~80명의 헌신된 성인의 규모로 자라면 이제 지부 설립 착수 단계가 된 것이다. 보통 지부를 여는 날 250~350명이 오는 것을 이상적으로 본다. 씨코스트는 이 핵심 그룹이 성장하여 결국 지부로 이어지는 데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 기술 활용의 측면

이 장을 쓰면서 나(워렌)는 한 교회의 첫 지부 창립 예배에 참석했다. 쇼핑몰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 입구에서 나와 아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5관(성인 예배)과 4관(어린이 예배)에 분명한 표지판이 걸려 있었고 우리는 그곳을 둘러보고 공짜 도넛과 오렌지 주스가 있는 테이블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안내위원들이 자리를 안내해 주었고 이런 저런 얘기를 걸어왔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작 직전까지 상영되는 비디오 영상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예배는 정시에 라이브 밴드와 함께 시작되었다. 청중은 우리를 포함해서 18명밖에 안 되었지만 인도자는 자리를 다 채울 만한 열정을 갖고 예배를 인도했다. 예배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11시 30분에는 75명 정도가 되었고, 20~30명의 핵심 그룹의 사람들과 4관의 어린이들이 합류했다(4관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다).

11시 30분경 지부 담당목사가 우리를 환영하고, 자기 소개를 한 후 오늘 설교 본문을 소개했다. 설교는 영화처럼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재생이 되었다. 설교는 본부 교회 담임목사에 의해서 한 주 전 녹화된 것이었다. 비디오와 사운드가 약 30초 정도 안 맞기는 했어도 앞으로 그 정도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고, 나와 아내는 설교를 받아 적기도 하며, 가끔 있는 농담에 웃기도 하며, 목사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반응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비디오 중계를 하는 다른 멀티사이트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이와 비슷하게 참여했다. 물론 이것은 비디오 중계가 잘 이루어질 경우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심지어 이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일 회의론자들까지도 비디오 중계 형식에 대해 예상되었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제프 서렛은 전형적인 경험을 했다. 그는 씨코스트의 목회 팀이 '멀티사이트 교회'를 말하며 처음으로 비디오 중계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 '들어본 것 중 가장 바보 같은 소리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서렛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들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회의 비디오 중계 설교를 경험하라고 저를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계신 노스포인트로 현장 학습을 보내셨습니다. 애틀랜타로 가는 길에 저는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도 저는 팔짱을 낀 채 앉아서 싫어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5분까지는 계획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설교자가 통찰력 있는 말을 했고 그 말씀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

다. 저는 '앗! 잠깐만, 저 사람이 방금 뭐라고 했지'라고 자문했고 그 후 얼마 안 되어 더 이상 이것이 비디오 설교란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비디오 중계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메시지가 와 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비디오는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껏 씨코스트 비디오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도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비디오 형식을 좋아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에 우리는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설교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sup>20</sup>

신문이나 잡지에서 위성 교회를 가진 교회들을 다룰 때 보통 초대형 교회들이 너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들 교회 중 1/4 이상은 멀티사이트 접근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대부분 대형 교회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점보트론(Jumbotron: 뉴욕 타임 스퀘어에 있는 초대형 광고 스크린) 등 대형 스크린이나 디지털 기기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해법인가? 이것이 멀티사이트 교회의 유일한 방법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노(no)'이다. 리더십 네트워크에 따르면 멀티사이트 교회의 1/3 정도만이 비디오 중계 설교를 하고 있으며, 다른 1/3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1/3은 두 방법을 혼합한 방식, 즉 일부 지부는 비디오 중계를 하고 다른



지부는 얼굴을 직접 보고 하는 설교 방식을 사용한다.<sup>21</sup>

### 이 방법이 당신의 교회에서 과연 잘될까?

교회를 한 지부에서 둘 이상의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잠재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 물론 이 일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뭐라고 명하시는지 중요하지만 ‘멀티사이트 교회’에서 뽑아낸 아래 질문들은 새 지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된다.

당신의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가? 당신의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당신의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영적 훈련을 받고, 사역이 자리 잡을 만큼 괜찮은 장소를 갖고 있는가? 교인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는 일을 즐겁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지부를 연다고 해서 병들어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 멀티사이트 교회여야만 한다는 강한 열정과 구체적 동기를 갖고 있는가? 대부분의 성공적인 멀티사이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부를 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몇몇 교회는 건물에 사람이 너무 많고, 예배 시간대를 최대한 여러 번으로 늘

렸기 때문에 더이상 가능한 시간대가 없고, 더 큰 시설을 짓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서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 혹은 그들이 지금까지 건널 수 없었던 문화적 틈을 넘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불신자 이웃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멀티 사이트 접근은 각 경우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채택될 뿐이지 그저 색다른 프로그램이나 전략적 시도는 아니다.

- 이 결정 뒤에 핵심 리더들이 있는가? 멀티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하고 다른 교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야 하고, 더 많은 교회 리더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 핵심 리더들이 한마음으로 멀티사이트 접근의 성공을 위해 열정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100퍼센트의 동의를 얻기 힘들더라도, 원로 리더의 대부분이 지역 접근에 동의를 안 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경고이다.<sup>22</sup>

교회가 멀티사이트 교회로서 새 지부를 열기 전에 교회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중요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러나 당신 교회에 이미 있는 달란트들  
한국인 김정훈 씨는 4살 때 미국으로 왔다. 그는 대학생 때 기독교

인이 되었고 교회에서 그의 음악적 재능을 사용하길 원했다. 그는 예술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뉴욕의 한 교회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예배 사역 팀 리더가 되었다.

그 교회는 두 번째 지부를 열게 되었는데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김 씨를 지부 담당목사로 추천했다. 따라서 김정훈 씨는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단순히 예배 사역 팀을 이끄는 대신에 예배 사역 팀을 이끌 사람들을 구성하는 일들을 해야 했다. 또한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 어린이 사역 팀, 각종 후원회와 상조회 등을 구성하는 일에도 책임을 지게 되었다.

나는 현재 32세인 김정훈 씨에게 왜 힘든 일을 받아들였는지 물었다. “저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중보그룹이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에 내가 최선두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김정훈 씨 같은 사람들을 장의자에 앉혀놓기만 하고 목회의 최선두에 세우지 않는다. 일을 맡아 달라는 제의만 받는다면 바로 헌신할 사람들이다. 많은 교회들에게 멀티사이트 접근 방법은 바로 앞에 펼쳐진 선교지에 새로운 교도보를 설립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멀티사이트 교회에서 배울 점

멀티사이트 교회는 소수의 혁신적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초대형 교회들은 꼭 멀티사이트 교회가 아니더라도 멀티사이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나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인데 문제는 이 방법이 당신의 교회에 적합하느냐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배워야 할 점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장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교회 개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접근법을 알고 있었으며 교회는 종종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멀티사이트 운동의 초기 선구자 중 하나인 래리 오스본은 나(에드)를 점심에 초대해서 ‘다지역 전략(multi-site movement)’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당시만 해도 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 교회는 다섯 지역에서 23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그들이 이러한 ‘아기’ 교회들은 자궁에서 스스로 알아서 나오도록 놔두고 그들은 교회개척자로서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으면 했다.

오스본은 이러한 다지역 전략이 그저 그의 얼굴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온통 덮고 싶어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적’,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지부를 세우고 싶어 했다. 물론 대부분 멀티사이트 교회들이 노스코스트처럼 의도적으로 다양한 지부를 설립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다양한 배경에서 목회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꽤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멀티사이트 교회는 초대형 교회 현상의 자연적 확장이다

나(에드)는 편안한 자리에서 앤디 스탠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차라리 새 교회를 세우지 그래요? 왜 굳이 미국 남동부에 당신의 얼굴을 퍼트리려 해요?” 스탠리는 두 가지로 답했다. 스탠리는 내가 노스포인트에 가끔 출석했을 때 어디에서 그를 봤는지 물었다. 나는 스크린으로 봤다고 말했는데, 이는 실제 설교자가 강단에서 있더라도 스크린으로 보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나에게 교회 개척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들의 경우 이미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러한 교회 개척을 통해서 목회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초대형 교회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동의한다면, 목사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든 혹은 다른 스태프가 당신의 담당목사가 되든 멀티사이트 접근 방법에 논박하기 힘들 것이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라디오에서 찰스 스탠리 목사와 경쟁을 해야 했다. 지금 바로 한 블록 아래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설교와 리더십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을 도전한다. 몇몇 사람들에게

는 이것이 달가운 소식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현실이고 이것에서 배워야 한다.

멀티사이트 교회는 단순해질 수 있고, 또 단순해야 작동한다

지부 교회는 대부분 교회 소유의 건물을 갖고 있지 않다. 보통 하나의 베이스캠프와 다른 임대 시설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부 예배 방식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대개 여기에서는 주일 예배와 소규모 모임, 이 두 개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지부 교회는 단순하며 사람들은 이에 반응한다.

이것은 주일 아침, 주일 밤,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 일반 교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멀티사이트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들은 이전 시대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군더더기가 없고 간단하며 사람들은 이에 반응한다. (톰 라이너와 에릭 게이저는 이 문제를 훌륭한 새 책 「단순한 교회 *Simple Church*」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었다.)<sup>23</sup>

앞으로도 멀티사이트 교회의 인기와 영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멀티사이트 접근은 세계적 설교와 훌륭한 지역적 연대를 아우르게 되고 이들의 연합은 현대 목회에 있어서 강력한 조합을 이룬다.

## 고려해야 할 점

교회에 대한 어떠한 접근 방식이든 그 패러다임과 함께 극복해야 할 점들이 있다. 멀티사이트 현상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고려할 점들이 있다.

유인 모델(attractional model)에 대해서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급격하게 탈교회화 되는 문화에서는 교회가 훌륭한 음악과 역동적인 설교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그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사람들이 종교적 추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더 좋고 편안한 교회 건물이라도 별 차이가 없다.

멀티사이트 교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진정한 기독교 문화에서 계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까? 유럽에서 멀티사이트 교회를 찾기는 힘들다. 이것은 훌륭한 설교자와 강력한 음악만으로는 진정한 포스트-기독교 문화 아래 사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매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예표한다. 우리 문화가 급격하게 포스트-기독교화 되는 이상 우리는 멀티사이트 교회는 점차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누군가는 이 사역을 언제 그만 두어야 할지 대답해야 한다

나(에드)는 최근에 50명 규모의 유명한 기독교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들은 세계 전역에 500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

는 비전을 갖고 모였는데 이는 실로 가치 있는 목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미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교회의 한 목사가 전 세계에 비디오 증계를 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과 비디오 설치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너무 정색하고 이 말을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장면이 떠올라서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했다. 무더운 케냐의 나무 아래서 한 흑인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구식 기계 속에서는 조끼까지 갖춰 입은 한 백인 목사가 열을 올리며 설교하는 장면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만 하는 각 지역마다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멀티사이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성경에는 목사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약 5:14), 하나님께 서 돌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돌보고(벧전 5:2), 떡을 떼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행 2:42) 모습들이 나온다.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목사다운 행동들이 멀티사이트 목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소실되지 않게 그 지역 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멀티사이트 교회들은 부교역자들의 성장을 저해한다

목회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30~45분 동안 의자에 앉아서 버티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

부분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 종종 멀티사이트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범접치 못하는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만을 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다른 리더십이 들어설 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무너지거나, 죽거나, 떠나게 될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비자 욕구 충족에 어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많은 멀티사이트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기존 교회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이 교회들은 더 양질의 교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들은 실제 이런 것들에 매료된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단순히 더 낫다는 이유에서 사람들을 복음과 무관한 방법으로 매료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안 될 것이다.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복음과 희생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래서 꼭 스크린이나 전국적 조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에드)는 선교학자로서 항상 어떤 교회를 보든지 그 교회의 재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어떤 교회가 재생산할 수 없다면 향후 더 확장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자연적인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몇몇 멀티사이트 교회의 경우 리더 수의 배가가 힘들다. 아예 다른 장소, 다른 교회에서 리더십의 양산은 언제고 시작할 수 있지만 멀티사이트 교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창조는 별개의 문제이다. 새로운 지부를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앤디 스탠리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며 이것이 멀티사이트 교회에서의 재

생산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지부 교회의 자치적 운영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들이 멀티사이트 목회의 반사적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담임목사는 일련의 교회들과 지부 목사들을 감독하는 가톨릭 주교 같은 역할을 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상상도 못할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며, 교회는 이러한 것에 대해 더 심각하게 성경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결론

우리는 무슨 말만 하면 비판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멀티사이트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에 흥분해 있지만 다른 혁신들처럼 이것에 대해 성경적으로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 모든 혁신을 성경적으로 분별하길 바란다.



##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 Chapter 4

## 고대-미래 교회

### Ancient-Future Churches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_사 25:1

나(엘머)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20대 청년 두 명이 복도에 서부터 나를 안내했다. 그때 어디선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기타 연주로 경건하게 울려 퍼졌다. 예배실로 들어가니 큰 홀에 여러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다. 약 60개의 의자가 큰 원 모양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고 앉았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향해 앉도록 장의자가 강대상을 향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눴고 예배가 시작되자 조용해졌다. 이 교회는 음악과 촛불이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예배실은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 차 사람들은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예배실의 네 코너에 각기 다

큰 예배 공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첫 코너에는 촛불이 켜진 탁자가 있었고, 다른 코너에는 세 개의 큰 물대야가 놓여 있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세족식을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두 코너를 둘러보려고 할 때 예배 인도자가 일어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스크린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읽게 했다. 인도자는 자신을 따라서 기도하게 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 어두운 장막 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 우리는 무지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 촛불이 이 어두운 방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때 방 중앙으로 두 명의 기타 연주자가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리드미컬하거나 시끄럽거나 열정적인 연주가 아니었다. 흔히 듣는 템포보다 느리게 연주했고 사람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부분을 부를 때 나는 문득 이 단어들을 묵상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인도자는 "기도 중 하나님을 기다립시다"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 방은 몇 분간 조용했다. 그리고 인도자는 방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게 했고, 각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대로 발을 씻길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허락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성찬식 요소들을 방의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코너에 놓인 탁자는 조그만 천

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두 개의 촛불이 밝혀져 있었으며, 가운데에 놓인 조그만 종이 접시에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조각이 있었다. 또한 종이컵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음료가 담겨 있었다.

예배 인도자는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예배자들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탁자의 반대편에 앉았다. 성찬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낭독되었고 인도자는 예배자를 향해 물었다. "당신을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감사를 표시하고 빵의 일부를 떼어갔다. 인도자가 다음 질문을 했다.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잔을 가져갔다.

나는 다음 코너에 대해서 추측해 보았다. '아마도 문제를 갖고 있거나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실일 것이다.' 예측한 대로 그 다음 공간은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소통의 장소였다. 인도자는 예배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고 주님의 부서진 몸을 상징했다. 사람들은 먼저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임하도록 고백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렸다.

벽에는 거울이 있었는데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듯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과 내면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상징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인도자는 필요한 만큼 예배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구절을 읽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냥 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다음 코너는 빛이 조금 들어오는 창문 옆에 있었다. 인도자는 탁자 뒤편에 앉아서 예배자들에게 성경구절을 읽어 주었다. 성경을 읽은 후 인도자는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 성경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등의 질문을 했다.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적 성경 공부였고, 예배자들의 생각과 삶에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 있었다.

내가 가르치던 한 학생이 다가 와서 “제가 발을 씻겨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바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를 따라서 물동이 가 있는 구석으로 갔다. 물동이 양 옆에는 의자가 있었고 우리가 자리에 앉자 학생은 나와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학생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했고, 인도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일하시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내 오른쪽 양말을 벗긴 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 그리고 비누로 발을 씻겼고, 나머지 발도 씻어 주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내 발을 깨끗이 닦아서 말려 주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 발이 씻겨진다는 것이 더 부끄럽고 이런 섬김을 받는 것이 과분하다고 느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게 나올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발을 씻어줄 때, 당신은 그와 하나 됨을 느낄 것이다. 그날 나는 다른 상황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친밀함을 그 학생에게 느꼈다. 이러한 외적 행동은 내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의도하신 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처음에 앉았던 큰 원 안의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몇 분 동안 더 기도했다.

몇몇 사람은 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은 다른 장소에서 기도했다.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인도자는 자리에 모인 사람 중 한 사람이 정신 장애를 앓는 자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자는 그를 원형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했고,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기도했다. 그리고 인도자는 이중에 이와 같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런 사람은 중앙으로 나와서 함께 서라고 했다. 10~12명의 사람들이 나왔고, 다른 예배자들이 그 사람들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거나 ‘거룩한 포옹’을 한 상태에서 기도는 계속되었다. 사역지 문제를 가진 한 여성을 위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도가 행해졌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함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언약을 확신케 되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기도가 끝난 후,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더 깊은 성찰과 묵상을 했다.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시간에 모임을 떠났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공식적 축도나 퇴장 시간이 없었다.

### 과거와 연결하기

오늘날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과거와 연결되는 예배 의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고대-미래 교회 예배는 촛불의 사용에서부터 참회의 수요일과 사순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함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는 역사적 건물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스크린으로 스테인드글라스 이미지를 쓰는 개조한 창고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스타일이든 예배를 통해 더 많은 걸 느끼고 경험하고자 종종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회 전통에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2000년 동안 축적된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화시킬지의 방법을 알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는 과거 미사나 성찬 예식에서 빌려온 것도 포함되지만 비공식적 예배 장소에서도 일부 아이디어를 얻었다.

대부분의 고대-미래 예배가 특정 신앙을 거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교회는 그동안 성경을 신성시하고, 기독교 역사와 교리에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변화된 관계를 강조해 왔다. 고대-미래 교회는 이러한 모습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배의 편협성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몇몇 고대-미래 교회들은 기존 일부 교

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CM송' 스타일의 예배 접근법 — 정작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신앙을 통해 느껴지는 좋은 감정들을 노래하는 예배 — 에 대해 경멸하기도 하며, 또한 기독교인들이 각자 '교회 사역'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생각을 거부하기도 한다.

데이브 게츠는 「크리스천 투데이」의 온라인 편집판인 <교회 리더십 넷 ChurchLeadership.Net>의 편집장이다. 그는 목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구체적인 목회 방법보다는 초자연적이고 신학적인 것에 더 목말라 한다고 말한다. “1980년대에는 교회 성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리더십이 대세였다. 그러나 몇몇 목회자들 중에는 이러한 목회 테크닉에 대해 피곤함을 느끼고 '목회나 개인 영성으로의 보다 깊은 추구'를 피력하였다.”<sup>1</sup>

셀리 모젠젤러의 책 「워십 에반젤리즘 Worship Evangelism」에서는 요즘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이 이러한 고대-미래 접근을 추동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현대 기독교가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이유는 기독교가 현대 문화에 동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sup>2</sup> 글로벌 미션 네트워크인 월드커넥스(WorldconneX)의 연구원인 캐롤 차일드레스는 요즘 고대 예배로의 회기가 몇 가지 변화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다.

- 고전적인 것에서 상황적인 것으로
- 퍼포먼스에서 참여로

- 하나님에 대한 음악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음악으로
- 지성에서 예배로
- 예배 의식에서 자유(계획된 즉흥성)로
- 목상에서 선교로<sup>3</sup>

요약하면, 최근 교회의 예배자 편의의 노력들은 교회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배제함으로써 현대 대중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람들에게 영적 뿌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 개념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초기 교회의 전통이 오늘날 영적 성장을 위한 귀하고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교회의 이러한 시도들은 기독교인과 요즘 세대 비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어필하는데 이때 비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말씀과 교회 역사에는 문외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기독교 안의 복잡하고 풍부한 상징주의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삶과 특히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일의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세컨드 침례 교회이다. 담임목사 에드 영의 아들인 벤 영 목사는 예배를 인도할 때 종종 니케아 신조를 포함시킨다. 또 보스턴 지역의 개혁 교회인 뉴잉글랜드 교회의 예배는 힘이 넘치는 타악기와 보조 확성기를 사용하지만 담임목사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온 어린아이들의 이마에 물을 뿌리면서 침(세)례의 신비에 대해 사려 깊은 설명을 잊지 않는다. 킹헨스

버그 교회는 오하이오 팀 시티의 연합감리교회인데 몇 년 전 참회의 수요일 예배로 출발했고, 유명세를 타면서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두 번씩 진행하게 되었다.

## 강한 지역색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과거의 예배와 달리 고대-미래 예배는 현대사회나 문화에 맞도록 절충적 접근을 쓴다. 계속해서 나올 예들을 보면 교회 종류나 예배형식이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역색은 대개 단순한 지역 교회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교회들은 스스로 이름을 선택하거나 개명할 경우 교파가 드러나는 이름은 가급적 지양하고 오히려 별명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 주 덴버의 '땅 벌레(Scum of the Earth)' 교회, 미시간 주 폰티악의 '다리(橋)' 교회,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의 '더 파란(Bluer)' 교회, 미시간 주 칼라마주의 '끈(threads)' 교회 아니면 단순히 '고유 명] 공동체 교회' 등이 있다. 예배와 문화와 예술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이런 교회는 예술을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내가 공동 목사로 섬기는 레이크 리지 교회는 이러한 고대-미래 교회의 한 예이다. 우리 교회 예배에는 하나님 중심의 찬양과 성가대 찬송이 섞여 있다. 이를 두고 몇몇 사람들은 혼합 예배 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혼합 예배는 보통 클래식 스타일로 찬송가 두 곡을 부르고 70년대식의 성가대곡 세 곡을 부른다. 우리 예배에서

는 더 많은 찬양을 부르는데 매우 현대적 감각을 탄다. 노래의 장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Indelible Grace(잊을 수 없는 은혜) 음악 스타일과 데이브 크라우더(Dave Crowder: 록이나 펑크적인 요소가 들어간 독특하고 실험적인 예배 음악을 하는 CCM 가수 -역자 주) 스타일로 '대중화된' 찬양을 부르길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니케아 신조를 따라 읽고, 성찬식의 빵과 잔을 나누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간다. 우리의 이러한 시도는 북조지아의 넓고 황량한 땅과 성공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이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현대적이면서도 과거에서부터 진실된 — 복음과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같은 — 것들을 찾기 때문이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여정교회의 경우, 언뜻 봐서는 그 교회가 남침례교회인 것을 알 수 없는데, 이는 이 교회가 최근 비어 있는 가톨릭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 의식성이 낮은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대성당식의 높은 천장과 고대 느낌의 유리창과 장의자는 교회와 현대 문화와의 접근을 막는다고 간주할지 모르겠지만, 이들과 달리 다린 패트릭 목사는 이러한 것들을 그 지역의 젊고, 고학력이고 유행에 민감한 집단과 교회를 연결하는 기회로 보았다. 이 교회의 고대식 건물은 새로운 음향 시스템, 평면 텔레비전, 스크린, 그리고 최신 기술로 가득 채워졌고 결과적으로는 고대의 상징으로 가득 찬 교회 건물이 최신식 공동체 건물이 되었다.

##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대-미래 교회에서 배울 점은 고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과 겹친다. 여기에서는 이미 소개된 여러 주제와 더불어서 고대-미래 교회에서 어떤 가치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복음은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될 수 있다

복음을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은 2000년간 해온 것이다. 중세 시대 교회에 설교자가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 설교자는 본문을 읽은 후에, (본문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얘기쯤으로 해두고) —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시대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고, 설교자는 극소수 중 하나였다 — 글을 모르는 청중들에게 스테인드글라스를 가리키며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그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문자 전(前)’ 시대인 중세 시대와 다르게 현대 북미지역 대부분 사람들은 글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이들은 현대를 ‘문자 후(後)-탈(脫) 문자’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본문 이상의 것을 바란다. 이러한 탈문자 시대에 이르러서 대다수 사람들은 학습할 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복음이 기본적으로 언어 — 말에 기반을 둔 믿음 체계 — 이기 때문에 현대의 이러한 경향은 좀 어려운 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시각적 이미지와 프로잭션 이미지, 그리고 보여주는 설교 등을 통하여 성경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은 상

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워렌의 경우를 들어보자. 워렌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한 설교가 있다. 사다리와 십자가의 은유를 사용한 설교이다. 설교자는 사다리에 앉아서 '사다리'의 특성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 계단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위로 올라가는 일은 항상 올라가는 사람의 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다리에서 내려와 십자가 쪽으로 걸어가서는 사다리와 십자가를 비교 설명해 주었다. 나는 믿음에 대하여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지만 에베소서 2장 9~10절의 "구원이 십자가의 공로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의 부분을, 이러한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는 사다리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 왔으며 항상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시각화란 도구를 사용하셨다.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의 귀를 넘어서질 못한다

고대-미래 교회들은 사람들이 물리적 귀가 들을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듣는다는 것을 안다. 에드는 뉴욕 교외의 가톨릭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그 교회는 향 냄새, 가톨릭의 전형적인 외관(깃발, 예복, 스테인드글라스), 벨과 음악 등의 소리, 신성한 도구와 시설 등(장의자와 무릎방석)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이후 에드는 이러한 감각적 경험을 여러

번 그리워했는데, 사람들도 이러한 모든 감각을 충족시켜줄 만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

교회 시작점은 1980년, 심지어 1780년도 아니다

어떤 교회는 1980년대의 '구도자 중심의' 교회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관을 정립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1780년대의 두 번째 대각성에 기반을 둔 교회관을 머릿속에 정립하고 있을 것이다. 고대-미래 교회는 이와는 다르게 이미 2000년 전부터 교회의 예배와 가르침과 전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대-미래 교회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찬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성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이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본다.

###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빠른 속도로 퍼진 온갖 부패에 대한 기록이 있다. 야나니아와 삽비라는 뽀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며(행 5:1-11), 교회에서 다른 인종(유대인과 이방인들)끼리 누가 이류로 취급받는가를 둘러싸고 서로 비난하기도 했고(행 6:1-7), 바울과 마가 요한은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으며(행 15:37-38),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방법을 조정해 왔다.

수세기 동안 믿음과 감정, 실행에 있어서 명백한 실수들이 교회에

발생해 왔으며, 이는 지속적 부흥과 각성, 변혁을 촉구했다.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던 여러 방법들을 보면서 고대 교회의 풍성함은 수용하면서도 그 잘못을 피하는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비기독교인 영성과의 결합은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고대 교회에서 영성을 끌어 담는 시도를 하다 보면 약간 다른 영성도 따르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경우 아테네 사람들과 접촉한 것이 그 예이다. 문화적인 접점을 만들기 위해 그는 4가지 방법을 썼다.

첫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현세관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그들의 잠재된 영적 관심을 파악했다. 셋째, 그들 세계관의 장점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다. 넷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취를 발견하도록 격려했다.<sup>4</sup> 우리는 바울의 아테네 방문을 통해서 비기독교인의 영성과 나란히 가면서도 복음의 메시지는 그대로 유지한 성경적 선례를 배우게 된다. 바울은 그가 빌려온 영적인 형태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말씀에 소홀한 믿음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둘 때 예수님과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방해물일 뿐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말씀을 설명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말씀이 항상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종이 있고, 말씀과 실제적인 방식으로 교통하는 성령님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을 사로잡고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양심의 가책을 울리며 사람들에게 반응을 촉구하게 된다.

고대-미래 교회에서 그룹 경험만큼 좋은 것은, 그리고 목상과 촛불이 밝혀진 신성한 분위기만큼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예배의 중심에 두었던 기독교인들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세족식, 성찬식, 개인적 문제 해결, 목상 등이 기독교 예배의 일부를 차지해 왔으나(최근 몇 십 년간 과소 평가된 경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복음은 특정한 향이 아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나온 대로,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복음은 예배의 신성한 향(냄새), 그림, 음악, 극, 그 이상이며 시대 문화가 전문자 시대이든, 문자 시대이든 아니면 탈문자 시대이든 그리고 사람들이 청각적 자극보다 후각적 자극

을 좋아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과거 의식은 종종 과거의 잘못으로 연결된다

교회 개혁자들이 예배에서의 상징물이나 의례적인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의미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상징물이나 교회 의식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진정한 믿음의 단순함 등에서 벗어났다. 이렇듯 고대 관습을 실행할 때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면서 어떻게 고대-미래의 형식을 빌려 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아마 신성한 특정 이미지들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지만 우리 손자손녀 대에 이르러서도 그 이미지 자체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까? 우리 손자손녀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 '그런 것들에게' 기도하게 될까?

예배 표현은 사람의 일시적 감정에 제한되면 안 된다

예배가 성경적으로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단순히 형태나 형식, 특정 악기나 예배 보조기구(목상을 돕기 위한 촛불, 성찬기, 거울 등)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복종하는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흘러나와야 한다.

복음 전파는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

많은 고대-미래 교회에서는 의도적이고 형식이 정립된 전도 활동은 아주 미약하거나 심지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만, 신약성경은 형식을 갖춘 복음 전파가 의도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한다(행 10:33, 20:28).

설교도 복음 전파의 한 가지 방법인데 많은 고대-미래 교회들은 설교의 전도적 기능을 회피하는 상태이다. 설교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이상의 것이다.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설득적 화법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타운즈와 버드의 「미래를 향하여 Into the Future」라는 책에서는 2000년 역사를 통해 쌓인 교회 유산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5가지 비법을 알려준다.

1. 현대의 예배 동기가 대부분 영적 굶주림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식하라.
2. 이러한 영적 갈증을 예배에 대한 구체적 가르침과 성령님의 역

사하심을 훈련함으로 해결하라.

3. 사람들이 방관자 위치에서 벗어나 예배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  
끌면서 정통 요소를 갖춘 예배의 틀을 짜라.
4. 설교를 준비할 때의 노력만큼 설교 이외의 예배 전 과정을 준비  
하는 데 힘을 쏟아라.
5. 성경에 부합하는지의 척도로서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원칙들'을 사용하라.<sup>5</sup>

### 고대, 미래 그리고 성경적

하나님의 교회는 어제 갑자기 생겨나지 않았다. 고대-미래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까지 수용할 수 있다. 고대-미래 교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쓰셨던 전통과 관습을 끌어왔고 오늘날 이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급격하게 탈기독교화 되는 세상에서 신앙의 상징들이 다시 한 번 새로워지고 있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마저 별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기독교 상징에 성경적 의미를 새롭게 입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기독교 상징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 고대-미래 교회들은(유다서 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성도에게 과거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붙들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과거 교회가 했던 것 같

이 믿음을 붙들면서도 상징과 이미지 등을 적절히 사용하게 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고대와 미래를 동시에 통틀어 성경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 Chapter 5

# 도시 복음화를 위한 교회

## City-Reaching Churches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렘 29:7

서밋 교회는 2006년 9월에 설립 3주년을 맞이했을 때 그 어떤 교회도 역사상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을 성취해 냈다. 서밋 교회는 총 104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인도 비자그에만 62개 교회의 설립을 돕고 아프리카와 유럽과 미국 전역에 걸쳐서 수십 개의 교회를 도왔다. 그중 두 개 교회는 서밋 교회가 위치한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 근처에 있다. 서밋 교회는 교회 수입의 23퍼센트를 세계 선교 헌금에 사용하며, 6~7퍼센트는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한다. 또한 교회 개척자를 위한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회들을 찾고 동역하기 위해서 믿음의 위대한 발걸음을 떼었다. 서밋 교회 교인들은 그



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열심히 활동한다. 이 교회는 공동체를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진지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전국과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서밋 교회는 57세의 노렌 롤린스 목사의 원대한 꿈에서 시작되었다. 이 베테랑 목사는 지역교회를 재생산, 증식시키는 교회 개척 운동이 그의 지역인 포트 마이어를 덮어버리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고, 실제로 이 꿈은 플로리다 주 남서부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는 이 일들이 미국의 중요 거점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도구로 쓰이길 열망했다. 간략히 설명하면 롤린스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 다른 도시로 나아가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각 지역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과 목회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그리고 동시에 세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롤린스가 말했다. “우리는 첫 포트 마이어스 지부를 허브 지부로 삼고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동역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창립이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롤린스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에게 영적 리더들을 생산하고 파송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올란도 카브레라에게 팀 리더의 역할을 맡겼고 꽤 큰 규모의 스태프 그룹(몇

몇은 유급이고 몇몇은 자원자로 구성된)을 구축했다. 기금을 모으는 재능이 있었던 롤린스는 우선 본인의 직함을 기존의 지역 리더에서 미션 목사로 바꾸고 교회 건립과 세계 비전을 위한 기금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200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

“성경은 팀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살살이 찾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이란 인재를 하나 더 얻으려 애를 썼듯이) 도시에 다가가려면 여러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의 개척을 돕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렉 카파스 목사가 말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밋 교회는 도시 복음화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 책임감을 가질 의지가 있는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그룹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카파스는 “‘우리는 20,000~40,000명의 사람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포부를 가진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서 동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와 지리적으로 겹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찌면 더 좋습니다. 각 교회는 아무래도 도시 안에 있는 다른 층을 복음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커에서 운동선수, 도시 전문직 종사자부터 파산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서밋 교회는 다른 교회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주일 오전에 모이고,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 대학 안에 있는 학생회 강당에서 세 번의 예배를 드린다. “복음을 들고 지역 도시에 다가가려는

우리 초점과 전략의 심장부에는 공동체 그룹이 있습니다.” 카파스가 말했다. 그들의 사명 선언에 따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함께 관계를 형성하여 친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서밋 교회의 본질이며 전부이다.

본부 교회의 3주년 기념일에는 9백 명에서 천 명이 모인다. 동역하는 다른 교회까지 합치면 2006년도 기준으로 104개의 교회에서 한 주 출석 인원이 6,500명이 넘는다.

이미 상당한 복음 확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심각하게 극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재정과 리더의 수가 부족한 매우 어린 교회라는 것입니다”라고 카파스가 말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서밋 교회의 비전만큼은 부족하지 않다.

롤린스와 그 팀은 새로운 교회를 수립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교회와 연합하는 방법인 도시 복음화 접근법의 선각자이다. 도시 복음화 교회 모델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데 서밋 교회 같은 교회가 아직까지는 소수일지라도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나(에드)는 올랜도 지역에서 십대의 대부분을 보냈다. 올랜도에서 산다면 당연히 디즈니월드에서 여러 번 가게 되는데(디즈니랜드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올랜드에는 디즈니월드가 있다. 디즈니랜드는 디즈니월드의 축소판이다. -역자 주) 이것은 일종의 법칙 같은 것이다. 디즈니월드까지 차를 타고 가는 일은 지루한 일이지만 디즈니월드의 전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올랜도에서 고등학교를 다

닌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안다. 디즈니의 시신은 엡콧 빌리지(EPCOT village: 디즈니월드 안에 있는 마을)에 냉동되어 있고 디즈니 월드는 자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 국가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시민들이 살고 있고 시장도 있는 실제 도시이며 이들은 모두 디즈니의 고용인이라는 것이다(디즈니월드에 대한 유명하고도 대표적인 괴소문 -역자 주). 실제로 이 세 개 전설 중 하나는 사실이다.

세계 전역의 디즈니 테마파크 운영 책임자인 알 웨이스와 동승하여 디즈니월드에 가면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디즈니의 비밀 통로 등에 대한 비밀을 알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오직 그는 교회 개척에 관해서만 말했다. 그는 교회 개척을 통해 올랜도 지역을 공략하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 현재 이 계획은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 전역에 있는 도시를 공략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웨이스는 비전 유에스에이(Vision USA) 웹사이트에 이렇게 적고 있다. “제가 올랜도로 이사 온 후에 이 지역 인구가 10만 명에서 32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역이 팽창되면서 새 교회에 대한 필요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웨이스는 전 세계에 있는 10만 고용인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이며 비전 유에스에이의 4명의 수석 스태프 중 한 명이다. 웨이스의 도시 복음화 비전과 함께 비전 유에스에이는 ‘올랜도 지역을 교회로 점령하는 초교파적 운동’을 일으켰다. “새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도시를 복음화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sup>2</sup>

스티브 존슨, 쉐 킬고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통한

도시 복음화를 위해 뭉쳤다. 쉐 킬고어는 크로스 포인트 교회의 목사이며 올랜도 교회 개척 프로젝트의 책임자이다.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년 전 올랜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것은 단지 한 개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도시 전체 지역의 선교사로 부르셨으며 우리는 첫째 날부터 도시 경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유에스에이와 연결되면서 비즈니스 리더들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게 되었고 도시에 교회를 많이 세우는 일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비전 유에스에이 센트럴 플로리다 지부는 11개 교회 설립을 도왔고, 총 출석수는 2,0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알 웨이스 같은 비전의 사람은 절대 올랜도 지역의 성공에 멈추지 않는다. 이 움직임은 20개의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전국 책임자이며 총 책임자인 스티브 존슨은 나에게 왜 그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도시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앞으로 20년 후, 전세계 인구의 80퍼센트 정도가 큰 도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한다면 도시에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자립이 가능한 교회를 세워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도시를 교회로 충만케 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도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도시 복음화 전략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움직임은 실제로 열매를 맺고 있으며 비전이 있는 전략이다. 알 웨이스와 대화한 후에 나는 그들의 계획이 실현되는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 한 교회만으로 도시를 공략할 수 있을까?

(미국이나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주민 거주 지역이나 고급 주택들이 중심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교외지역에 몰려 있고 대부분 도시 중심부에는 빈민층 거주 지역, 슬럼가가 위치한다. 이번 장에서 ‘도시’ 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종종 도시 전역을 일컫기도 하지만 특별히 도시 중심부만을 가리키는 협소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자 주)

‘도시 복음화’는 널리 사용되는 슬로건이며, 또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 복음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똑같이 쓴다고 해서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1972년 제리 포웰과 엘머 타운즈의 베스트셀러 「도시 사로잡기 *Capturing Your Towns for Christ*」<sup>3</sup>에서는 한 교회가 한 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며 모든 교회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드 실보소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That None Should Perish*」이란 책을 1977년에 썼고, 2000년에는 「기도 전도 *Prayer Evangelism*」를 저술했다. 이 책들은 아르헨티나의 도시 교회들이 어떻게 그 지역을 복음화 시켰는지를 보여준다.<sup>4</sup> 더 최근 것으로는 오리건 주 포틀랜

드의 시티 교회 프랭크 다마지오 목사가 쓴 「지역 사회를 바꾸는 도시 목회 *Crossing Rivers, Taking Cities*」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함께 연합하여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처럼 그 도시에서 사역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교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5</sup>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시티리치 인터내셔널의 총 책임자인 잭 데니슨은 몇 년간 교회들이 연합하여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는 운동을 이끌어 왔다.

존 푸더가 편집한 논문집 <도시를 향한 심장 *A Heart for the City*>은 대부분 무디성경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sup>6</sup>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복음적 아웃리치 사역을 부활시켜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이런 목회에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할 때 도시는 부패와 황폐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은 기독교인들에게 최근에 생긴 관심사처럼 보인다. 특히 정통 신자들에게는 더 그렇다고 느껴질 것이다. 몇 십 년 전 미국에서는 교외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도시 교회들이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이것이 교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원인이 되었다. 이는 교회 개척이 교외 지역에서 더 수월했기 때문인데 이곳에는 교회를 세울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비교적 안정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 중심부의 빈민가나 중심부에서는 늘 각

종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도시 복음화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들의 주요 관심사는 사회적, 인도주의적, 복지적 문제로서 깨지고 학대받은 가정을 돕는 일,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 등에 관한 정치적 옹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취업을 돕는 일 등이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 목회는 복음 전파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 한 교회가 도시를 복음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도시 사로잡기」에는 포웰이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에 있는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를 설립하는 데 사용한 도시 복음화 방법에 대해 잘 나와 있다.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교회 근처 10마일 주변의 모든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sup>7</sup> 1956년 여름부터 포웰은 파산한 도날드덕 병 공장을 교회 건물로 사용했으며 이 건물 뒤편 벽에 커다란 도시 지도를 걸었다. 그는 지도에 각각 1마일을 의미하는 10개의 원을 그리고 첫 번째 원 안에 있는 모든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일하면서 하루에 100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국 그는 린치버그의 모든 집을 방문했고 그 근처 교외 지역까지 방문했다.<sup>8</sup>

포웰은 '집중 전도'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시간대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9</sup> 1971년 11월, 포웰은 교회의 십자

군 전도운동을 도와서 그 도시가 복음으로 적셔지게 했다. 그는 전화 번호부 107페이지를 통째로 뜯어서 각 페이지를 담당하는 107명의 교회 멤버들을 모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 오게 하였다. 고등학생들은 도시 전역의 가로등에 포스터를 붙였고 중학생들은 전단지를 차 앞 유리창마다 끼워 넣었다. 그 지역의 13개 라디오 방송국과 한 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서 60개의 광고를 내보냈다. 십자군 전도 사역을 하기 전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지방지에 복음을 전하는 전면광고를 실었다. 모든 집에 교회 신문과 교회 약도가 그려진 엽서를 돌렸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오후에는 200명의 봉사자들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도시에 있는 모든 집을 가가호호 찾아 다녔다.

포웰은 이와 비슷한 경우를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찾는다.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적자들이 신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인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포웰은 그의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찾기 위해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를 찾아오게 만들었다.

다음 단계로, 포웰은 ‘초(超) 공격적인 전도’를 적용했다. 이것은 복음전도에, 믿음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최고로 공격적인 것을 의미한다.<sup>10</sup>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자들로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롬 3:23),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막 16:15),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요 14:12 참고)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포웰은 매일 복음을 라디오에서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주일 아침 예배를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선구자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그는 복음을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내보내는 첫 목사가 되었다.

이러한 도시 복음화 전략의 결과로 포웰은 미국 10대 교회 중 하나를 1969년에 세우게 되었고 미국에서 손꼽힐만한 초대형(3천 2백여 석) 성전이 되었다.<sup>11</sup> 교회의 주일 대예배의 참석 인원은 만 명이 넘고 주일학교 인원은 8,500명 이상이다.

### 많은 교회가 도시를 복음화하다

에드 실보소는 그의 처남인 복음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를 도와 동역자로 목회하면서 중앙, 남부 아메리카에 있는 도시로 복음 여행을 하기로 계획한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이다. 실보소는 빌리 그레이엄 재단 소속이면서 빌리 그레이엄의 남아메리카 순방을 준비하는 일을 보조하기도 했다.

실보소는 아르헨티나에서 극도로 보수적인 플리머스 형제교회에서 성장했다. 실보소는 미국에서 멀티노마 바이블 대학교와 웨스턴 보수 침례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여기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 신학적 배경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시 복음화 전도자가 되도록 새로운 전략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의 역량을 확장시켰다.

실보소는 수년간 대형 원형 투우장과 축구 경기장에서 대규모 도시

복음화 집회를 했고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 게시판을 통해 복음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보소는 크론병(국한성 회장염(回腸炎))에 걸려서 목회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 “내 최고 코치이신 하나님은 나를 그저 의자에 앉혀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예 선수 탈의실로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암울한 시기에 실보소는 고난, 영적 전쟁, 간절한 간구를 직접 경험하면서 기독교의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sup>12</sup> 하나님은 실보소의 병을 통해서 큰 대중 동원 집회와 유명한 설교자들의 이름을 광고하지 않고도, 기도와 영적 헌신이라는 기본적 성경 원리의 실행만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를 복음화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다. 이후 실보소는 더 이상 교회 리더들과 함께했던 상의하달(위에서 아래로 명령하고, 자원과 정보를 내려 보내서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식 -역자 주)을 사용하지 않고, 하의상달 방식을 통해 평신도들과 함께 가는 사역으로 방향을 틀었다.

1987년이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실보소에게 아르헨티나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실보소는 조 목사의 세미나를 위해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아르헨티나 북부에 있는 인구 40만의 레지스텐시아에 도착했다. 이 도시는 아르헨티나 북부 전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되는 도시였다. 실보소는 ‘레지스텐시아 작전’을 만들고 그 지역 목사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그리고 500명 기도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의 각 지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동시에 서로 긴밀히 화합을 이루도록 도모했다.

또한 실보소는 그 도시의 모든 집을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듣게 하려는 그의 계획을 알렸고 목회자들은 실보소의 이 꿈에 대해서 열렬히 환호했다.

그 꿈은 지역 목회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만나서 기도하며, 서로 강단을 바꿔서 설교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선물을 보내는 등 화합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화합하며 함께 기뻐하고 성만찬도 함께하는 등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

다음으로 실보소는 635개의 기도그룹(‘등대들’이라고 불리는)을 구성했는데 이 그룹들로 하여금 도시 전역을 감당하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 도시 모든 지역이 기도 반경 안에 들어오고 도시 전체를 기도로 가득 차게 했다. 실보소는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 도시의 모든 거리를 걸어 다니며 지역에 있는 집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 이것은 ‘땅 밟기 기도’로 알려지게 되었고 ‘통찰력을 갖고 현장에서 기도하기’라고 정의한다.<sup>13</sup> 기도그룹이 약 석 달을 기도한 후에, 실보소는 각 그룹에게 그 동안 기도했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 밟기 기도를 했고 당신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라고 했다. 기도그룹의 사람들은 각 집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주민들에게는 “당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름과 기도제목을 적을 공책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꼭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함께 기쁨을 나눠요”라고 말했다.

실보소는 이를 꼭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전통적 복음 전도전략으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느끼도록 말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단 '잃어버린 영혼이' 이 된 후 — 자신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불리고 또 그렇다고 자각한 후 — 구원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축복'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그들이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다(롬 2:4 참고).

6개월 후, 그 도시의 교회들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201퍼센트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다.<sup>14</sup> 실보소는 그리스도를 위해 도시를 공략하는 것은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여 장악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도시 공략을 위한 6가지 단계 전략을 제안했다.

1. 돌아보고 찾으라. 당신과 함께 도시에 '남아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이 사탄의 영토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대표임을 인식시켜라.
2. 도시의 영역을 구축하라. 적들이 도시에 침투했고 죄로 인해 격정과 근심이 넓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

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고후 10:4-5)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교회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3.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라.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땅 밟기 기도'로 도시에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오랫동안 도시를 묶고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에 대해 영적 공격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4. '낙하산 배후 침투'를 통한 대규모 '공중 폭격'으로 사탄의 영역에 침투하라. 이 공중 폭격은 특정 중보기도를 통한 공격을 뜻한다. 이것은 도시 전역에 있는 백 개 이상의 기도그룹을 통해 행해지게 되는데 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하고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다.
5. 사탄의 영역을 공격하고 무너뜨려라. 이것은 교회가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영적 세력과 대면하고 이들을 묶고 쫓아냄으로써 도시를 수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sup>15</sup> 복음의 메시지는 도시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새신자들은 이미 자리 잡은 '등대들' 그룹을 통해 훈련받아야 한다.

6. 사탄이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새 영역을 세워라. 실보소는 이것을 '적진 쟁취하기' 라고 부른다. 이것은 적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소유물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는 일이다. 실보소는 말한다. "영적 전쟁을 멋지게 치렀더라도 그 결과 사람들을 실제적인 회심으로 연결시켜 교회 멤버가 되게 하지 않는 이상, 좋은 후속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sup>16</sup>

에드 실보소는 도시 안의 모든 교회가 지상 명령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세상을 그분께 돌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비취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언약과 모든 명령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sup>17</sup>

실보소는 또한 도시 공략의 4단계를 그려준다.

첫째 단계는 도시의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그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담당목사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도시를 뒤덮을 정도의 기도가 배후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람들은 도시의 모든 블록, 모든 이웃 동네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도시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들 담당목사를 잘 알게 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축복해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도시의 영적 기후가 호전되는 상태이다. 교회가 잃

어버린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믿음이 도시 전역으로 확장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로 도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증거가 도시 전역에 증거되기 시작한다.<sup>18</sup>

이 일은 정말 가능하다! 나(엘머)는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에 있을 때 시청 건물 한 곳이 특별히 기도 공간으로 지정된 것을 목격했다. 시장은 시청에서 사람들이 도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아 규정했다.

실보소는 "설교자를 외부에서 초청해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좀 해달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했다. 실보소는 그 외부 인사가 외국에서 온 선교사이든, 같은 미국 땅에서 온 설교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도시를 공략해 나가길 원하십니다"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기도는 성도들을 도시 복음화에 준비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라고 말했다.<sup>19</sup>

###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도시 복음화하기

프랭크 다마지오는 같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심 단결하여 그들의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을 '도시 복음화'라고 말한다. 「지역사회를 바꾸는 도시 목회 *Crossing Rivers, Taking Cities*」에서 다마지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 교회는 그리스도



가 이끄는 수많은 단체나 지역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모델이며 신약성경에서도 쉽게 그 맥락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 교회는 그들 자체적으로 리더십 그룹과 고유의 특성과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리고 함께 열심을 내야 합니다.”<sup>20</sup> 다마지오의 도시 복음화 이론에 따르면 각 교회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고, 전 도시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면서도 동시에 다른 교회와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고유한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다마지오는 교회의 성격을 정의하기를 ‘그 지역 교회만의 고유의 방법과 절차, 자신만의 철학과 스타일’<sup>21</sup>이라고 하며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도시를 사랑”<sup>22</sup>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서 “21세기에 복음 전파는 매우 힘든 일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도시 안에 거하지 않고 도시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3</sup>라고 말했다.

시티리치 인터내셔널의 창립 회장인 잭 데니슨은 그의 책 「도시 공략: 공동체 변화의 길에서 *City Reaching: On the Road to Community Transformation*」에서 이렇게 말한다. “도시 교회는 그 지역 교회의 리더십 아래 있고, 주님이 명하신 화합을 주창하지만 무엇인가 공급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데니슨은 이어서 예화 하나를 들었다. “빌립보 교회처럼 전국 각지에 각양각색의 기독교인 그룹으로 구성된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받아들여져서 일반적인 교회가 되면, 우리가 완전한 화합으로 가까워져

가며 세상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하나님)께서 나(예수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요 17:23).<sup>24</sup>

시티리치 인터내셔널은 교회들이 화합하여 도시를 복음화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 그는 도시 복음화 계획을 돕고 이를 활성화할 만한 사람들의 목록을 갖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길을 밝게 비추어 왔다. 나는 이 거대한 협력의 건물 외관일 뿐이다. 핵심 인물들은 레이 바크, 하비 콘, 로저 그린웨이, 로버트 린티컴과 밥 룬톤 등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단체들은 도시에 대한 신학과 선교학을 현실에 살을 붙이고 실행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특별히 눈여겨볼 점은 기독교지역사회개발협의회(CDDA: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의 존 퍼킨스와 리더십 위원회 재단의 레이드 카펜터스와 월드 임팩트(World Impact)의 케이트 필립스가 거기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된 책으로는 존 도우슨의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Taking Our Cities for God*」가 있고 실보소의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과 조지 오티스 주니어의 「정보 있는 중보기도 *Informed Intercession*」 등이 있는데, 이 책들은 도시 공략이라는 개념을 널리 인식시켜 이 용어가 기독교 리더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게 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sup>25</sup>

###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시 교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어떤 것이

도시 복음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도시 복음화 교회가 아직 북미지역에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복음화는 이론상으로 존재하나 실제적으로는 경험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이 빨리 바뀌길 기도한다.

도시 복음화 교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도시 복음화에 사명이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DNA같은 본질적인 것이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4,000명 규모의 리더십 장로교회의 팀 켈러 목사는 교회 설립 공동 프로젝트 '비전 뉴욕'을 조성한 사람이다. '비전 뉴욕'은 뉴욕 지역에 수백 개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이다. 나(에드)는 여기에서 강의를 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각 교회의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인 복음을 가지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켈러 목사와 동참하고 있었다. 켈러 목사는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의 씨를 도시 전역에 뿌리길 원했다.

'도시'란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제리 포웰의 중간 크기 도시(타운), 에드 실보소의 대도시(메트로폴리스), 존 푸더의 도시 중심 변화, 켈러의 맨해튼 등이다. 같은 도시라도 뉴욕의 어퍼 맨해튼이 사우스 브롱크스의 불타버린 도시 구역과 얼마나 다른가? 로스앤젤레스 월셔 거리와 할리우드, 버버리 힐즈를 비교해 보아라. '도시'란 단어는 넓은 범위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것은 도시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부터 백만 달러 맨션이 있는 부유한 지역까지를 포함한다. 따

라서 도시 복음화에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현재 많은 교회와 교파들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교외지역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교외지역은 인구층이 유동적이고, 빌딩을 세울 만한 공간이 있고, 상식이 통용되는 동질적인 중산층이 있는 등 좋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서 교회를 세우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도 도시 공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시 복음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특히 중국 등 인구가 넘쳐나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 가정 교회를 한 번도 다루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어떤 도시 복음화 옹호자들이라도 셀 목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셀 목회는 한국의 조용기 목사에 의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서울은 교외 거주자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용기 목사는 70,000개의 소규모 셀 모임을 매주 거실에서, 휴게실과 식당에서 갖도록 했다.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복음을 나누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필요가 충족되었다.<sup>26</sup> 도시 복음화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러한 가정 교회와 셀 교회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래리 스타크스틸의 책 「셀 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The Cell Church*」를 다시 참고해야 한다.<sup>27</sup>

도시 복음화 이론은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복음 전략이 아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도 등장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며(행 1:8) 기도와 영적 권능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눅 24:49)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10일간의 중보기도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주님께서 ‘이 성’, 즉 도시를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첫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 그들의 도시였다.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 땅으로 가고, 시골에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한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인 도시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선교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각 지역 주요 도시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일단 교회가 설립되면 그 도시를 떠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 바울은 거점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은 이미 복음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도시 교회들이 그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다음 지역으로 떠났던 것이다.

시골이나 교외가 교회를 세워서 운영하기 가장 좋은, 심지어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은 우리가 영원히 살 도시를 그리고 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2).

우리가 온 열방을 못 얻는 이유는 아마 지금까지 교회가 시골이나 교외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도시를 경시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당신의 인생과 목회가 지상명령의 정확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사역자로 세우셨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도시 복음화 교회로부터 배울 점

도시 복음화 교회들 중 몇몇은 잘 알려진 유명 교회이다. 이런 교회들은 모두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도시에 거주해야 한다

팀 켈러는 최근 「크리스천 투데이」(초교파 기독교 신문)에 도시 복음화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꽤나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시에 장기간 거주해야 한다... 큰 도시 문화의 중심지에서 살고 있고, 예술, 사업, 학계, 출판계, 전문업자, 미디어 등 전문분야에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만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은 도시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공동체의 헌신된 일원이 되어야 한다.<sup>28</sup>

많은 기독교인들은 도시를 죄가 가득한 세속적인 장소라고 보는데 물론 그런 경향은 있다. 그러나 도시가 영향력 있는 장소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 복음화 교회들은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시를 도외시한다고 지적한다. 도시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성경은 도시, 그것도 다름 아닌 '거룩한 성'을 언급하며 마무리하는데, 이는 참 역설적이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서(계 21:2-3)

더 많은 교회들이 도시 복음화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도시가 '목자 없는 양 같음' (눅 19:41) 보시고 우셨다는 문맥과 딱 맞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도시를 이해해야 한다

팀 켈러가 뉴욕에 왔을 때 그는 "뉴욕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당신이 이 도시를 길들이고 구원하려고 한다면 아예 들어오지 마십시오. 대신 뉴욕 자체를 존중해 주십시오"<sup>29</sup>라는 말을 했다. 도시를 복음화하는 교회라면 그 지역 공동체와 역사 그리고 도시 사람들과 그곳에서 극복해야 할 점들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도시를 복음화의 장소로 봐야 한다

단순히 말해서, 기독교인과 교회는 그들의 이웃보다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도시와 그 안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까지 공략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와 동질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도시 안에 어떠한 이질적인 '나라들'이 속해 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www.peoplegroup.info](http://www.peoplegroup.info)에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도시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장소로 봐야 한다.

도시가 회심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바라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 복음화 교회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임을 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도시를 이롭게 하는 것이 도시 복음화 교회의 목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도시에 살롬을 전하는 것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 구약성서에 36번 쓰였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사람들 간의 언약 관계로 인한 심리적 충족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완전함, '조화' 그리고 '잘됨'의 정신을 담고 있다.<sup>30</sup>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버린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  
 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  
 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  
 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버  
 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  
 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렘 29:4-7

교회가 변화를 주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저 큰 교회  
 를 짓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복음에 의해 변화된 곳이  
 되고 동시에 그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교  
 회의 영향력은 도시의 한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상이어  
 야 한다.

### 극복해야 할 점

도시 복음화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뤘던 다른 교회들  
 과는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극복해야 할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  
 은 교회의 움직임에 대해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만 하는가 보다  
 는 비전과 부르심에 맞추어 교회가 어떻게 도시를 복음화하느냐에 초  
 점을 두는 것이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 도시를 향한 열정

첫째, 도시 복음화 교회들은 그들만이 그 도시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도시를 복음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해야  
 하는 일이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도 역사하지 않았던 것인 양 착각하는데 이것은 너무 단세포적이고  
 교만한 태도다. 도시 복음화 교회들은 그들만이 '이 일을 홀로 하고  
 있는 것' 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전도학자 로버트 린디컴은 다음과 같  
 이 말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역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증임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네트워크로써 당신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 하는 것이다."<sup>31</sup>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학적으로 서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  
 소위 영적 색깔이 다른 그룹과는 파트너로 일하지 말라는 것이다. 도  
 시 복음화를 시작할 때면 신학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특이한 교파나  
 사람들이 참여하려 든다. 그들은 당신과 파트너가 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어 하며 그 정당성은 그들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 복음화 교회들은 복음으로 도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  
 트너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파트너는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 안  
 에 살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조급한 복음 전파를 주의하자

두 번째, 도시 복음화 교회는 너무 조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너무 많은 교회가 마치 그들이 아니면 도시를 복음화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도시를 섬기지 않는 양 교만한 자세를 취해 왔다. 나(에드)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뉴욕의 버팔로 도시 중심가 빈민층 지역에서 첫 교회를 세울 때, 나는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로 그곳에 도착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껏 '아무도' 빈민가의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는지를 강조하며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이를 통해서 교회 기금을 모았다. 당시 나는 이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곧 내가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도시 복음화 운동이 이미 당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이 운동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거나 그들의 진심을 알거나 그들의 숨겨진 행동강령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에 초점 맞추기

세 번째, 도시 복음화 교회들은 오직 한 교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는 초점을 주님의 나라에 맞추고 우리 마음 문에 있는 자아와 이성을 확인해야 한다. 각 교회들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사역보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

고,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결론

도시 복음화 교회들의 충격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북미지역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미약하다. 그러나 더 많은 교회가 지역 공동체 전역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상 언젠가는 그들의 비전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 Chapter 6

#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Community Transformation Churche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 빌 1:11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내(에드)가 처음 시작한 교회는 뉴욕 주 버팔로의 도시 중심부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있었다. 나는 21살에 아내와 함께 슬럼 지역에서 집창촌 여성들, 교사, 약물 중독자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했다. 당시 나는 아일랜드 출신 가톨릭 신자인 지미 그리핀 시장을 만났는데 그도 나와 비슷한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 당시 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고 그는 그 일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그는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허가를 받는 과정도 도와주고 그 지역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나는 처음에 그가 왜 그렇게 협조적으로 우리를 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투표에 영향을 줄 만큼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접근했는데 결국 그들은 성당이 아닌 우리 교회로 올 사람들이었기에, 그가 가톨릭 신자임을 감안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어느 날 그가 왜 그렇게 협조적이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쇠퇴해가는 도시를 떠날 때, 우리는 대조적으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돕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8년 우리가 버팔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은 1950년을 절정으로 도시 인구가 반이나 줄어든 상태였다. 부동산 중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피난가려고 할 때' 내가 왜 그 지역에 집을 사는지' 의아해 했다(실제로 87,000달러를 주고 산 집을 5년 후 40,000달러에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시 빈민층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창업을 돕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중독자들과 매춘 여성들을 돌보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리핀 시장도 그가 맡은 도시를 더 좋게 만드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결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떠

날 때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 했다. 요즘엔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여러 부류의 기독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기존 목회와는 달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밥 로버츠는 그의 책 「T 라이프 Transformation」에서 전인적 목회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만약 한 교회가 빌리 그레이엄과 테레사 수녀를 합친다면 당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sup>1</sup> 이 질문은 신학적인 것이 아닌 방법론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의 경우 공동체 변혁에 대한 관심이나 진지한 노력이 미비하다. 많은 지역에서 교회는 그 지역의 공헌자가 아닌 기생충으로 보일 뿐이다. 심지어 텍사스 주의 스탠포드 시장은 2006년 “우리 도시에는 교회가 과도하게 많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는 미국 전역에 뉴스로 보도되었다.<sup>2</sup> 그러나 그것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바를 소리로 낸 것에 불과하다. 많은 교회는 오로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지도 않는다. 만약 앞에 나온 교회의 경우처럼 교회가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회가 먼저 교회를 원한다고 상상해보라.



## 선한 행위와 복음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 말에 동의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상처받고 난 후 교회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는 대단히 가치 있고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구약성경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의 선하심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을 볼 수 있다. 잠언 29장 7절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라고 말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금식을 원하시는지 말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6-7).

예수님은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를 강조하셨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변화는 어떤 모양일까? 릭 루소와 에릭 스완

슨의 책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Externally Focused Church*」에 나오는 플로리다 주 리스버그는 지극히 작은 도시이다. 그러나 지역 사람들의 실제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에 부응하면서 70개의 각종 사역으로 늘어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제일침례교회다. 이 교회는 남성 휴게실, 여성보호센터, 맞벌이 부부 자녀 목회, 탁아소, 지역 의료 센터와 이 밖의 열 가지 이상의 목회를 통해서 몇 백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sup>3</sup>

제일침례교회의 담임목사 찰스 로젤은 이렇게 말한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문으로 들어오는가만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하고 다친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야 합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sup>4</sup> 이 교회 출석 인원이 200명에서 2,000명으로 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목회가 상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라고 로젤은 힘주어 말했다.<sup>5</sup>

루소와 스완슨이 열거한 예를 보면 교회가 그 도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을 찾는 것은 그다지 힘들거나 최첨단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캔자스시티에 있는 연합부활감리교회의 경우를 보자. 주변 동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그 지역 학군의 교육 의욕이 바닥을 쳤을 때 이 교회는 도시를 축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했다. 교회의 봉사자들은 캔자스시티 학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소가 적힌 카드를 준비했다. 아담 해밀턴 목

사는 이 카드를 봉사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주소의 주인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격려의 메시지를 쓰라고 했다. 교사, 교직원들과 수위 아저씨, 식당 아주머니 등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했다. 편지는 교인들이 직접 손으로 쓰고 우표를 붙여서 발송하도록 했는데 교인들은 이에 열성적으로 반응했고 이를 받은 그 지역 교사와 교직원들은 더 뜨겁게 반응했다. 그들은 격려와 후원의 메시지에 감동했고 많은 교직원들은 발신인에게 연락을 했고 결과적으로 감리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빈민가 학교들의 개인지도와 독서 프로그램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sup>6</sup>

로버트 루이스는 그의 책 「불가항력의 영향력을 가진 교회 *The Church of Irresistible Influence*」에서 이렇게 묻고 있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오늘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그 교회 교인 외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파트너를 잃어버렸다고 슬퍼할 것인가? 아주 조금이라도 섭섭해 할까? 이런 질문들이 실은 교회의 사명을 업그레이드 하며 목회를 말의 차원이 아닌 실천의 차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루이스는 「교회개혁 이야기 *Culture Shift*」에서 그가 섬기는 교회는 알켄소 주 리틀록 펠로우십 성경교회라고 소개한다. 이 교회는 지역 사회의 주민이 염려하는 문제뿐 아니라, 그 도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해결함으로 주민들과 관계 맺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설문조사를 하나씩 진행시켰고 몇몇 포커스 그룹(focus group, 테스트할 상품에 대해서 토의하는 소비자 그룹 -역자 주)을 만들었다. 이 그룹에서 지역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 학교, 특히 빈민가 학교라고 말했다.

우리는 나눔 축제 물연기로 결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정 부문, 학교를 포함한 여러 곳에 도움을 손을 내미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행정실에 들어가자 그들은 회의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목적이 전도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확인시켰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학교에 필요한 물품 등의 목록을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라고 물었다. 그들은 그렇게 해주었고 우리는 각종 선물로 그들을 도왔다. 새 물감, 새 카펫, 새 운동장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전하고 떠났다.<sup>8</sup>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잘 진척되어서 그 교회는 다음 해 이것을 또 했다. 두 번째 행사를 마친 후 주일날 그들은 슬럼 지역 학교 3명의 교장 선생님들을 펠로우십 성경교회로 초대했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때 교장들은 교회가 이 지역에 투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여러분 덕분에 새 학교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로버트 루이스는 연이어 이렇게 말했다

나눔 축제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집을 다니며 저소득층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집 보수 등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 교인 레이 월리엄은 연로한 미망인들의 잔디를 깎아 주었다. 하루는 그 미망인과 함께 살고 있는

어린 초등학생 손자 마이클이 레이에게 와서는 갑자기 "이서씨, 내 멘토가 되어 주실래요?"라고 물었다. 레이는 '넌 시간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소년에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다.

소년은 학교에서 멘토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한다고 하며 그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각해 볼게" 레이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레이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예스"라고 대답했다. 얼마 안 되어 레이는 마이클이 문제 아동임을 알게 되었다. 레이는 교장 선생님에게 마이클과 같이 점심을 먹고 싶다고 요청하여 간신히 승낙을 받고 그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다. 레이는 마이클의 숙제도 도와주는 등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돌봐 주었다.

마이클을 향한 이러한 레이의 노력은 성과를 맺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 교회에서 멘토를 더 보내줄 수 없나요?"라고 물었다. 우리는 나눔 축제를 통해서 그 학교를 색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 레이 라는 한 백인 남성이 빈민가 동네에 사랑이라는 다리를 놓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sup>9</sup>

### 기독교는 과연 선한 일을 주도하는 사회적 파워인가?

몇몇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서구 문화에서는 기독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한 행실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주된 세력이다. 교회는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이거나 상상이건 간에,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힘이 되고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꾸준한 사회복지활동과 자선활동을 고무시켰다. 실제로 역

사학자 윌리엄 매크로린은 미국의 사회 개혁들은 대부분 몇몇 위대한 기독교 영적 각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영적 힘을 '사회 변화의 기폭제'라고 강력히 주장한다.<sup>10</sup>

반면, 수많은 연구는 요즘 대중들이, 특히 미디어와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더 이상 사회의 주도적 힘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스테판 L. 케이터의 저서 「불신의 문화: 어떻게 미국의 법과 정치가 영적 헌신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가 *The Culture of Disbelief: How American Law and Politics Trivialize Religious Devotion*」에서 현대 교회가 주변에 동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케이터는 한 예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종교가 가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적인 토론에 초대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책 둘째 장 제목에서 그는 성스런 것들이 공적인 삶에서 제외됨으로써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을 사적인 취미로'만 여기게 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기독교 자선단체의 역사와 성과는 놀랄 만한 것이어서 현대 인문학의 창시자인 존 듀이마저도 신자들의 사회적 양심을 칭찬한 바 있다. 또한 현대 범죄 심리학자들, 존 달루리오 같은 정치 사회학자들은 도시 범죄를 연구하고는 복음, 신앙 중심의 교회와 목회에서 도시 청소년을 위한 최상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sup>12</sup>

기독교가 문화에 접촉해서 이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것도 그 개선 정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정

통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정의를 옹호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사회에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예제 철폐, 교도소 개혁(인권, 시설 등), 과부와 고아들의 돌봄, 학교와 병원의 발전, 이 모든 것은 그 뿌리가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 있는 역사, 문화적, 사회적 변혁에 기인한 것이다.

비록 기독교가 현대 서구 문화에 단지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각종 인도적 프로그램의 일선에는 깊이 헌신하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단체들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일과(전 세계적 기근 구제 프로그램과 북미의 아침 제공 프로그램),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일 그리고(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예방교육과 미국에서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사회 개혁(교도소 개혁, 문맹 퇴치 교육) 운동 등이 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변혁을 위한 성령님의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지역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없다. 문화 변화는 기독교인들이 꾸준히 그들의 신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다음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성경의 원칙에 근거하여 형성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라고 질책하신 그런 종류의 기독교인이 될 뿐이다.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다. 이는 그가 기독교인들이 런던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던 것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남아프리카

의 흑백 분리 정책(아파트 헤드)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시기에 기독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기독교인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이 되는 걸 고려해 보겠다.”

이러한 면들은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회 변혁 운동과 너무 다르지 않은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들은 여기저기를 동요시키는 자들로 만들어, 부랑배를 동원해 폭도를 형성하고 소요를 일으키고는 그것을 바울과 실라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다. 그들이 기독교와 그 지역을 위해 하는 행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행 17:4-6).

문화를 바꾸는 기독교의 능력의 근원은 초기 기독교에 대한 다른 언급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행 4:13). 이렇듯 기독교는 항상 사회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 배울 점

이러한 지역 변화 교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몇몇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역 변화에 무심하지 않은 교회들은 로마 세계를 바꿔 놓았다  
초대교회가 1세기에 눈에 띄는 만큼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한

감이 있다. 물론 1세기만큼 두드러진 성장은 다음 2, 3세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흥왕 *The Rise of Christianity*」에서 165년에 중동지역에 심한 역병이 돌았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때 1/3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다. 251년에는 두 번째 전염병이 한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스타크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함으로 당시 기독교가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버려진 지역에 남아서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다.<sup>13</sup>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중점에 둔다

복음주의자들이 요즘 새롭게 발견한 것은 복음은 지역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최근 릭 워렌 목사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음을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 오랫동안 저는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저는 침례신학교와 두 곳의 신학대학원을 다녔지만 몇 년 전에서야 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난한 자에 관한 성경의 2,000 구절의 말씀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sup>14</sup>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역할 중에는 하나는 관용을 베풀어 예수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 29:7).

### 주의해야 할 사항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아닌, '균형' 유지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회 복음에 대한 심각한 우려

사회 정의에 열정을 가진 교회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금방 식는다는 게 현실이다. 예수님께서 사회 정의와 잃어버린 영혼,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

100년 전쯤 한 논쟁이 북미와 유럽에서 일어났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 운동에서 교회는 강한 사회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운동은 사람들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사후에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음으로부터 몸의 부활 등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또한 부정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신학자는 아돌프 반 하르낙(Adolph von Harnack, 1851-1930)일 것이다. 그의 베스트셀러인 「기독교란 무엇인가? *What is Christianity?*」는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재정의하는 방식 때문이었다.<sup>15</sup> 1917년 미국의

특별히 부인 세 사람은 제단 앞에 꿇어 앉아 죄책감에 압도된 나머지 목을 놓아 울고 있었다.

이 10대 교회 교역자들은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원치 않는 일을 교인에게 맡기지 않는다. 교인들과 같은 동일한 대열에 서서 전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잃어버린 자들을 인도해 내려고 애쓴다. 이 사실은 필자가 10대 주일학교의 어느 교회 아침 예배 때 천주교 개종자에게 전도했더니, 지난 주간에도 모상점에서 만난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이제 결신하게 되었노라는 간증을 들어보아서도 재입증할 수 있었다.

이 10대 주일학교의 교역자들은(특히 성서침례회 소속 목사들) “전도”(witnessing)라는 말 대신에 “구령”(soul winning)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많이 쓰고 있다. 전도라는 말의 광의적인 해석으로는 말로써 복음을 전함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로써 우리 신앙을 간증함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이런 역사를 하셨으니 당신의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 수 있다는 의미의 간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령(救靈)이라고 하면 전도함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에서 결신을 촉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바 복음대로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들 교회 내의 교인들은 그들의 전도 활동에 있어서 “행동적인” 접근 모색을 하도록 훈련을 받아 대상자에게서 어떤 결실을 얻어내도록 독려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여섯개 교회에서 초대 시간에 평신도들이 교회 낭하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결신자는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외쳐대는 것을 필자는 목도했다.

또 전도는 주일학교 각반에서 언제나 중립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다. 보통 생각하기로는 주일학교라 하면 교육 기관인 것이다. 이들 교회의 전도적 기본 입장은 「토마스로드 교회」의 「제리 포웰」이 잘 대변해 준다고 하겠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모름지기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적 진리를 토의 방식으로 가르치지 말고(discuss) 주입식으로 교화(教化)시켜야 한다는(indoctrination) 점에 나는 전폭 찬성을 표한다.” “결신을 목표로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벤나이스제일교회의」 「픽켓」 박사는 이에 불찬이다. 자기 교회 주교반에서는 토의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달라스 제일교회」에서는 남침례회 출판부에서 펴내는 교육 지도 방침을 따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10대 주일학교의 목회자들은 전도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의 방법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전도 방문 활동은 체계화하여 각 주교 반사는 말은 바 방문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켄턴교회」의 「해롤드 해니저」 박사 같은 이는 “방문 전도를 교인들의 임의에 맡겨 두면 그들은 실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이란 최선의 결심도 때로는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신경을 써서 자기 교회의 장년반 방문 활동을 개편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방문 전도를 하

는 사람은 화요일 저녁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 특정된 책임량을 할당 받고(주소와 성명이 기재된 카드 등이 배부됨) 또 이 책임량의 성실 이행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는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의 참석인 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의 방문 실적에 직접 결부되어 있습니다.” 「해니저」 박사의 말이다.

10대 교회 중 두 교회가 방문 전도에 대한 조직성을 결여하고 있는데, 「갈보리교회」와 「토마스로드교회」다. 그러나 이들 교회 목회자 역시 교회 직원들의 개인 전도 여부가 주일학교 성장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감하고 있다.

수년 전 필자는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거주하는 일개 신학도였다. 신방 살림을 차린지 1년이 지나자 장로교회에서 목회할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기회가 있어 「크리즈웰」 박사의 설교를 들어보려 「달라스제일교회」를 찾아갔다. 물론 의례적으로 방문객 카드에다 주소와 성명을 적어 넣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주간 사이 도합 8회에 걸쳐 「제일교회」 교인들이 우리 집을 찾아 방문해 주는 것이었다. 원래 침례교 교인이 아니었지만 이 여러번 방문에 마음이 끌려 그 교회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 조직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내가 자기네 교회 식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모양이다”하고 감동이 된 후론 오래 안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그 교회교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 7. 개인의 구원이 일차적이요

지역 사회 봉사는 이차에 속한다.

이 10대 주일학교의 교역자들을 상대해 보면 그들의 주관심과 문제가 잃어버린 남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들이는 것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교회 전 사업 활동의 일주간 결산이 주일날 결산자 초대 때 정점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교역자는 단순히 대규모의 주일학교나 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술”로써 이런 초대 시간을 가지지는 않는다. 잃어버린 자들을 전져 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우리나라 조금도 불순한 개인적 야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방법 이요, 사역임을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같은 견장을 수 없는 열과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들의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죄인들이 회개하며 구원 얻는 일들이 속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를 중요시하는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교회들은 복음에 함축된 사회 구원적 의미를 다분히 경시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10대 교회의 활동상을 세밀히 관찰해 보지 않고는 근거 없는 것이 된다. 실상은 이들 교회의 사회적 활동을 보면 비난자들 자신이 놀랄만한 것이다. 「해먼드제일교회」는 행여자들을 위한 구빈관을 경영해서 끼니를 제공하며, 피복 창고를 두어 옷이 필요한 가정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이발관이 있어 무료 이발을 해주며 주일 오후에는 인근 빈민가의

아이들을 칭해다가 마음과 몸이 훌훌 녹는 점심 대접을 한다. 또 영어를 몰라 속태우는 교회 이웃 주민을 위해 서반어 주일학교와 교회 예배를 보아준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자유주의신학 계통의 교회가 일차적으로 별이는 것보다 몇 배나 큰 사회봉사를 이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하일즈」 박사의 말이다. “우리의 일차적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사회 봉사는 그 아무리 규모가 커도 우리에게겐 언지나 부차적(副次的)사업입니다.”

「토마스로드교회」는 출감자들을 위한 보호 시설이 있고, 알콜 중독자들을 위한 갱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또 시내에 구빈관(救貧館)을 경영하고 있다. 「하일랜드학교」는 「유니온」 복음관을 보조하여 행여자들에 대한 숙식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2,181명의 인원(시내 빈민 지대의 주민이 대부분)이 「캠프조이」(Camp Joy) 야영장에서 일주간의 무료 캠프 생활을 즐겼다. 「갈보리교회」는 「멤버」시 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 일환으로 복음병원(Evangel Hospital)을 건립하고 있다. 10대 교회 중 대부분이 농아자, 정서적인 미숙자 그리고 노년층들을 위하여 특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 10대 주일학교의 전부가 이상과 같은 정도의 사회 봉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나 지역 공동사회에 대한 봉사적 의무를 게을리 않는 범위 내의 충분한 사업 조직을 갖춘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비난자들의 모든 비난을 능히 합구시킬 수 있는 것이다.

## 8. 세례식

10대 주일학교 중 9개 교회가 신앙을 확인하는 세례를 베푼다. 모든 교회는 교인의 구비 요건으로 세례를 요구한다. 「토마스로드교회」의 「포웰」 박사의 다음 말은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잘 대변한다. “교인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 세례를 받아야 한다.” 10대 교회 중 「갈보리교회」도 결신자에 한해서만은 세례를 강조한다. 그러나 교인 등록에 대해서는 세례를 묻지 아니한다.

10대 교회 중 4개 교회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세례를 베푼다. 「에이크론교회」, 「해먼드제일교회」, 「하일랜드학교」, 「랜드막교회」 등이다. 이것은 주일 아침 결신자 초대 시간에 응한 사람은 그 즉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다. 결신자에게 반드시 즉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당일 저녁 예배때나 아니면 다음 주일에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인 대부분의 교회들과는 대조적이다.

「켄턴교회」만은 세례 의식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것 같다. “세례식을 실제로 베풀기 전에 교회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세례 희망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고 이 교회 교역자인 「해니저」 박사는 말한다.

10대 교회의 교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많고 많은 사회에서 물 속에다 전신을 담그는 것 같은 형식은 개인의 위신에 관



계된 일이라고 해서 침례교회 성장 발전에 다소 지장이 되  
는 영향은 없을까요?” 이에 대하여 그 목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성경이 명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형식도 불  
사하는 사람은 머리에다 몇방울 듣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큰 어려움도 불사하  
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9. 개척교회 설립

이 10대 교회의 전도 활동은 모두 지역 교회 사업과 유기  
적 관계를 맺고 있다. 「캐턴교회」의 청소년부 담당 교역자  
인 「멜 새버커」목사의 다음 말은 10대 주일학교의 공통된  
견해를 표명한다고 보겠다. “나는 지역교회와 관련을 맺지  
않는 다방 전도 사업이라든가 해변 전도 활동이라든가 기타  
그 어느 종류의 소위 전도 사업도 반대합니다.” 이 10대 교  
회의 대부분이 전도 활동의 효과적인 확대 사업으로 본 교  
회의 구실점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은 지역 교회를 별도로  
세워 토착화시키는 데에 있음을 믿고 있다. 「에이크론교회」  
는 1934년대 200개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것은  
재정적인 보조를 하거나, 건물을 매입해 주거나, 건물 매입  
에 용자를 해주거나, 남의 건물에 세들어 예배드릴 때 회  
중용·찬송가 책을 공급해 주거나 또는 본 교회에서 차출되  
어 일하는 직원의 봉급을 맡는 등의 의미가 됨). 그 중의  
일개 교회가 「캐턴교회」로서 지금은 10대 교회 중 하나로  
진출해 있는 것이다.

「하일랜드팍교회」는 43개의 개척 교회가 있는데 이 모두  
침례교 전통에 따라 자립된 침례 교회로 성장할 전망이다.  
본 교회 소재지인 「채터누거」 시에는 「하일랜드팍교회」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13개 처나 되는데 지금은 다 자립되어  
절대로 「하일랜드팍교회」의 개척 교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막베스」저 “「달라스제일교회」”란 책에 보면 부록이 있는  
데 거기에는 왕년에는 「제일교회」의 보조를 받았으나 지금  
은 아무런 유기적 관계도 없는 교회들의 일람표가 나와 있  
다. 지금도 농삼아 “남침례교회단의 성모(聖母) 교회”(The  
Mother Church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라 불  
리우는 「달라스제일교회」는 지금도 6군데의 개척 교회를  
거느리고 있다.

개척 교회 건립을 위해서는 모 교회의 출석인 수 증가나  
성장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많다(10대 교회는  
그렇게 생각지 않음). 최근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 교역자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400명 참석인 수  
이상으로는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를 물  
으니, “400명 선만 달하면 그 후부터는 개척 교회 설립에만  
전념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라일 살터」의 견해  
에 따르면, 자체의 성장을 제한하는 교회는 자멸의 사업을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회는 개척 교회를 시작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개척 교회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원 교회는 더 크게 성장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일랜드팍교회」의 「리 로버슨」 박

사의 말이다. 교회 개척을 위하여 그리고 개척 교회 봉사를 위하여 인력을 차출시킴으로써 본 교회는 더욱 전도열에 자극을 받아 결과적으로 본 교회나 개척 교회나 둘 다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박사의 소신이다.

#### 10. 형식을 탈피한 예배

본 연구의 10대 교회는 교회 예배에 있어서 의식 배경의 경향을 띄고 있다. 주일학교와 교회 예배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혹자는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이 10대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예배에 이끌려 나오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이 10대 교회의 주일 아침 예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 교회의 탈형식(脫形式) 예배는 “탈—예배식(禮拜式)”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들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보면 훈기와 환대의 분위기에 사로잡혀 사람마다 일체의 열등감을 털어버리게 된다. 「잭 하일즈」 박사가 주일 아침 예배에 처음 나오는 당신을 환영해 들이는 것을 보면 삼천명의 참석자들 가운데 유독 당신만이 칙사 대접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이 목회자는 자기의 훈기를 남에게 능히 전달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예배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향을 띄고 있지만 10대 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는 단 교회보다 의식적인 것은 사실이다. 「벤나이스 제일교회」는 송영이 있고, 예배 초대사가 있고 예배 중간 중간에 기도 종결에 대

한 성가대의 아멘송이 있다. 그 반면 「에이크론교회」나 「템플교회」나 「랜드락교회」 같은데 가 보면 아침 예배가 정작 언제 시작되는지 꼬집어 낼 수가 없다. 찬송 지휘자가 강대상 앞으로 나와 두세 찬송을 인도하다보면 성가대원들이 건물 내 사방으로부터 빠져 나와 성가대석에 착석한다. 대인들 짜서 들어오지 않는다. 손에 쥐고 들여다 볼 예배 순서도 없다. 순서는 그 날의 시간 사정에 따라 그리고 목사의 인도에 따라 유동적이다. 교회 생활의 각종 사건을 주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광고단은 빠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의 정기적인 참석을 중용하는 권면의 말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일즈」는 “예배 시간”이라는 개념을 특히 싫어한다. 최근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예배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친다. “제발 발자국 소리 죽이고 강당에 들어오길 말고 들어와서는 껏속말로 말하지 마시오. 인사를 꼭 하고싶거든 손을 꼭 쥐고 남이 듣거나 말거나 ‘은혜 중 잘 있었소?’ 하고 힘차게 말해보시오.” “내가 전심을 다해 설교하는 이유는 사람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의 말이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배자의 심리를 유도하는 따위는 도대체 구미가 없다. “멸망해 가는 자들이 구원 얻는 전도 예배 이외에 하나님을 더 착실히 예배하는 방법이 또 있겠는지 어디 말해보시구려.” 어디를 갖

다 놓아도 당당히 질문할 듯한 그의 표정이다.

### 11. 교회 기구의 단순성

10대 교회의 다수가 교회 기구의 단순성이 그들 교회 성장의 비결 중 하나라고 믿고 있다. “옥수수 농사를 잘 하려면 흡지(吸枝)를 쳐내는 일이라”고 하는 「랜드막교회」 「존 롤링즈」 박사의 말은 이상을 잘 표현한 것이다. 소년 시절에 옥수수 농사일을 거들 때 수수짚에 “여분의 것”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옥수수 알이 잘 영글지 않음을 「롤링즈」는 눈여겨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로 한 조직체 안에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견실한 신앙을 다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롤링즈」는, “과도한 조직은 교회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교회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 사업을 위임 받은 위원들은 처음에는 사업의 취지를 살려 원 목적대로 잘 해 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위원들이 바뀔 때 위원회의 운영 자체를 제일 목적으로 삼게 되고 원 목적인 사업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짐을 실어도 너무 지나치게 실으면 수레가 움직이지 못함과 같이 과도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러나 10대 교회 중 2개 교회는 교회 조직이야말로 성장의 비결 중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 「벤나스제일교회」와 「달라스제일교회」가 그렇다. 「벤나이스제일교회」의 「픽켓」

박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조직과 단연 상위에 [성장 요인으로서] 두고 싶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단일화한 대 조직을 소 단위로 나누어 각 단위에 유능한 지도자를 배치함으로써 상호 긴밀한 협조 아래 운영해 나가는 협력체제(coordinator system)를 취택하고 있다.”

이상 조직면에 대한 10대 교회들의 상반된 견해는 두 가지 이유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교회 역사가 짧을수록 조직을 기피하고 유능한 관리면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이다. 연소한 교회는 그 정열과 지도력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10대 교회 중 현임 목사에 의해 설립된 교회들은 비조직의 경향을 띄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반면에 역사가 오래고 보다 안정된 발전을 거듭해 온 교회는 보다 복합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목회자가 카리스마적 존재로 군림할수록 조직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반면 목회자에게 그러한 면이 결여되어 있을수록 보다 복합적인 체제를 형성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의 카리스마 유무와 교회 역사의 장단은 원리 적용에 관한한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이 10대 교회의 조직의 단순성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설명을 추가한다면 이들 교회는 모두 지도력이 탁월한 목회자에 의해 혹은 그 영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명백한 사실

이다. 목회자가 교회, 주일학교 기타 교회의 모든 종교 교육 사업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 12. 십일조

기백만 달러의 웅장한 고층 건물이 이들 10대 교회 중 몇몇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큰 돈은 대관절 어디서 나오나?”하는 질문이 자연 나오게 된다. 회중 가운데 역만 장자도 더러 있다. 이들 교회 목회자들의 한결 같은 대답은 교회 사업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독지가의 거액 헌금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충성된 소액 연보라는 것이다. 이들 10대 교회 목회자 모두가 십일조를, 믿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의무로 규정짓고 있다. 「하일랜드파교회」의 「리 로버슨」 박사는 자기 교회 교인의 75%가 십일조 교인이라고 한다. 「에이크론교회」 「달라스 빌링턴」 박사는 십일조에 대한 설교를 일년 내내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랜드마크교회」의 「존 롤링즈」 박사는 헌금 시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물론 믿는 사람이면 의당히 십일조를 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공제 이전 전수입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세금 빼고, 사회 보장금을 제하고, 조합 회비 등을 다 공제한 다음의 10분의 1로는 하나님께 별로 드리는 것이 없게 됩니다.” 「롤링즈」 박사는 또 “그렇다고 헌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십일조 이상 내는 것을 의미한다.

「달라스제일교회」의 일년 수입은 같은 규모의 타 교회들

에 비하면 거의 두배나 된다. 이와 같이 교회 재정면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매년 가을에 있는 전교인 상태의 재정 조사가 그 원인인 듯하다. 이 재정 조사는 십방 배전 교인은 교회에 대하여 일년 작정 현금 서약을 하게 된다. 서약 카드에다 각자 서명을 하는데 이때 십일조가 강조되는 것이다.

「템플교회」의 「빅」 박사는 목회 성공의 한 가지 기준으로써 “재정면에 밝을 것”을 꼽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인들로 하여금 목회자와 그 사업을 재정적으로 충실이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건물 증축이나 신축 때 재정적인 수완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며, 셋째 일단 들어온 교회 수입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 박사의 이 첫번째 암시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교인들을 충분히 선도하지 못하는 교역자라면 성공적인 목회자라 할 수 없다. 이 10대 교회가 모두 십일조를 강조한다는 것 외에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 교회야말로 모든 평신도도 하여금 주저 없이 주머니를 털어 아낌 없이 하나님께 바치도록 능히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목회자를 두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 13. 시내 전역을 상대하는 목회

일반적으로 개신교 교회의 사업 범주를 보면 사회 경제적 으로 특정된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10대 교회의 상

장 발전의 요건 하나는 시 전역에 걸쳐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교회 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다. 이 10대 교회는 모든 지역 특성을 벗어나고 있다. 「살러」의 말대로, “우리가 교구(敎區) 목회를 논할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살러」의 이 말은 자가승용차의 보편화, 고속도 및 홍보술의 발달 등을 고려한 것이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면 인근의 같은 교파 교회를 마다 하고 몇 분씩 차를 몰아 자기 취향의 교회를 찾는 사람이 허다한 것이다.

그러나 「살러」와 같은 이런 관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회의 일반적 상황을 보면 지역성에서 탈피 못하고 있음이 전술한 바와 같다. 대개 인근 지역에만 집착하여 회중의 재정 부담 능력도 그 인근 지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10대 교회는 그들의 사역 범위를 전 시 전역으로 확대시켜 각계 각층인을 상대로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 이것이 그들의 특징 중 하나다.

이 10대 교회의 몇 교회는 애초에 노동자 계층으로 건립된 교회였다. 「에이크론교회」, 「캔턴교회」, 「템플교회」가 그렇다.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남부 주에서부터 북부 주공업지대 막벌이군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이 오늘날 이 교회들의 구성 인자를 변모시켰다. 첫째 세월이 흘렀고, 둘째 이들에게 자녀가 탄생되어 북부 주 도시민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임금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이로서 이들 교회는 다시는 하위급 수준의 교회로 분

류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회중 가운데 다수의 전문직업인, 실업가, 교육자 그리고 백만 장자들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들 교회에 끌려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시 전역을 상대하는 목회 지침”이 그 해답이다. 사업계, 교육계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모두 상류층으로 분류됨) 그 대다수가 교회 인근 거주자가 아니지만, 그리고 자기네 인근지역에도 교회들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취향과 수준에 맞는 교회로 차를 몰아 달려올 수 있는 점, 그리고 자기네 사회의 새 교인들을 인도해 낼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잭 하일즈」는 “상류 계급”이란 말을 싫어한다. 자기 교회에 나오는 모두가 상류 사회의 상류층이라는 말을 곧잘 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경제적인 계층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수입의 다과로써 사람의 계층을 구별 짓는 일은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심은 분명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셨으니까.” 「빅」 박사의 말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특정된 구역에 세워져 인근의 특정된 계층을 위하여 봉사활동함을 본연의 목회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교회는 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10대 교회의 성장 원리로서 그들이 전 시를 상대로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특점만 소개한 것 뿐이다.

#### 14. 총체적인 교회 사업

성공적인 종교 교육 사업의 현대적 기준의 하나는 “총체적인 교회 사업의 여행(勵行)”으로 되어 있다. 이 “총체적인 사업”에는 하기 아동 성경학교, 수요일 클럽 활동, 그리고 주일 오후 평신도 생활 실천반 활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10대 교회를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상과 같은 “총체적인 사업” 기준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에이크론교회」에는 하기 아동 성경학교가 없다. 「하일랜드파교회」나 「템플교회」도 마찬가지다. 수요일(비단 수요일만 아니라 한 주간 중간쯤 되어 실시되는) 클럽 활동으로는 개척 소녀단(Pioneer Girls), 신앙 봉사단(Christian Service Brigade), 보이 스카웃 혹은 그와 비슷한 활동이 있다. 그런데 「캐턴교회」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일랜드파교회」, 「템플교회」, 「에이크론교회」 등 교회에서도 수요일 클럽 활동은 하지 않는다.

반면 「맨나이스제일교회」나 「달라스제일교회」는 이 “총체적인 교회 사업 활동”에 있어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제 8 장 「맨나이스제일교회」 참조). 그러면서도 날로 성장하는 주일학교인 것이다.

수요일 클럽 활동이 없는 교회들(10대 주일학교 중)도 주일 저녁의 성경 암송 및 성경 공부 집회는 있다. 또 몇 교회에서는 그런 활동을 일주간 중 어느 날을 택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클럽 활동에 관한 질문을 받자 「캐턴교회」의 「해롤드 해니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이 클럽 활동 때문에 우리 교회 주교 반사들이나 직원들의 목요일 저녁 방문 전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지요.”

#### 15. 세속에서의 분리

복음주의자들간의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교회가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그로부터의 분리를 교인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면 교회 출석인 수의 감퇴 현상을 빚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타협주의적 노선을 따름으로써 지나치게 모덕적 순결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대조적으로 흥왕 참석인 수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간판을 떼고 관람객을 무차별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수입을 올린다는 흥행가적 사고 방식을 혹자는 교회에다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 이 10대 교회의 전부가 매일의 생활 실천면에서의 엄격하고 명백한 모덕율을 평신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세속적인 것” 으로부터의 분리를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주일학교 참석인 수가 가장 높은 「에이크론교회」만 보아도 교회 남녀 학생들의 수영 시간을 30분 간격으로 분리시켜 따로 따로 남녀별로 수영하도록 하는 정도이다. (교회의 하계 캠프 기간 중) 「하일랜드파교회」의 「리 로버슨」 박사는 어느 날 일간신문을 읽다가 자기 교회 어느 여자 주교 반사가 맨스장

에 나가 춤추는 사진을 본 후 그 반사를 주일학교 반사직에게서 파면시켜 버렸다. 10대 교회가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속 분리의 원칙에서는 공통이다.

그러나 세속 분리의 질(質) 문제에 있어서 이 10대 교회간에도 견해 차이는 있다. 예컨대 「달라스제일교회」의 「크리즈웰」 박사의 기준은 그가 소속된 여타의 남침례교회단 교회가 볼 때는 극단적일지 모른다. 「크리즈웰」 박사는 「달라스」시 당국의 주류 판매 금지법 등 시행에 대하여 강단에서 평한 일이 있는데, 그 때 행한 설교에, “자기 집 냉장고에 맥주병을 감추어 놓고 있는 사람은 침례교인이 아니다”라는 말로서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나 성서침례회 소속 교회 중의 몇 교회의 표준으로 볼 때는 「크리즈웰」 박사는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성서침례회 기관지(The Baptist Bible Tribune)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들의 비난은 「크리즈웰」 박사가 남침례교회단원의 몇몇 교회 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바 그 교회들의 세속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그들의 타협주의에 가담하는 의미가 된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달라스제일교회」는 교단 전체의 사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텍서스」주 내의 남침례회 소속 교회만 후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시 이 10대 교회는 지방 교역자 회의와는 어느 면으로든지 협력하지 않는다. 물론 동일교파 내에서의 협력 체제는 유지한다. 그리고 「찰즈 블레어」 박사가 NAE 이사의 한 사람으로 있는 것과 같이 비슷한 신앙 노선의 교역자들과는 합

조하는 몇 사람도 있다. 이들 교회는 교회 협의회(convncils of churches) 지방의회 교역자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 16. 유급 전임(專任) 직원의 수

수년 전에 필자는 신학교 한 강의실에서, “교회는 출석 교인 100명당 1인씩의 전임 직원을 유급으로 채용해야 된다”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통칙은 이들 10대 주일학교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몇몇 주일학교는 이 기준에 훨씬 미달하고 몇몇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달라스제일교회」는 평균 참석인 수 4,500명에 전임 직원이 80명이다. 「에이크론교회」는 5,700명의 평균 참석인 수에 유급 직원이 20명 뿐이다. 물론 이 유급 직원은 목사, 부목사, 또는 보조 목사, 교육부 직원들, 비서들, 관리인들, 전임 인쇄 기술자들, 업무 관리자들 및 전임 요리인(料理人)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추출(抽出)해 낼 수 있다. 즉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교회는 지체 없이 이 사업을 수행할 직원을 채용해 쓴다는 것이다. 방문 전도 사업을 관장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최소한 1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 하겠다.

그리고 제2의 원리가 작용하는 듯 하다. 즉 교회 역사가 아렐수록 그리고 교회 내부 운영면에서 복잡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교회 직원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달라스제일교회」 「크

리즈웰」박사의 참모진 및 「하일랜드파교회」가 그 예라 하겠다. 그러나 「토마스로드교회」는 이 사실과 상치된다. 이 교회는 10대 교회 중 최연소 교회이지만 38명이라는 대 참모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17. 주차 설비

「랜드파크교회」의 「존 롤링즈」박사는 주차 설비를 위한 충분한 대지 확보가 오늘날 대 교회 건립 비결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다.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쇼핑 센터 같은 곳에 가 보세요. 주차장 없이는 손님들을 끌 재간이 없다는 것을 깊이 터득하고 있는 겁니다.” 「롤링즈」박사는 160에이커의 교회 대지에다 포장을 한 주차장을 15에이커나 잡아 놓고 있으며 또 더 늘일 계획으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교회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될 수 있었다고 믿는 한 가지 이유인 것이다.

세계 제일의 주일학교로 급진 발전을 한 「에이크론교회」의 성장 비결 중 하나가 주차 설비를 위해 충분한 대지 확보에 힘쓴 「빌링턴」박사의 안목임을 대다수 관찰자는 시인하고 있다. 현재 교회는 14에이커를 소유하고 다시 21에이커를 세내어 쓰고 있는데 이 모두 주차 시설의 무한한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지금 4,000대의 자가 승용차가 네 군데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랜드파크교회」의 「롤링즈」박사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싼 땅은 비싸게 먹힌다”라는 말로 곧잘 충고해 주고 있다. 아

것은 땅을 조금만 매입하면 비용은 덜들지 모르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 성장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의미이다. 최근에 어떤 청년 목사가 그의 교회로 찾아와 박사의 조언에 대하여 사의를 표했는데 내용인즉 5년 전에 「롤링즈」가 대규모의 주일학교를 세우려면 「플로리더」주로 가서 고속도로변의 10에이커의 땅을 사두라고 젊은이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청년은 「롤링즈」가 시키는대로 한 결과 오랜 동안에 참석인 수 600명의 주일학교를 이룩해 놓았다는 것이다.

### 18. 체제면을 중시하는 교회관

10대교회 연구 중 가장 매혹적인 의제 가운데 하나는 개 교회에 대한 개념이었다. 10대 교회 작자의 교회관과 그에 부응하여 나타나는 시책은 때로 굉장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10대 교회는 개 교회의 체제적인 면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교인된 자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십일조를 내어야 하며 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교회로 인도되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신도들은 교회에 와서 목적 의식을 다시금 공고하고 훈련과 지도를 새로이 받아 교회 밖을 나아가서는 구경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신과 투자로 세워진 조직이요, 건물인 것이다.

교회는 다수(多數)에 역점을 둔 개인의 집합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교회를 하나의 단위로 볼 수도 있다. 개인에 역점을 두면, 자유, 자치, 독창적인 면이 주제가 된다. 교회를 단위로 간주하면, 기율, 목적, 의무 등이 주안점으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10대 교회들은 교회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이다. 10대 교회는 부분보다 전체 조직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다. 조직(개교회)을 발전시키면 개인도 성장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진실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자기의 개인 감정을 희생하여 언제나 순종에 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보면 반(反) 체제적인 교회관이 점차 대두되고 있음을 본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유 안에 행하여 체제적인 자질과 자치적 특성을 마음껏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석인 수를 증가시키려면 개인면을 강조하면 된다는 것이다. 양자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개교회의 조직면이 개개 교인들의 복리를 위해 극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은 대체적인 설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대 교회들은 개인보다 체제면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10대 교회의 모 청소년부 담당 목사는, “군인과 노예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라는 옛 속담대로 행동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잘못된 인도로 너무 버릇 없이 되었다는 것이다. 집단의 요구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하며 경건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드는 것을 보면 이 철학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 교회의 한 연장이냐, 아니면 교회는 사람들의 총합(總合)에 불과하냐? 분명히 이 10대 교회는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비록 아무도 꼬집어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을 교회의 한 연장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 결 론

본 장에 수록된 제 요인은 10대 교회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는 각 항목의 종합 분석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설문은 모두 520개 항목에 달하고 있으나 본 장에서는 다수의 원리를 생략했다. 즉 교회 관리 및 눈에 띈만한 교회 운영면의 원리들이지만 주일학교 성장에 직접 관계(그러므로써 성장 요인이 되는) 되지 아니하는 것은 본 장에 소개하지 않은 것이다.

본 장을 읽으시는 교회 봉사자 제제계서는 이 원리들의 응용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편견 없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 사업 원리가 자신의 이념과 일치한다면 전 원리를 원용해 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먼저 각자의 교회관부터 세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 각인의 교회관이야말로 모든 운영과 성장 원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각자의 상이한 교회관 때문에 본서에 제시된 원리를 적용시킬 수 없는 교역자들이 많을 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 10대 교회의 주일학교 전망은 밝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장래에 있어서의 성장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제12장

# 10대 주일학교 성장의 요인

주일학교 성장 원리는 대개 시행관 착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사업 원리가 적용되어 성공이면 그대로 지속되나, 실패이면 그 원리는 폐기되거나 또는 폐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주일학교가 규모면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책략적인 운영의 빈곤 또는 주교 신장 계획의 미숙 때문이다. 주일학교가 성장하려면 올바른 책략을 세워 올바른 지도자가 선도해 나가야 된다. 다음 몇 가지 요인은 10대 주일학교의 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요성에 따른 순서 배열이 아니고 실문에 따른 것임을 역시 밝히 둔다.

### 1. 인원 수의 중시

10대 교회에서는 인원 수에 대해서 극도의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목회자는 이렇게 말한다. “매주일 아침 잠자리에서 깨어나면 일기가 좋은지 불순한지 그것부

더 마음이 쓰인다. 눈이나 비가 오면 주일학교에 얼마나 출석할지 그것부터 마음에 켜기고 걱정이 된다.” 10대 주일학교 중의 또 어떤 목사는 일기 예보에 대한 신경을 다음 말로 묘사했다. “열 아홉 방울의 빗방울은 20명의 교인을 주일학교에 불참케 만들지요.”

주일학교 인원 수에 신경 쓰는 문제에 관하여 「리 로버슨」 박사는, “물론이죠. 나는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무엇보다 숫자지요. 흔히 보면 양보다 질에 관심이 더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그 하나도 숫자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숫자의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 「로버슨」 박사는 수를 강조하는 교회는 실제 그 사업을 보면 질(質)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해먼드제일교회」의 「잭 하일즈」 박사는 1969년 4월 「크리스천라이프」지 주최로 열린 “목회자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원탁 토론회 때 교인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 그 때 그는 자기 교회 교인은 다른 어느 교회 교인보다도 견줄 수 있고 그 비교에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그가 수(數)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로써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남녀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지옥불(the flames of Hell)이란 개념을 나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리고 지옥불이 영원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템플교회」의 「빅」 박사는 성경의 사실을 지적하여 수에 대한 그의 역점을 합리화 한다. 그는 주의 제자가 12명이었으나 나중 사도행전에서는 120명, 다음에는 3,000명이 되고 결국에는 5,000명 이상이 교회에 더한 사실을 지적한다. “내가 수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그같이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빅」 박사는 말한다.

또 다른 10대 주일학교 목사 한 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텅텅 비어 있는 회중석을 향하여 설교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성경적인 것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하려 합니다”라고 말한다.

「스펠존」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다. “다수(多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그 다수를 언제 가도 확보하지 못한다.”

많은 청중들만 확보하기에 여념이 없는 듯한 이 10대 주교 목회자들을 가리켜 과욕(過慾)이다. 또는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필자는 많이 듣는다, 그러나 이 10대 주교 교역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수에 대한 역점은 자기 평생에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중소 교회 교역자들이 이와같은 제일의적인 목적을 제이의적(第二義的)인 것과 뒤바꾸어 혼동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즉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순수한 동기보다 외형적인 대 주교 건설에만 급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10대 주일학교 교역자

들은 잃어버린 자를 최대한의 가능한 숫자로 그리스도께 인도해 내려는데에 주 관심과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의적인 동기요, 제의의적인 것이 대규모의 주일학교 건립인 것이다.

## 2. 주교 학생의 등록 및 그 후속적인 심방 활동

10대 주교 중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의 체계적인 발전 확장 사업의 하나로 “주교 학생 더 많이 등록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달라스제일교회」 전도부 담당 목사인 「제임스 브라이언트」 박사는 “등록인 수는 참석인 수보다 더 중요하다. 등록인 수가 상승하면 참석인 수는 자연적으로 그에 따라간다.

그러나 참석인 수가 증가한다고 등록인 수가 붙어 나가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남침례회 교단의 전통적인 주일학교 이론이다. 그러나 최대 규모의 주일학교인 「에이크론교회」는 등록인 수에 관심이 없다. 10대 주교 중 어떤 주교는 일정한 주일을 기준해 볼 때 등록인 수가 참석인 수에 훨씬 미달이다.

등록이란 것은 주교 학생의 명단을 명부에 올리는 것이다. 어느 주일학교든지 주일학교 명부에 학생의 명단을 올리는 일은 간단하다. 그러나 등록의 유일한 의의는 결석자 심방에 있는 것이다. “명단이 주교 명부에 올려졌다 하면 그 학생은 주일학교에 다시 나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 학생이 결석을 하면 우리는 그를 뒤쫓아 심방

을 하니까요”라고 어떤 목사는 말한다.

어떤 교회는 이 심방을 가리켜 “결석자 심방 (absentee follow-up)”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신입자(新入者) 방문 (prospect visitation)”이라고도 하며 또는 불신자 방문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하여간 10대 주일학교 전부가 이와 같은 활동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방문 사업을 벌이지 않는 편인 「갈보리교회」나 「토마스로드교회」 같은 데서도 이 후속적인 사업 (follow-up plan)만은 고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 3. 교사 대 학생의 비율

주일학교 원리의 한 가지 기초는, “등록자 수는 교사에 대한 10대 1의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J. N. Barnette). 이것은 보통 교회 주교 학생 수가 교사의 열배가 된다는 뜻이다. 「바넷트」 (Barnette)는 이 원리의 절대성을 확신하여, “비상한 노력에 따라 교회가 일시적으로는 이 비율 이상의 학생을 모집할지 모르나, 그 운영상 난점은 수개월 이상으로는 더 지탱하지 못하도록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10대 주교의 대부분이 이 엄격한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 교사의 비율이 훨씬 낮은 교회가 많은 것이다. 3,500명 이상의 주교 참석인 수를 가진 「캔턴교회」는 이 원칙대로 하면 350명의 주교 교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210명에 불과하다. 주교 참석인 수 3,400명인 「템플

할 수 있다. 자신의 웹페이지와 의견 나눔방 등을 통해 서로 소식과 의견을 나누고 유대를 강화하면 된다. 처치 커뮤니티 빌더(Church Community Builder) 같은 단체는 인터넷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보다 세운다는 전제에서 세워졌다.

인터넷은 지식을 전하는 데 사용된다

인터넷은 정보다. 정말 이게 전부이다. 0과 1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글자와 그림, 다른 미디어를 형성하며 정보를 만들어 낸다. 이런 정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현재 내(에드) 아이팟에는 매일 아침마다 듣는 신학박사 과정 수업 5개와 하루 종일 듣는 음악, 「모닝 디보션 *Morning Devotion*」(큐티 책)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여러 편이 들어 있다. 나는 대부분의 정보를 팟캐스트에서 얻는다. 이제 출판물로는 더 이상 정보 수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도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가.

인터넷은 제자 훈련에 사용된다

제자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 정보의 전달도 제자 훈련의 능률을 높여준다. 물론 정보 자체가 사람들을 제자 훈련과 그에 따르는 인생 변화로 끌어간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과정에 도움

이 될 수는 있다. 말씀을 배우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배울 때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 고려해야 할 점

요즘 인터넷 교회들이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는다 해도 실제 살아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체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회에 대해 단순히 면죄부를 주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 근거 또한 찾기 힘든 상황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히 10:25),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롬 15:7),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않고(엡 4:2),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고(엡 5:21), 다른 사람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면(고전 5:9)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신약성경은 '타인'에 관련해서 59개의 명령을 갖고 있다.<sup>22</sup>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문자 메시지 같은 것으로 몇몇 경우는 해결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 일은 문자 메시지가 유일한 소통 수단일 경우 더 더욱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상한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아픈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만지셨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졌다. 그리고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능력이 예수님으

로부터 그들에게 나갔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그룹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합동으로 찬양하고, 침례를 주고, 성만찬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같이 읽기를 명하기까지 한다(딤후 4:13).

아직까지 사이버 교회로만 존재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될지 그 가능성은 잘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일 때라도 거기에는 고려하고 우려해야 할 점들이 있기 마련이고 결국 사이버 교회와 관련해서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가 주가 되겠지만, 미디어가 어떻게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먼저, 사이버 교회들은 주로 정보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정보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특히 몇몇의 복음주의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 라디오, 교사, 교재, TV 설교자, CD, DVD를 갖고 있다. 요즘에 인터넷 나눔방, 팟캐스트, 리스트 서버, RSS 피드 등 각종 인터넷 도구들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거룩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이버 교회는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에 반박하면서 “사이버 세상에서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온라인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이 문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입장을 같이한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형성했

던 관계와 온라인에서 맺은 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온라인 경험이 사람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강화시킬 수는 있어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사이버 교회는 헌신을 덜 필요로 한다. 인터넷의 본질이자 매력은 익명성에 있다. 사람들은 팡파르를 울리지 않고, 전혀 알리지 않고 슬쩍 들렀다가 바로 나갈 수 있다. 교회는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연단’ 시키고 서로 ‘공동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앞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많은 사이버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과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미래의 사이버 교회들은 아래와 같은 모습을 띌 수도 있다(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법도 포함된다).

-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하고 각자 전자 이름표를 받게 된다(아니면 비슷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다 준다).
- 사람들은 출석부에 출석을 체크하는 대신 전자 출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매주 출결 상황이 자동적으로 체크되며 이 사항은 소그룹 리더들과 목사들에게 이메일로 자동 발송된다.
- 소그룹은 걱정거리, 기도요청, 정보 교환 등을 온라인 그룹 공동체 나눔방에서 나누게 된다.

- 사람들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 도구들을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 그들은 특별히 어떤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 결정하고, 그 부분에 더 많은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
- 성도들이 각각 어떤 영적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기록되어 각자 필요한 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도와준다.
- 십일조를 자동이체한다.
- 교회 사람들은 RSS 피드 형식을 통해 교회 공동체 블로그를 읽는다.
- 설교나 소그룹 강의, 팟캐스트나 비디오를 매주 제공받는다.

기술은 도구이다. 교회는 이 도구를 수용하는 데 항상 늦은 편이었고 이 사이버 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를 세우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기술을 사용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적 공동체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

##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

Nickelodeon-Style Children-Focused Churches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 19:14-15

나(엘머)는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는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의 교인이다. 최근 이 교회는 4층 높이의 커다란 목재 구조물을 세웠다. 이는 맥도날드 운동장의 두 배 크기로 주일학교 전후 시간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졌다. 매일 정오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 놀이터의 끝도 없는 터널 안에서 기어 올라가고, 매달리고, 그네를 타고, 기어 다니는 동안 부모들은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사자와 양'이라는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역자 주 | 니켈로디언 교육 방식: 오락적, 시청각적, 체험 중심적 교육 방식

나는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인 로버트 레이크스가 살아 돌아온다면, 거대한 목조 구조물과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 진지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해 보았다. 레이크스는 이 같은 새로운 주일학교를 보고 심장마비에 걸릴 정도로 놀랄까? 레이크스 자신도 1780년대 주일학교를 위해 쓴 방법에 대해 미쳤다고 평가받을 정도였기에 그렇지 않으리라 본다. 그는 아이들이 잠언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에 금화를 걸기도 했고, 책이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그 시대에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제아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나무에 묶어 두었다.

어린이 교회교육은 시작한 지 200년이 지난 것으로 딱히 새로운 일이 아니며, 우리 교회만이 어린이 특성화 접근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 교회의 큰 나무 구조물과 이와 비슷한 다른 교회의 외관상 이목을 끄는 시설들,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고 주일학교의 새로운 면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각종 크기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의 삶에 복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 노스포인트 : 어린이 사역의 선구자

조지아 북부 노스포인트 공동체 교회의 어린이 목회에서는 업스트리트에 70분간의 '니켈로디언 스타일' (Nickelodeon, '5센트짜리 극장'이라는 뜻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전문 케이블 - 역자 주)의 주일학

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는 2,000명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중 '키드스터프(KidStuff)' 라는 45분용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서로 안 어울리는 두 명의 진행자와 몇 명의 엉뚱한 배우들, 감칠맛 나는 비디오와 재미있는 이야기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은 모임에 참여하여 다중매체를 통해 성경을 빠르고, 시끄럽게, 어린이의 수준에 맞추어 배우게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부모 교육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일 아침마다 모든 행사들이 성대하게 행해진다. '재미있게, 재미있게, 재미있게'란 규칙에 따라서 이 교회는 소위 '최종 결론' (노스포인트가 만들어낸 단어로서 아이들이 매주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신앙원칙들 -역자 주)이란 생활 원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친다.

노스포인트 공동체 교회의 어린이 사역 책임자인 켈드라 플래밍에 따르면 모든 아이들이 알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매주 주일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축하하는 큰 파티를 연다.

둘째, 모든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믿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업스트리트'란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소그룹 친구들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면서 재미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켈드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린이 소그룹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방에는 지름이 약 5피트 정도 되는 동



그란 깔개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바닥에 앉아서 더 친밀한 소그룹 모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켄드라는 힘주어 말했다. “소그룹에서 인생의 변화가 가장 잘 일어납니다.”

셋째, 같은 소리를 내는 부모들의 목소리이다. 소그룹에서 교사들이 아이들과 단순히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일에도 상당히 열정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매주 ‘업스트리트’나 ‘키드스터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최종 결론’이라 불리는 가르침을 가지고 가도록 한다. 이들의 홍보 책자를 보면 “우리는 모든 걸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위해 최소로’ 가르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매주 업스트리트에서 같은 교사와 같은 친구들과 같은 시간대에 같이 관계가 형성되어 아이들은 매주 ‘최종 결론’이라는 한 점으로 서로 연결된다. 이 ‘최종 결론’은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바로 보이는 벽면에 붙어 있고, 교사들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아이들이 떠나기 전 이 내용은 부모들에게 전달된다.

넷째, 모든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매번 확인하는 부모가 필요하다. 이 교회에서는 부모들을 자녀들과 같이 키드스터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이번 주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후 이것을 가정 예배시간에 적용하게 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키드스터프’ 프로그램에서는 ‘드롭 오프’(부모들이 교대로 아이들을 차로 데

려다주는 일 -역자 주)를 의도적으로 없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모든 학부모를 매번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아이들과 부모 중 한쪽이라도 빠지면 아예 프로그램에 참석시키지 않았다. 단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다면, ‘업스트리트’에서는 부모와 아이들이 분리되지만 ‘키드스터프’는 가족이 함께한다.

다섯째,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삶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세상적이지 않은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교회는 성경이 지겹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매주 ‘최종 결론’을 갖고 집에 돌아가서 이것을 기억하게 한다. 인생은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그 모습대로 자라나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금방 심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심대가 되는 데 364주 정도면 된다. 교사들은 모든 아이들이 3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대해야 한다. 따라서 매주 교사들은 아이들을 현명한 판단으로 이끌어 줄 한 가지 중요한 기본 원칙을 가르치며 예배의 모든 성경 말씀과 모든 예화와 찬송들은 3가지 원칙을 부각하도록 한다.

켄드라는 말했다. “우리는 ‘최종 결론’을 모든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칠판에 써놓고 매주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그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수업마다 한 가지 원칙만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집으로 가져가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업스트리트의 소그룹은 평균적으로 8~10명의 학생들, 그리고 그날의 성경 모임을 이끌 어른 한 명으로 구성된다. 켄드라는 “아이들은 교사들과 잘 연결되어 있으며 교사들은 성경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라고 말했다.

과거에 이들은 소그룹을 위해서 탁자와 의자 같은 가구들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곧 이 가구들은 다루기 힘들고 관계 형성에 있어서 거치적거리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가구들을 치웠다. “바닥에 앉아서 모임을 갖는 게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켄드라가 말했다.

아이들이 ‘업스트리트 프로그램’을 마치고, 부모들이 장년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는 부모들에게 “키드스터프에 결석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이는 ‘키드스터프’는 오직 아이들만 참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 배운다.

노스포인트의 어린이 사역은 참석률에 큰 비중을 둔다. 교사진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더 큰 비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결석하는 것보다 ‘키드스터프’에 결석하는 것이 더 최악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부모들에게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이 배움을 집에서도

공부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서약을 받는다.

부모들이 장년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업스트리트에 있는 동안 교사들은 업스트리트의 70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 10.6분 : 예배 준비하기
- 12.4분 : 말씀 듣기
- 15.1분 : 찬양
- 6.3분 : 기도
- 24.9분 : 친목 도모와 무엇을 배웠는지 나누기

교사진은 “우리는 전체 45분 중 나머지 0.7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위의 시간을 다 합치면 45분에서 0.7분이 모자라다)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라고 말한다.

켄드라는 말했다. “우리들은 교육에 있어서 세서미 스트리트식(Sesame Street: 매우 인기 있었던 인지적 접근 방식의 어린이 프로그램 -역자 주)이나 디즈니식의 엔터테인먼트적 접근방식은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니켈로디언 접근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도록 이끌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 관여하기

어린이 목회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 이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학교 수업 오디오 파일을 홈페이지

이지(www.parentconnection.org)에 올려놓고 부모들이 다운로드한 후에 이에 대해서 자녀들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점프 스타트’란 프로그램은 30분의 특별한 발표 시간으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한다. 과거에는 이것을 성경 발표나 어린이 예배 수업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점프 스타트’는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다고 결정 내린 시기에, 부모들이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인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한 아이들과 십대 청소년들을 축하하기 위해 일 년에 몇 번씩 가족 생일 파티를 열어 준다. 아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에 맞는 크고 성대한 파티를 열어 주는 것이다. 집에서의 생일 파티처럼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침례받는 것을 축하해준다.

일 년에 두 번, 교사진은 ‘키드 벤처’(Kids Venture)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는 주일 아침에 각 그룹 교사와 아이들이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 부모, 소그룹 교사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가족 애깃거리’란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의 성품과 믿음에 관한 일화,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 주 ‘업스트리트와’ ‘키드스터프’에서 배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가족 애깃거리’는 식사시간의 좋은 대화거리이며 아이들을 재우기 전 읽어줄 만한 좋은 성경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것은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다.

여름마다, ‘업스트리트’에 속한 아이들은 ‘서머 크레이즈’(Summer Craze)란 특별한 프로그램에 초대된다. ‘키드스터프’가 여름방학 동안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정규 ‘업스트리트’ 시간대에 대학생 인턴들로 구성된 특별 팀이 연극, 음악, 각종 활동들을 제공한다.

### 시청각적 환경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플로렌스 침례교회에는 2,000명이 넘는 교인과 약 1,5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인다. 유치부(2~5세)에는 18가지 테마 방이 있는데 각종 거리 모양, 언덕, 정원,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집,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지붕, 앉을 수 있는 보트, 올라앉을 수 있는 바위들로 꾸며졌다. 크리스천 디즈니랜드 같은 느낌이다.

유치부 책임자인 리즈 루이스 부인은 교실들을 아이들 인생에 변화를 줄 만한 배움의 공간으로 개조하는 데 수천 달러가 들었음을 알려 주었다. 루이스 부인은 “아무리 새 건물을 짓고 새 장비를 갖추고 아름다운 그림을 걸어도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에 대한 가르침의 능력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죠”라고 말했다.

방에는 아이들이 성경 속 상황과 성경 속 시대의 일상을 상상할 수 있고 성경을 보도록 장식이 되어 있다. 루이스 부인은 말한다. “이 방의 외관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같이 놀고, 성경 이야기의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 교사 훈련, 시설 안전,

위생 점검, 아이들과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 의 결과입니다.”

아동부 책임자인 에이미 가일스는 부모들 중 젊은 엄마들 층이 아이들에 대해 가장 걱정이 많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 자녀들이 교회에서 울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겠거니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캡틴스 갤러리에 있는 보트에 올라타려 막 뛰어가거나, 시소 빌리지의 나무 위의 오두막집으로 열심히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된다. 물론 몇몇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말 만족하는지 보려고 살그머니 통로까지 나와서 자녀들의 모습을 엿보기도 한다. 이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교사들의 교육 동역자가 된다.

2006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이 교회에는 18개의 테마 방이 있고, 출석 인원은 195명, 2~3세 아이들 담당교사는 36명, 4~5세 담당교사는 15명이다. 어린이 시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1. 캡틴스 갤러리 : 양철 지붕 집들이 늘어선 선착장의 모습을 본뜬다. 한쪽 벽면은 부두에 있는 집 내부같이 판지로 싸여 있다.
2. 시소 빌리지 : 큰 나무 위에 있는 오두막집 모양이다. 작은 지붕과 함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베란다가 있으며 양 옆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모래 놀이 통도 있다.
3. 메인스트리트 : 나무 지붕의 깨끗한 집, 하얀 차선이 잘 그려진 길, 가로등, 소방서 그리고 이와 어울리는 벽지로 꾸며져 있다.
4. 회전목마 코너 : 회전목마의 단면 모양이다. 화려한 색깔의 마차

와 이와 어울리는 배경 벽지로 되어 있다.

5. 선사인 급행열차 : 이 홀은 오래된 기차역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급수탑, 승무원용 차, 매표소와 손님 대기 의자가 있다.
6. 우정 마을 : 이 홀은 작은 교회와 마구간, 집들과 말, 개, 고양이 등 동물이 있는 공간이다.

### 주일 성경 공부의 역사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에는 지난 20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체서미 스트리트’의 세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도 ‘체서미 스트리트’, ‘니켈로디언’, 디즈니 방식 — 오락적이며 시청각적 교육 방식 — 으로 해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러한 교육 방법이 주는 기회를 살펴보자.

로버트 레이크스의 시대에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몇 번 소리 내서 읽게 한 후 교사들은 그들이 방금 무엇을 읽었는지를 물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대한 교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그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알려줬다. 현대 교육은 오락적이며 시청각 교육을 차용하기 때문에 성경공부에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한다. 학생들은 여러 감각(시각, 청각, 촉각 등)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며, 여기에는 최신식 세트, 의상 그리고 전자 정보와 기술이 총동원된다.

교사들은 성경시대의 의상을 입고 팔레스타인 마을 등의 성경적 배경을 방 안에 조성한다. 인조 잔디나 수풀, 디즈니랜드의 인조 돌, 잔디 카펫, 성경 장면을 그린 호수, 강가 배경이 프린트 되어 있는 깔개 등이 놓인 곳에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게 된다.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주일 성경 공부 방법은 아이들에게 성경 스토리 북(성경 이야기 모음집 -역자 주)을 읽히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랭커스터 방식(랭커스터는 영국의 교육 선각자로서 학생이 어떤 내용을 배운 후에 그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전달하게 하여 다시 한 번 내용을 익히게 되는 반복적인 '학생 교수법'을 고안해냈다. -역자 주)을 도입하여 아이들을 가르친다. 교사들은 먼저 아이들이 일어서서 본문을 소리 내어 읽게 한 후 '수업을 듣도록' 하며 그들의 발음을 고쳐 주고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준다. 읽기가 끝난 후에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조 교재에 나온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학생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읽은 본문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한다.

나(엘머)는 주일학교 연합에서 1815년도에 발행한 첫 책자를 서재에 비치해 두었다. 그리고 300여 권 정도의 주일학교 교재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일학교 초창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주일학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1900년경 자유주의는 주일학교 교재에도 영향을 미쳤고, 독립 출판사들은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 때 교사용과 학생용, 두 종류로 만들었다. 교사용 지침서는 교사들이 본문을 잘 익혀서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학생들은 학생용 교재를 통해서 성경

스토리 북의 긴 이야기를 읽을 필요 없이 교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듣기만 하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강의를 통한 성경공부는 주일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공부의 두 번째 시기다.

약 100년 후 니켈로디언식 접근의 주일학교가 몇몇 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접근 방법은 전체 커리큘럼에서 학생들이 시청각적 경험을 하도록 맞춘 것이다. 이는 주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소통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접근 방법을 성경 공부에 적용한 것이다. 학생들은 신체적 감각과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된다. 그들은 웃음으로서 기독교인의 기쁨을,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기독교인의 사랑을, 배움으로 기독교인의 희생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독교인의 감사함을 배우게 된다. 이렇듯 그들은 성경 내용 그 이상을 배우게 된다. 성경 안의 경험이 그들의 삶의 체험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들은 성경의 문자적 내용 이상을 배우게 되고 성경적 태도와 성경적 우선순위,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

방은 성경 속 장면들로 꾸며 놓았다. 어떤 방은 팔레스타인 마을로 꾸며졌다. 납작한 지붕, 화단, 팔레스타인 시장 거리나 길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로 꾸며 놓았다. 학생들은 이 팔레스타인 거리를 건다가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붕까지 올라간다. 아이들은 자유분방함과 창의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건축 기술과 목공 기술까지 관찰을 통해 배우게 된다.

다른 방은 팔레스타인 언덕 중턱을 연상케 하는 기울어진 노면이다. 풀을 연상케 하는 인조 잔디 카펫이 깔려 있고 모조 수풀에 모조 바위까지 있다. 아이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처럼 이 비스듬한 언덕 주변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러한 시청각, 입체적 주일학교는 세서미 스트리트 세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세서미 스트리트의 인형들이 쓰레기통에서, 창문에서 그리고 세트장의 이곳저곳에서 툭툭 튀어 나오는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교회가 이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 기대하는 것을 주일학교에서도 보고 즐길 수 있다.

### 70년대의 전환

나엘머는 「국내 10대 주일학교와 그 성장 비법 *The Ten Largest Sunday Schools and What Made Them Grow*」을 쓰다가 남부침례교회의 주일학교와 독립침례교회의 주일학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sup>1</sup> 남부침례교회는 A. V. 와시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와시번은 처음으로 주일학교 방침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1대 10일 때 등록과 참여율이 균형 있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sup>2</sup> 결과적으로 남부침례교회 학생들은 큰 홀에서 준비 활동을 하고, 그 후 그룹별로 나뉘어져 10평방피트의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모임을 갖는다. 이때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1대 10이 가장 이상적이다.

남부침례교회의 주일학교는 교사들과 학생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졌고 학생들은 나이별로 나뉘진다. 학생들은 또래 아이

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이별로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가 가르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반면에 큰 독립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 ‘마스터 교사’란 전략을 사용했다. 이는 그들의 성공적인 버스 사역으로 매주 교회에 오는 학생들의 수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버스 사역자들은 토요일에 가가호호 다니면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태워다주기로 하면서 교회로 초청한다. 그들은 상당히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었고 주일 아침이면 버스는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교사와 학생 비율이 1대 10이 될 만큼 교사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실용적으로 ‘마스터-교사’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이 구상은 가장 훌륭한 교사 한두 명만이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1대 50정도가 된다. 실제로 나는 한 명의 교사가 한 방에서 최고 2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 교사는 특출하게 뛰어났다.

이러한 마스터 교사 접근 방법은 최대한 다양한 학습 도구를 동시에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효과적이다. 마스터 교사들은 비디오, 영화, 슬라이드, OHP와 프로젝터 등을 사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한다. 또한 세서미 스트리트에서나 볼 만한 세트장에서 인형놀이를 위한 플랫폼도 사용한다. 마스터 교사들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음악과 오디오 환경을 조성하고 의상을 입고 짧은 연극을 통해 학생들에게 신약 이야기를 전달했다. 또한 다윗의 물뭍돌, 목자 막대기, 플라스틱 뱀, 죄지은 여자에게

던졌던 돌 등 학생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든 것을 보조기구로 활용했다.

나는 이러한 마스터 교사들이 조각배에 앉아서 어떻게 제자들이 폭풍우에 반응했는지를 가르쳤던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다. 또한 살아 있는 당나귀에 걸터앉아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설명하고 무화과 하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올리브로 올리브나무에 대한 일화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나는 포도나무, 밀 한 줌, 그날의 메시지를 그려 놓은 깃발 등을 보았다.

### 무엇이 매력일까?

그렇다면 이 방법들은 어떻게 작용하고 이 방법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끄는 것일까?

이러한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좋아한다. 아이들이 오고 싶기 때문에 부모들도 덩달아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나는 요즘 여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에드)에게는 딸 셋이 있는데, 2명은 유치원생이다. 아이들은 '노스포인트'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하는데, 내가 앤디 스탠리 월드 도로변에 위치한 고등학교 안에 교회를 개척할 때 딸아이가 이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이 좀 씩씩하긴 했다. 새 교회의 아동 프로그램은 상당히 단순하다. 몇 명의 교사와 깔개 몇 개와 몇몇 활동뿐이었다. 우리는 이 노스포인트의 화려한 컴퓨터 기술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인

데……, 아무튼 그들은 정말 훌륭하다.

아내와 내가 딸들을 개척한 교회로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말했다. “우리 거기로(노스포인트)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거기 정말 좋던데. 우리 언제 데이브 선장을 다시 보는 거야? 나는 왜 캡틴이 못 되는 거야, 아빠?” 간단히 말해서, 아이들은 '노스포인트'를 사랑했고 그것이 그 교회의 매력 포인트였다. 내가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소규모 교회가 좀 더 작은 규모로 비슷한 접근을 하더라도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절제'를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가만히 앉혀 놓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할지 모른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는 없다. 이들은 영성과 엄숙함을 같은 것으로 헛갈리고 있는 부류이다. 아이들은 기쁨의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주일학교가 끝난 후 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러 와서는 매번 자녀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첫 번째로 “재미있니?”라고 묻는다.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들으면 두 번째,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질문을 한다. “오늘 뭘 배웠어?” 이 두 질문은 어린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우리의 목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을까?(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모습대로) 또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을까?(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대로) 이제 이 교회의 장단점을 좀 더 살펴보자.

## 어린이 사역에서 배워야 할 점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장점은 이러한 접근법이 시청각 세대의 아이들에게 강하게 어필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온라인 게임에 수천 달러를 쓰며, 시청각 교육을 하는 학교에 다니게 하고 전산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는 사람이다. 따라서 상당히 의욕에 넘치는 학생이라도 주일학교의 단조로운 전통적 방법으로 접근하면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의 방법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더 배우고 싶도록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교육 이론가들은 이미 30년 전에 아이들은 단조롭지 않은 환경에서 더 잘 배울 수 있음을 밝혔고 이를 몇 교회들이 받아들였다.

두 번째 장점은 주일학교에서 하는 체험 교육이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지 그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어른들도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의 전체 스토리를 보게 된다. 이렇듯 상황과 환경을 배우는 것으로도 교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에는 배움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각종 걸림돌이 아예 처음부터 없다는 사실이다. 전통 교회가 1950년대에나 쓰였을 만한 플라넬 판(부직포로 성경 인물을 만들고 그것을 판에 붙여놓고 이것저것 설명하는 방식 -역자 주)같은 시대착오적

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하면 당연히 문화 쇼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달리 니켈로디언 주일학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며 주의 집중을 위해 아이를 어르지 않아도 된다.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구원은 지성, 감정, 마음의 결정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니켈로디언 교회 방식은 먼저 아이들의 머리에 복음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그 후엔 그들의 감정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설득한다.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나이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이다.

내(에드)가 이끄는 미션 리서치 센터에서 아동 침례율이 높은 교회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연구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후 거의 자발적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데 성공한 반면 어떤 교회는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이 연구에 대한 모든 자료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www.missionalresearch.info](http://www.missionalresearch.info)). 우리는 약 300개가 넘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크기 1 : 46명 (자발적 침례 아동 수) (정주 교인수 0~69명)

크기 2 : 59명 (정주 교인수 170~324명 사이)



크기 3 : 98명 (325~622명 사이)

크기 4 : 101명 (623명 이상)

총 : 304

우리는 각 사이즈의 성공한 교회들이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담임목사가 협조적이었다. 연구원 필립 코너는 “어린이 복음화에 성공한 교회들은 담임목사가 어린이 사역에 ‘매우 협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렇지 못한 90퍼센트의 일반 교회들도 담임목사가 어린이 사역에 ‘매우 협조적’ 이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회 크기에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적고 있다.<sup>3</sup> 앤디 스탠리나 빌 먼로 같은 목사들의 경우 어린이 사역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 대형 교회는 켈드라 플래밍의 방법을 비슷하게 따르고 있다. 이들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형 교회는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 어린이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다. 45퍼센트의 대형 교회가 이것이 그들의 철학이라고 답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37퍼센트도 어린이의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그들의 교육 철학이라고 답했으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예비·성인 과정과 부합되기를 희망했다.<sup>4</sup>

여러 연구와 관찰은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가 다른 교회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가르침으로 아이들에게 도전을 준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그들의 편으로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다가가며, 최종점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이다.

내(에드)가 살고 있는 북조지아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편이다. 아이들이 그들의 우상이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간다. ‘노스포인트’는 이 점을 잘 이용했다. 이러한 식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복음을 분별하고, 만나고, 알리는 것은 2000년도 더 된 복음 전파 전략이다. 그러나 교회가 당시 문화에 따라 전도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물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도의 기회이기도 하다.

항상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주는 것을 비난해 왔다. 우리도 이러한 비판을 조심스럽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문화와 발맞추어 가는 교회는 그들만의 영적 전략도 갖추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 생각해야 할 점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자극, 체험이 압도적으로 재미가 있

다 보니 정작 기독교의 형식적, 교리적 부분은 최소화 된다는 것이다.

체험함으로 배우는 것이 니켈로디언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교육의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진실은 꼭 경험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의 경우, 전적으로 경험을 통해 삼위일체를 알게 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성경적 기독교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경적 기독교를 경험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주일학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중에는 경험에 의한 교육을 받은 니켈로디언 세대들이 보기에 재미없는 역사 부분과 지겨운 교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이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여부스족(다윗 왕이 몰아낸 가나안 족속) 이야기는 ‘밥 더 토마토’ 만큼(Bob the Tomato: 토마토, 오이 등의 야채 캐릭터들이 나와서 성경 얘기나 여러 일화 등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역자 주) 재미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최종 목표이지 아이들을 단순히 즐겁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가 직면한 세 번째 도전은 성경 말씀에서 섬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많은 성경 경험들 속에서 극히 일부만이 아이들 머리에 스쳐 지나가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작고 세밀함에 계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밀함을 통해서 광범위한 성경 원칙들이 형성된다.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한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사 28:9). 그는 배우는 자는 ‘젓 먹이가 젓을 사모하듯이’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이 영적 아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벧전 2:2) 말하면서 성경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세세한 사실들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사 28:10). 주일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교사들이 이런 신학적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야 한다. 이것은 성경 지식과 체험이 함께 가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이 둘 모두가 필요하다.

복음은 이야기이다. 복음은 한 동산에서 시작하여 도시에서 끝난다. 구원의 드라마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한 막, 한 막 펼쳐진다. 주의할 것은 성경 이야기들이 그 성경 자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크기다. 많은 아이들이 넓은 장소에서 교육받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개인적 관계 형성은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는 교육에서 생명이며 핵심이 아니겠는가?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는 성경 지식을 체험케 하는 경험에 의존하는 반면, 전통 교회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잘 연결되어 사랑을 주고받으며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관계 맺음에 집중한다. 교사들은 학생들 머리와 정신에 정말 성경이 명확하게 들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예수님도(경험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하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심으로 말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셨던가?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는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미션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하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효과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으로는 높은 수준의 기획력을 들 수가 있다. 이 기획력으로 교회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들을 잘 활용하게 되며 뛰어난 기획력은 목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기획력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것에 사람들은 도무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인생의 큰 변화를 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교회들은 약간 다르다. 그들은 아이들이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과 잘 교통하며 잘 살펴봐 주는 성인 리더(혹은 학생들보다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학생들)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다. 효과적인 어린이 복음전파의 열쇠는 피자를 사주고 번쩍거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멘토링에 달려 있다.<sup>5</sup>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가 직면한 문젯거리들에 대한 마지막 관찰을 해 보자. 교사들은 특별 주문 제작된 의상을 입고 성경의 인물을 연기하는 등 말씀을 극적으로 전달한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매번 그들 앞에 서서 연기하는 배우 같은 교사들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일상에서의 진지한 멘토를 떠올릴 수 있을까? 반면에 어머니 같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사업가 아버지 같이 복음을 힘 있게 전하는 선생님, 그런 교사들은 실제 학생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쉽게 호환이 된다. 교사의 삶은 가르침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

이런 감각과 체험 중심적인 어린이 목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를 사용하실까? 우리는 그렇다고 믿는다. 교회는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여러 가지를 써놓았지만, 아직 철학적인 면을 다루지 않았다.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는 과연 잃어버린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교회들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준만

비현실적으로 높이는 것일까? 교회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특정한 장점을 기반으로 세워지게 되면, 특히 그 점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을 그 교회로 이끌기는 쉬워진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는 정확히 이러한 경우이다. 이런 교회는 부모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어필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 매력적인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될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에 끌리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에 끌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작은 교회의 신자들이거나 몇몇 비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비기독교인은 역동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에는 끌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비기독교인에 있어서 교회보다는 지역 카지노가 훨씬 매력적인 것이 현실이다. 카지노가 우리에게 흥미있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지노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비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는 교회를 찾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관심을 가진 불신자들의 주의를 끌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데 비하여 교회는 사회의 비기독교적 분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같은 교회 메시지지만 '더 나은 버전'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마음을 열었던 비기독교인 부류는

이미 이에 반응했고 전도가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낮게 걸린 열매 — 어렸을 때 주일학교 등 종교적인 추억을 갖고 있으며, 자녀들이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하는 사람들 — 를 넘어서 어려운 열매를 따는 참신한 방법이다.

많은 교회가 아직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많은 대형 교회가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이 교회들조차도 대부분 이미 교회 영향력 마당 안 — 미국 남부 일부 지역, 텍사스, 남부 캘리포니아 — 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문화는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영역에서 목회하는 기존의 방법은 점점 그 힘을 잃게 된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래도 교회가 주일학교 특성화 목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시대를 만났다는 점일 것이며 이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따름이다.



##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 Chapter 9

# 다문화 교회

## Intentionally Multicultural Churches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_갈 3:28-29

워싱턴 주 시애틀 동쪽에 있는 레드몬드 지역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AT&T, 에디 바우어 등 주요 기업의 본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부분의 도시들의 경우 각각 우세한 인종 집단이 있는데 2000년도 집계를 보면 45,256명의 주민이 있는 레드몬드 지역도 이 경우에 속한다. 레드몬드의 인종 구성비는 백인 79.3퍼센트, 아시아인 13.02퍼센트, 히스패닉 5.6퍼센트, 흑인 1.5퍼센트, 미국 원주민(인디언) 0.5퍼센트, 그리고 0.2퍼센트의 태평양 제도 사람들과 2.5퍼센트의 기타 인종, 3.1퍼센트의 혼혈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sup> 근처 커

크랜드 시의(인구는 45,045명) 인종 비율은 백인 85.3퍼센트, 아시아인 7.8퍼센트, 히스패닉 4.1퍼센트, 흑인 1.2퍼센트, 인디언 0.5퍼센트, 태평양 제도인 0.2퍼센트, 1.7퍼센트의 기타 인종과 2.9퍼센트의 혼혈 인종으로 되어 있다.<sup>2</sup>

레드몬드나 커크랜드의 주일 아침 예배 풍경은, 이는 미국 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한 인종이 예배당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레드몬드 지역에서 교회 출석률은 압도적으로 백인이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인종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레드몬드 커크랜드 주위에 있는 안디옥 성경 교회는 이러한 전형을 깨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교회 웹사이트와 전도지에서 는 교회의 다문화성을 강조하면서 안디옥 성경교회가 아래와 같은 교회임을 강조한다.

- 모든 문화, 모든 인종, 모든 사회적 배경에서 성장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교회
- 예배의 다양성이 기준이 되는 교회
-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권위를 갖는 교회
- 모든 교인들이 성직자인 교회
-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
- 사람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 두 번째, 시설이 세 번째인 교회
-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통념을 깨는 교회

캔 허쳐슨은 전 프로 미식축구 선수로서 시애틀 시호크 팀, 샌디에고 차저 팀, 앨러스 카우보이 팀에 소속되었고 1984년부터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흑인이며 교회가 다문화적이고 문화교류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 선 사람이다.

안디옥 성경 교회는 역동적인 다문화 교차적인 교회로서 매주 평균 2,000명이 예배에 나오는 것 외에도 또 다른 7,000명은 매주 35개의 안디옥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교회들, 협동 협력 교회에 참석한다. 네트워크 교회들 대부분도 다(多)인종적이다. 안디옥 성경 교회는 인종적 화해, 성도들 간 타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적 차이의 수용, 소통의 기술을 세우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 방향으로 변화를 이끄는 다른 모든 교회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sup>3</sup>

허쳐슨만이 이러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일으키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무디 성경학교 출신인 데이비드 앤더슨(David Anderson)으로, 그는 1992년에 콜롬비아 브리지웨이 공동체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에서는 모든 피부색의 사람들이 삶과 문화를 함께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 현재 브리지웨이 공동체의 비전은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헌신한 제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복음의 군대로서 화합과 사랑으로 전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역 공동체, 문화, 세계로 나아간다'이며 지금 이를 이루는 중이다. 이 교회는 55퍼센트가 흑인, 30퍼센트가 백인, 아시아인과 다른 기타 인종이 15퍼센트를 이루고 있다.<sup>4</sup> 앤더슨은 그의 저서 「다문화 사역: 당신 교회만의 리듬을 찾으라」에서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다양한 인종적 특징은 학교, 상점, 이웃, 위락 시설 등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 교회만 예외이다. 하늘나라는 모든 문화,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을 포함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주일 아침이 인종 분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왔다. 단지 말로만 다문화적 예배를 논하지 말고 다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걸 시작해야 할 때이다.<sup>5</sup>

### 다인종은 다문화보다 쉽다

다인종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선포가, 그 다음 생길 일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을 쓰기 위해 나(워렌)는 아내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를 '다인종' 교회라고 부르는 몇몇 교회를 가봤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흑인이었는데 유년기에 인종 차별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 경험했던 강력한 간증거리를 갖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인종적 편견을 타파하도록 돕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열망과는 달리 이 교회의 대부분은 흑인으로 이루어졌고 교회 직원과 목회자들도 흑인이었다. 예배 스타일 또한 흑인 전통에 맞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교회에 대한 결론은 단지 다인종이 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 문화로의 성향은 강한 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 현대 미국에서 현실이다. 인

종적 다양성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인 조지 안시(George A. Yancey)는 미국 전역의 다인종 교회에 대한 기념비적인 '릴리 재단(Lily Endowment)'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는 「성공적인 다인종 교회의 원칙 *Principles of Successful Multiracial Churches*」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다인종 교회가 되는데 필요한 일곱 가지 원칙을 발견했다.

1. 다문화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예배 형식을 갖춰야 한다.
2. 리더들 구성이 인종적으로 다양해야 한다.
3. 무엇보다 다인종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4. 의도적으로 다인종이 되고자 원해야 한다.
5. 사람을 대하는 기술에 능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6. 다양한 인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7. 인종간에 있는 각종 문제를 극복할 만한 수용성을 갖추어야 한다.<sup>6</sup>

안시는 '다인종'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한다. "전체 예배에서 참석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가 되는 한 인종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80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sup>7</sup> 이 정의에 따르면 미국 교회 중 오직 8퍼센트만이 '다인종' 교회이다.

그러나 사실은 더 소수의 교회가 '다문화' 교회이다. '다인종' 이라고 말함은 단지 여러 다른 인종들이 한 장소에 같이 있다는 의미이지만 '다문화'는 여러 인종 그룹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교회로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다문화 교회'는 주마다 다른 스타일의 성가대가 있고 설교자도 돌아가며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직원이나 목회자들도 각기 다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문화적 교차 교육 프로그램과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예배를 드리고, 다인종적 교회 시설 사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나(워렌)는 이번 장을 쓰기 위해 또 다른 교회를 방문했다. 뉴욕에 있는 이 교회는 스스로를 1/3은 백인, 1/3은 흑인, 나머지 1/3은 히스패닉 계열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인종 구성 비율이 그러하긴 하였다. 문제는 이 세 그룹이 각자 교회에 있는 것이지, 자신들의 문화적 안전지대에서 떠나려는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3개의 각기 다른 교회가 한 장소에 모여서 만나는 것처럼 보였다. 각 인종 그룹은 그들끼리 어울렸고, 얼핏 보기에도 사람들은 같은 인종에게만 다가갔다.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보스턴 출신인데 그들의 튀는 보스턴 억양 때문에 마치 제4의 문화를 대표하러 온 것처럼 보였다. 교회 안에 분명한 문화 분리가 있음을 목사님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보였다. 오히려 그분은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진전해 왔는지에만 집중하면서 투박한 뉴잉글랜드 억양으로 "나와 내 아내는 억양을 바로잡는 학원에 다니기 전까지 말

이 잘 안 통했습죠!"라고 말했다.

문화적 돌파구를 찾는 데 성공한 교회도 있다. 그래미상 수상 경력에, 다인종 성가대, 그리고 영적 리뉴얼로 잘 알려진 담임목사를 둔 유명한 브룩클린 태버네클 교회가 그 경우이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마다 여러 문화들이 녹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sup>8</sup>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주의 반 누이스에 있는 '도상교회'를 말해 보자. 이 교회는 잭 헤이포드 목사가 수년간 섬긴 교회인데 — 지금은 짐 톨리가 담임목사임 — 그 교회는 시설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다문화적 목회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 교회의 시설은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 이란 사람들, 불가리아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사용한다. 매주 4번의 영어 예배가 들려지고, 5번의 예배는 스페인어로 다른 지부에서 들려진다.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짐 톨리 목사는 성년이 되어서 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선교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예배 중 영어와 스페인어를 섞어서 말하기도 한다. 영어 예배보다 스페인 예배의 참석률이 높았다.

이 교회는 다른 다문화적 교회처럼 인종적 사안을 그들의 핵심으로 삼는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종적 화합' (고전 12:13, 갈 3:27-29, 엡 2:11-22, 골 3:10-11)이 그것이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래서 다양한 모든 인종은 존중받아야 하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 가치와 덕목에 대한 성경적 요구에 응할 것을 요청받는다.<sup>9</sup>



## 다양한 크기와 여러 단계에 있는 교회들

초대형 교회에 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초대형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인종적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에서 앞서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종종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sup>10</sup>

초대형 교회 외에 여러 민족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소통의 길을 선도하는 그룹으로는 '교회 개척자'를 들 수 있겠다. 전형적인 교회 개척자로는 마크 데이메즈를 꼽을 수 있다. 그는 2002년 중앙 아칸소 지역에 모자이크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는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곳이다. 교회 개척자로서 그의 처음 계획은 교회를 홀로 세우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최소한 각기 다른 인종을 대표하는 세 명의 리더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고 이 핵심 그룹은 교회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모델이 되었다.

데일 겔로웨이(Dale Galloway)와 나(워렌)의 공저 「새로운 교회 시작하기 *Starting a New Church*」에서는 마크 데이메즈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대화 한 토막을 보여준다.

누군가 그에게 “이봐, 당신이 아칸소 주 리틀록에다 다인종 교회를 시작한다고 들었네.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거야?”라고 물을 경우 그는 “리틀록의 펠래스키 카운티 지역에 이미 6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들 중 많은 교회가 수치상으로는 인종적 다양성이 뛰어나지만 그중 하나도 통합된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혹은 부유하고 큰 백인 교회이면서, 열댓 명이 넘는 각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단 한 명의 유

색인종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보냈던 8년간의 시간을 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장난스럽게 질문자에게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왜 저는 '이 일에 딱 맞는 사람' 이 당신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데이메즈는 교회 화합을 명한 성경구절이나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성경적 모델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는 화합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마태복음(28:19)으로 돌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세)례를 주고”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하고는 곧장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8장에 나오게 되는지를 말할 것이다.

데이메즈는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면 그분은 단지 자신의 복음전파의 사명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17:1-4) 제자들이 그 사명을 지속해서 이뤄가도록 기도하셨으며(요 17:5-19) 또한 그분을 좇는 우리를 위해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0, 23).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도구는 화합입니다!”

데이메즈 같은 목사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신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인종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지역 교회들의 화합의

전면적 표현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되었다. 데이메즈는 이렇게 말했다. “안디옥 교회는 국제적인 환경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이끌어진 교회로서,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행 11:20, 13:1).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러한 인종적 다양성으로의 움직임의 하나로서 미국에서 인종 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대가 교회의 주일 아침이라고 탄식한 바 있다. 다행히 요즘은 이러한 상황들이 바뀌고 있다.

당신 교회는 어떠한가? 히브리, 이집트, 미디언 다른 세 문화를 모두 한 몸에 지닌 모세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페르시아에 살았던 모르드개와 에스더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인터시티 크리스천 펠로우십(InterVasity Christian Fellowship)의 히스패닉 학생 담당 목회자 올랜도 크레스포는 “각기 인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종 정체성은 핵심적 사안입니다. 만약 그들 중 어떤 사람이라도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깊은 뜻을 저버리는 일입니다.”<sup>12</sup>

### 성과 무관한 요소들

최근 들어 미국의 기독교인은 다문화 교회에 완전히 빠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요즘 교회는 다문화 관계라는 도전 외에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교회들의 다문화 시도를 통해서 배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다.

다문화 교회는 다인종 교회와는 다르다

스스로를 다문화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제로 다문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들은 다인종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대부분이다. 종종 다문화 교회라고 불리지만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한 유명한 교회의 예를 들어 보자. 그 교회 지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 히스패닉, 흑인, 백인들은 모두 젊은 전문직 종사자이다. 그들은 피부색은 다르지만 같이 일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식당에 가는 실제로는 같은 문화에 속해 있다. 다문화는 다인종보다 더 힘들다. 이것은 아시아인의 인간관계 스타일, 흑인의 예배 스타일, 히스패닉의 교육 방식, 분쟁에 있어서 백인 스타일들 모두를 짜 맞추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몇몇 기독교인들이 다문화를 이루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비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황을 더 힘들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적 비기독교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더 힘들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의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것도 있지만 교회 리더 그룹의 문화 장벽도 넘어서야 할 문제다. 이는 꽤나 도전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데 복음은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수천 년간 수백 권이 넘는 책들이 선교사들이 문화 차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다. 내(에드)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다문화 교회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게 쉬운 일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다문화 교회를 잘 설명한 말이다.

다문화주의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 특히 미국 밖에 있는 지역에서는 — 사람들은 공동체에 높은 가치를 둔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써 증명된다고 가르치셨는데(요 13:34-35, 요일 4:7-8) 이는 다문화적 환경 안에서 기독교적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가장 잘 증명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장면을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교회는 우리가 주일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간단한 원칙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를 직접 실천하는 교회이다.

다른 이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다문화 교회는 다문화 팀으로 이루어진다. 다문화 팀의 경우 가르침과 지역 공동체에 다가가는 사역 외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데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지 못한 많은 헌신을 요한다.

## 우려되는 문제

내(에드)가 교회 개척을 강의한 후에 최소한 10번 이상 반박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종종 “왜 교회를 다문화적으로 세우지 못합니까?”라고 묻곤 했다. 나는 다문화 교회를 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한 주류 인종에만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게 오히려 교회가 다문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나는 이런 논쟁을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문화 공동체로 전환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몇 가지 변명을 하고 질문은 멈췄다.

다문화 교회에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대부분은 극복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도전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타문화를 접할 때 사람들은 종종 문화 충격을 받는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두 문화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에 무능하며, 대부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대부분의 백인들은 흑인 교회에 가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흑인 문화에 잘 연결되지 않거나 자신의 문화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들은 흑인 문화 비슷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선호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문화적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자 할 뿐이다.

서로 다른 문화 간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문화 충돌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을 깨는 과정이 꼭 수반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문화 교회는 이러한 마찰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논쟁이 생길 때 백인들은 이 논쟁의 핵심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를 기대할 것이며, 아시아인들은 관련자들의 감정과 체면에 가치를 두어서 어떤 사람도 체면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할 것이다. 몇몇 아시아인들은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좀 더 우회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애매모호하고 해결에 있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미국인들의 경우 논쟁의 해결 방식을 정하는 것조차도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리더십은 발화점이 된다

교회 밖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화가 리더십의 스타일과 그의 역할을 결정한다. 성경의 리더십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 기준들, 이를테면 실행, 윤리적인 요건이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리더십이 실행될지는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특정 문화에서 잘 맞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예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회는 단지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예배시간 외에 사람들은 밖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야만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회가 된다. 나는 전략을 짜고 있는 다문화 팀을 관찰한 적이 있

는데 그들은 은사 중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더 잘 통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정작 문제는 많은 다문화 교회들이 예배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것이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예배에 매력을 느끼고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화적 관용'을 갖고 행동하고자 애써 왔지만 '우애'를 체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 가치 있는 일

다문화 교회는 실행하기 힘들더라도 전망은 밝다. 물론 이것이 만능 처방전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계 5:9)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에 다른 퍼즐을 더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더 많은 교회가 하늘나라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쓰는 남녀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 보좌와 관련된 찬양은 다문화 사람들을 반영한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보다 하더라(계 5:9-10).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인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 영원한 찬양  
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 여정 교회

Decision-Journey Churches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_갈 5:25

1978년 11월, 나(엘머)는 태국 메콩 강의 피난민 캠프를 방문해  
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음식과 이불,  
그리고 성경과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미국은 이전과는 달리 베트남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였으며 미군의 방패막이 사라진 후, 민주주의와  
기독교에 협조적이던 사람들은 공산당에게 학살되었다. 태국으로 수  
천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갔고, 태국 정부에서는 13개의 큰 피난민 수

역자 주 | 여정 교회'는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매우 생소한 이름이다. 'Decision-  
journey' 혹은 'Faith-journey'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내리는 결정  
과 또 그것을 삶의 여정으로 연결시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다소 신화적인 뜻을  
갖고 있다. 여정 교회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이다.

용소를 세웠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피난민의 삶을 돕고자 인도적 인 구호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22명으로 구성된 리버티 대학 팀이 도착하기 하루 전 그곳에 도착했다. 하루 동안 나는 통역을 고용했고 12,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피난민 캠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유로운 공동체라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집단 수용소 같았다. 캠프 안에서 몇 곳의 기독교 교회를 볼 수 있었는데 교회 멤버들은 각기 다른 인종으로 각각 그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른 삶의 양식과 스타일이 다른 예배를 말해 주는 듯했다. 라오스 저지대 정글에서 온 한 부족은 피난민 캠프 바닥이 딱딱하고 말라있는데도 대나무 단 위에 한 단 높여 교회를 지었다. 또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대나무 구조물에 수백 개의 십자가를 끼워 놓았다. 라오스 산악 지대 부족은 큰 나무를 잘라서 피난민 캠프까지 끌고 와서는 자기 식대로 교회를 만들었다.

세계의 이쪽 편에서 기독교는 분명히 비주류였다. 그리고 가느다란 대나무 집이든 굵은 통나무로 만든 건물이든 교회는 바로 눈에 띄었다.

나는 열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다. 첫 질문은 “당신은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였다. 나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통역자가 불교신자여서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번을 물어봐도 사람들은 계속 의아해 하고 혼란스러워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질문을 좀 바꿔서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라는 식으로 질문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내가 헛갈린 것이지 그들이 헛갈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신앙을 미국 문화의 시각이 아닌 그들 고유의 문화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내 질문의 문제점과 그 안에 들어있는 편견을 그제야 깨달을 수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주류 신앙이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자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적 가치가 깊이 녹아 있는 문화에 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미국 기독교는 문화적인 기독교와 살아 있는 신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사람이 자라난 장소나 그동안 해온 좋은 행실 덕분에 기독교인이란 딱지를 붙이게 된 것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에 기반을 둔 관계에서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신앙인들은 미국에서의 문화적 상황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처가 자신의 신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들의 신앙은 인생의 특별한 위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모름지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감사하여 그분을 믿는 행위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생활에

서 반응하는 것이지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 내리는 특정 순간이 아닌 것이다.

첫째 날 태국 기독교인들과의 인터뷰는 다음 2주간 피난민 캠프에서의 사역 방향을 바꿔 놓았다. 나는 부처는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해야 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왜 이리도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을까?

수년 전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있었던 타문화 경험은 미국 교회를 난처하게 만드는 어려운 질문 하나를 남긴다. “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교회에는 잘 나오지 않고 사역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을까? 몇몇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의미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거나 혹은 “미국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도 최소한으로, 명목상의 헌신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퇴보했거나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이름이 어찌다 보니 교회 명단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답한다.

점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회심’에 대한 미국 교회의 관점이 잘못되었거나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원을 강조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교회는 사람이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경주는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심을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말한다.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식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많은 회심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변화된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소수밖에 배출해 내지 못했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교회를 이번 장에서 ‘여정 교회’라고 부르기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의 결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지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내리는 결정과 또 그것들을 삶의 여정으로 연결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이러한 교회의 리더들은 구원의 문(門)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이 교회들을 때때로 ‘결정-여정(decision-journey)’ 이거나 ‘믿음-여정(faith-journey)’ 교회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구원의 문으로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구원의 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요즘 부상하는 이러한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요 14:6) 것을 믿지만 개인이 이 구원을 받는 방식은 미국에서 있어 왔던 일반적 기대와는 양상이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그룹의 목회는 기존 미국 교회가 쓰던 것과 다른 논리로 복음을 설명한다.

이 책에 소개된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반해 여정 교회는 좀 더 신학적인 측면, 즉 구원 교리 혹은 어떻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 가는지 등 그런 개념에 더 기반을 둔다.

###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의 여정 중에 있다

데이브 퍼저슨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멀티사이트 교회인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기독교인이란 이름이 미국에서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오히려 퍼저슨은 믿음의 과정 중에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Christ-follower)란 말을 더 선호한다. 당신 교회의 모든 사람을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상상해보라.

퍼저슨은 1988년 그의 형제 존과 대학교 친구 3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이었고 이 젊은이들을 한자리로 묶는 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었다. 이 열정은 퍼저슨이 교회를 설명할 때 주로 쓰는 말이자 대부분 교회의 출판물에 등장하는 문구로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찾도록 돕는다.”

퍼저슨에게 있어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눅 15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의 축소판이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꿈을 버린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길을 잃었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퍼저슨은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에 영적인 집을 꾸린 사람을 일컬을 때 ‘교회 멤버’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퍼저슨은 오히려 “소속되는 것이 믿는 것보다 먼저다”라고 말한다. 그의 전략은 사람

들을 먼저 공동체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며 이곳에서 그들을 신앙인(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속됨’의 의미는 무엇일까? 퍼저슨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3C’로 표현한다. 첫 번째 C는 예배의 기쁨(Celebrate)으로 예배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두 번째 C는 연결됨(Connect)으로 사람들이 소그룹 등을 통해서 시간을 같이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세 번째 C는 공헌(Contribute)으로 개인과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변화하게 만들고 나아가 사역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는 시카고 지역의 각기 다른 장소 8곳에서 매주 22번의 예배를 드린다. 매주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출석한다. 예배의 절반 이상이 실황으로 드러지며 나머지 시간에는 퍼저슨 목사의 설교 비디오가 중계되고 다른 목회자들이 가르침을 담당한다.

퍼저슨은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의 사람들은 교회에 참여하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의 일부가 되어간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첫 C(예배의 기쁨)를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 두 번째 C(믿는 사람들과 연결됨)를 통해 그 여정을 계속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로 헌신하게 된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세 번째 C(외부에 공헌함)로 넘어가게 된다.

성경적으로 분석해 볼 때 개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정확하고 특정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퍼저슨은 이렇게 답한다. “특정 시간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러나 결과적으로 비록 교회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 멤버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여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퍼거슨은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의 장면이 그대로 연출된 한 소그룹을 인도하던 때를 기억했다. 한 명의 참석자가 크게 말하기를 “거듭남, 이것은 이미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맞죠?” 그녀는 언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때 그녀는 그분을 따르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퍼거슨은 거듭남에 대한 이러한 예를 들면서 소그룹 리더들에게 이런 당부를 한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 주십시오. 단,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게 될 때까지만…….” 퍼거슨은 소그룹 리더들이 사람들을 그룹으로 잘 묶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궤도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기를 바란다.

### 결정의 순간이 계속 되는 믿음의 여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의 긴 여정의 일부이다.” 이것은 커뮤니티 크리스천 교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구글에서 ‘여정’, ‘여정 교회’란 단어나 관련어를 검색하면 놀랄 정도로 많은 대부분의 새 교회 이름에 ‘여정’이란 단

어가 들어간다.

나(워렌)는 넬슨 씨시가 2001년 시작한 뉴욕의 여정 교회를 다녔다. 이 교회의 모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이란 여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 모든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이 말이든 글이든 간에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여정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놀랍게 성장시키기 위해 조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많은 신경을 썼지만 자라나고 있는 기독교인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크게 주의를 기울였다. 이 여정 교회 성도들의 평균 나이는 20대였고 목사인 넬슨 씨시와 케릭 토머스는 30대였다. 이 젊은 목사들은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이 세대와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이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문구들, 예를 들어 “이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도록 하셔서”라든가 “시간관계상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등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들은 한쪽 면에만 맞춰진 영접기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라며” 하면서 예배를 마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설교는 여러 선택사항에 열려 있다. 설교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심을 아직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 부분 전체를 한 주간에 읽기로 결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

은 이번 주 가정 모임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자우편이나 편지도 어떠한 사항을 알리는 것 이상의 기능을 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선택사항을 제공했다. 그 선택사항은 구체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 팀에 들어가는 것부터 지역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들과 ‘아이 놀이 그룹’처럼 맨해튼에 있는 행사에 한 번 참여하고는 커피숍에서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있었다.

넬슨 씨는 대학교 때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먹기 전,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또한 그는 성숙에 이르는 영적 과정에서 여러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음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통과하는 여러 단계들과 또한 그 결정을 내린 이후의 단계에서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잘 가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sup>2</sup>

### 역사적으로 회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종교 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힘이나 권위 남용을 비판한 신학적 혁명으로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성경적 이해에 기반을 둔 것이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다른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 큰 헌신을 했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의 결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강한 이성적 기반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전 인격적인 과정으로서,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과 감정을 통해서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강력한 이성 지배적인 믿음은 발전시켰으나, 개인 구원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 첫발을 디딘 청교도들인 매사추세츠나 버지니아의 초기 정착민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회심에서의 개인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고 제1차 대각성운동 때도 개인의 감정적 반응과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거론하지 않았다.

제2차 대각성운동에 와서야 감정이 회심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란 생각이 받아들여졌다. 1801년에 시작한 켄터키의 케인리지 부흥은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드러난 곳이다. 어느 사막 한구석에 14,00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곳에서는 앞 첫 줄은 구별된 장소였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받는 곳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회심이 지적 믿음에만 제한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등의 강한 감정적 체험이 수반되는 과정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주님을 계속 찾게 하였다.

감리교의 확장은 이러한 부흥의 강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1776년 미국 독립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감리교회는 미국 전역에 243개에 불과했다. 30년 후에는 무려 5,000개의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교인 수는 25만 명을 넘어섰다.

제2차 대각성운동의 다른 산물은 유명한 설교자이며 수백 개의 감리교회를 세운 피터 카트라이트(Peter Cartwright) 목사이다. 그는 3개월 동안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다. 죄에 대한 가책이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많은 케인리지 식의 부흥회에 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를 통해 강한 체험을 했다.

신성한 빛이 내 주위를 온통 밝게 둘러쌌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에 넘쳐 올랐다. 나는 일어서서 눈을 떴다. 그러자 내가 정말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후로 나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다.....<sup>3</sup>

무신론자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도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의 사무실은 뉴욕 로체스터에서 동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애덤스에 있었다. 1821년 10월 10일, 피니는 사무실 근처 작은 언덕 숲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아침 내내 기도했고 정오가 되어 변화된 사람으로 사무실에 돌아왔다.

이후 피니는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변호사 말투가 너무 많이 배어 있어서 그의 설교는 꼭 복음에 대한 이성적인 프레젠테이션 같았다. 1830년, 그가 '새로운 방법'을 처음 도입했는데 그때 뉴욕 로체스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이것은 아직도 꽤 신선한 방법이다. 피니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와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구원을 외쳤다. 피니는 이러한 행동이 복음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설교를 주의해서 들은 후 설교가 끝났을 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피니는 뒤에서 세 줄의 장의자를 치워버리고 남아 있는 세 줄의 장의자를 '회개자의 자리(mourner's bench)'로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외치며 마음껏 울게 했다. 이는 '초청'이라는 형식으로 정립되었으며 설교가 끝난 후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 좌석에 앉아서 영적인 조정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후에 몇몇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뒤쪽 장의자 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피니는 교회 앞줄에 좌석 몇 개를 놓고 이를 '참회자의 자리(anxious seats)'라고 불렀다. 이후에 그가 설교했던 몇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제단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었고, 따라서 초청을 '제단 초청', '강단으로의 초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강단으로 오도록 초청되었고 그들은 교회 제단에 무릎 꿇고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

## 모든 것을 바꿔버린 시카고 화재

드와이트 L. 무디는 미국과 유럽에 잘 알려져 있는 설교자이다. 그는 1860년에 시카고에 큰 교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피니나 다른 설교자처럼 청중에게 설교를 주의해서 듣고 집으로 가서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했다. 1871년 10월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십자가까지 그분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6주짜리 설교를 했다. 10월 8일 주일 저녁 5주차 설교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설교를 하고 “이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고 다음 안식일 날 갈보리 십자가에 서서 나사렛 예수와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했다.<sup>5</sup>

그날 저녁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 수천 명이 죽었다. 낮에 무디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틀 녘에 영원히 잠들었다.

이 사건은 설교에 대한 무디의 생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 이후 다시는 청중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디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한 주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수없이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 두신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sup>6</sup>

시카고 화재는 그 후 100년간 미국 전역에 쓰였던 복음 전파 방법을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 전의 설교자들은 대부분 청중들에게 기도하고 죄를 자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이끌었다. 사람들 앞에서 고

백하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감정적인 행위의 하나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카고 화재 이후 무디는 매주 구원으로 사람들을 초청했고, 특별한 주제인 ‘즉각적인 구원’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바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뜻했다.<sup>7</sup> 즉각적인 구원은 회심에 있어서 사람의 이성이나 감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람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 세기 이상 다른 설교자들도 무디의 이러한 방법을 따랐고 그중에는 빌리 그레이엄도 있다. 그는 그의 책 제목 「결정의 시간 *The Hour of Decision*」, 잡지인 「디시전 *Decision*」 그리고 ‘결정’이란 단어가 들어간 다른 책들로<sup>8</sup> 기독교 역사상 새로운 위치를 갖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감정 표현이나 복음에 대한 지식은 최소로만 요구될 뿐이다.

## 즉각적인 구원의 남용

내(엘머)가 「가장 큰 10개 주일학교」란 책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던 1969년, 미국에서 가장 출석 교인이 많은 교회는 오하이오 아크론의 아크론 침례교회였다.<sup>9</sup> 델러스 빌링톤 목사는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았다. 그가 한 말 중에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초록색 과일 은 절대 줍지 마라”이다. 밀을 너무 일찍 따버려서 저장고에서 썩히고 결국 버리는 황폐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빌링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죄의 영향력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소서'란 기도를 하도록 너무 몰아붙여 빨리 구원받도록 했을 때 나온 부정적인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빌링턴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 기도를 너무 빨리 할 경우 그들은 그저 공허한 단어를 따라 말할 뿐이고 진실로 거듭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설교자들이 이 기도를 공식처럼 하면 사람들의 회심에는 진정한 영생이 없고, 침(세)례도 받고, 수차례 영혼이 안전하다고 설득해도 실제로 그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된다는 것이다. 빌링턴은 미국 기독교 명부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하다고 말한다.<sup>10</sup>

북아메리카 선교위원회(North America Mission Board)에서의 나(에드)의 연구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 이후에 재구원, 재현신을 위해서 다시 결단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약 10년 전에 우리 연구팀은 침(세)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침(세)례는 회심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침(세)례받은 사람들의 40퍼센트가 처음 구원에 다시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 침(세)례를 받았다. 한 번의 결단에 너무 초점을 맞췄을 경우 '결단함' - '침(세)례받은'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곤 한다. 그렇다면 인생의 변화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단계를 넘어서 언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될까?

### 반론 제기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빌립보의 간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 결정적 순간에 즉각적인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간수가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끌어낸 다음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묻자 바울 일행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0-31)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약에 나온 다른 결정적 회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도 바울의 회심, 우물가 여인, 고넬료와 십자가의 강도는? 분명히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때가 있었다. “...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눅 19:9).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도 도마도 있었다. 한때 도마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도 흔들리던 때가 있었다. 도마는 왜 굳이 그의 회심을 둘러싼 몇 개월을 ‘여정’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는 수년 간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요 11:16),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요 14:5)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 자신의 불안함을 고백하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심지어 직접 만져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고 했다(요 20:25). 8일 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고백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니이다”(요 20:28). 교회 역사학자들은 도마 사도가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고 추측한다.

여정 교회는 이 시대의 도마들과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

긴 성장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이 정도로 충분할까?

오랫동안 기독교는 전투적 복음 전파, 감정적 반응, 인생의 변화로 이어지는 패턴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어떤 장소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 가기도 한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문화에 사는 이상, 그리고 이 문화가 탈기독교 시대인 동시에 그 전 기독교 시대의 모습도 함께 갖고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후에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더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달라진 상황 속에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과 다른 소통방법, 그리고 다른 목회를 필요로 하며 이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달하는 데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목소리를 충분히 높여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에 있는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뿐이지 그들의 소통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이해 없는 소통은 오해만 일으킬 뿐이다.

여정 교회들은 북미지역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다른 '종교' — '미국 정신의 종교' 라는 — 를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북미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

고 히틀러처럼 너무 나쁜 짓만 저지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들이 영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의 개인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 를 필터로 사용해서 예수님, 복음, 죄에서 돌이킴 등의 메시지를 걸러 들으며,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복음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행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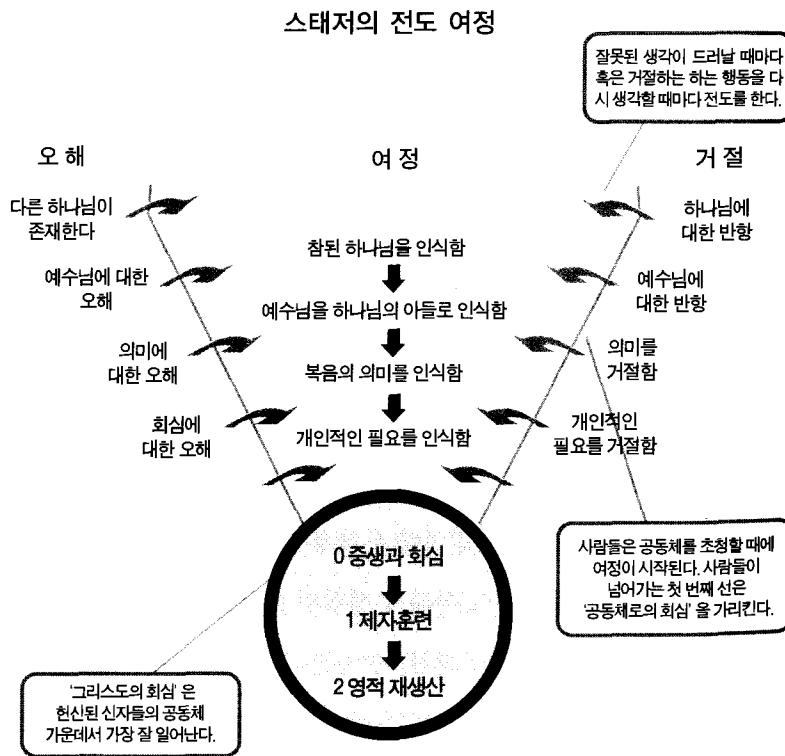
우리는 이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脫) 시대에 살고 있다. 탈(脫) 모던, 탈 기독교, 탈 진리 등.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과거 현실을 반영한 공간에서가 아닌 현재 시간대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살게 해줄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말들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행동을 볼 때 부서지게 된다. 비기독교인들과 비신앙인들이 진정한 신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시간대에 그들의 여정을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 여정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정 교회에서 배울 점이 많다. 대부분의 성장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과거의 시간이나 문화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곤 했다. 이런 방법이 아직도 유효한가? 물론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회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엘머 타운즈와 에드 스태저는 「빛의 영역: 성장하는 교회들의 성경적 태두리」라는 저서에서 복음의 여정이란 부분을 포함시키고 복음을 하나의 여정이라고 보는 것의 가치를 설명한다.<sup>11</sup> 이 책에 따르면 여정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는데 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계속 단계를 밟아 가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데, 결심한 날짜나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 책은 도표로 설명한다.



여정 교회는 그 결정의 대가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기 전에 치르게 될 대가를 생각해야 한다고(눅 9:23, 14:28) 말씀하셨다. 교회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단지 30~45분의 시간 동안 교회로 '걸어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 쯤으로 여기길 바라는 것 같다. 이 생각이 그동안의 기독교 문화에서 맞는 말이었다면, 그렇다고 해두자. 그러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교회까지 '걸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

앤디 스태리는 이를 두고 “설교를 듣는 중에 무신론에서 믿음으로 옮겨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구원 그 자체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진다”<sup>12</sup>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순수한 여정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복음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란 분명한 사실 이상으로 여정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개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해 보겠다.

-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전에 치를 대가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성경적이고, 합당한 행동이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특정 기도나 뭘 적어내는 카드썸으로 축소시켰다. 이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들은 ‘그 길’

(행 9:2)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자신도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기 전에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앞으로 치르게 될 대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 너무나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성령의 불!”을 외치는 것에만 응답해 왔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복음을 ‘한방’이라고 생각하며 이 구원을 ‘지금 바로’ 얻지 못하면 잃어버린 영혼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강조한다. 심지어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날이 앞으로 50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이며 지배자이시다. 그분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신다. 우리의 임무는 매일 하루를 그분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며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다. 초조함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에 중점을 두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

-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비신앙인들이 치를 대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인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교회 멤버와 예비 멤버이다. 이러한 구분은 두 그룹 간 다리를 놓기보다 오히려 경계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이렇게 소속, 비소속을 나누기보다 기독교 공동체에는 한 종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는 언약 공동체 —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독교인답게 헌신된 사람들 그룹 — 로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뜻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 공동체로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공동체이다. 모든 교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헌신하기 전에 이 기독교 공동체를 거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복음에 대해서 고려하는 시간과 그리스도께 전격적으로 헌신하기로 하는 시간 간격은 점점 더 길어졌다. 그 자체는 괜찮다. 오래 생각하고 하는 헌신이 더 좋은 헌신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즉각적인 구원이 단 몇 주나 몇 달 밖에 못 버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놓여 있을 때 ‘안전한 곳(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위험한 결정(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고려해야 할 점

비기독교인들이 환영받고 도전을 받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 요즘에는 전투적인 복음 전파 방식은 과거 몇 십 년 전과 다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대다수의 잃어버린 영혼들은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서 영적 진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먼저 시간이 필요하고 진정한 친구와 진실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 진실에 대해 생각할 때 도와주기를 바란다.

여정 교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에 초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여정 교회는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고정적인 위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학적으로 곤란한 일이다.

여정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 비신자들이 기독교인과 함께할 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서로에게 연대 책임을 지는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9~13절에서는 '안', '뉘' 그리고 '부도덕함(성경 원문에서는 '음행함'이란 단어 사용 -역자 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너

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를 사귀지도 않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북미 지역에서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 따라서 비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 건물 안에 있으므로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교회에 초대하도록 격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약은 이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비신자들이 기독교인과 접촉하고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더라도 그들과 교회는 엄밀하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갖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도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할애한 것이다.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답게 살기로 헌신했고 서로 그렇게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비신자들은 아직 헌신하지도 않았고 공동체의 일부도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답게 살기를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교회,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헌신하는 삶이다. 그런 관계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교회는 헌신된 공동체로서 기독교인들이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서로 묶여 있는 곳이다. 반면, 문화적 의미에서 교회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하는 만남이고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기억해야 한다.

여정 교회는 종종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몇몇 교회는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보다는 넓은 이해를 구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는 아무래도 헌신된 사람들과 비헌신자 모두를 공동체 안에 두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두 그룹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결국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로 하향 평준화해 버린다. 모두가 알아듣기는 하지만 더 깊은 성경 이해로는 절대 이끌지 못하는 가르침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다. 많은 여정 교회는 성숙으로의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하나님께서 여정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기독교인 친구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도록 권면한다. 초청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준다.

여정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과 공간에 비기독교인들을 초대해서 여정 교회란 이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도전을 준다. 이것은 전도 소책자를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서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때때로 우리가 좋은 편지는 아닐지라도, 여정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다.

여정 교회에서 얻게 된 강력한 가르침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한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비기독교인과 신자들이 함께 공동체의 일부를 구성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며, 이를 잘 분별하여 사용한다면 이러한 방법은 문제가 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11 Innovations in the Local Church

### Chapter 11

# 소비자 중심의 교회

## Attractional Churches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나 1막 3:19

복음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위의 성경 구절은 악한 영에 시달린 어떤 사람과 관련된 구절이다. 그의 인생은 엉망이었고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정도였다(막 5:5).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고치셨다. 그 후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구했으나, 예수님은 거절하셨다. 대신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그의 친구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사도 안드레를 칭찬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형

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요 1:41)라고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떨까? 예수님을 만난 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 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요 4:28-30)고 기록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친구와 가족을 찾아서 데려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손님이 오지 않으면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초대교회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을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 데려오 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데려왔다. 오순절 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군중이 모였고(행 2:6) 초대교회의 소식이 퍼지면서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 음을”(행 5:16) 얻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때, 군중들이 모여 들었다(행 3:11-12).

현대의 상황에서 아직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지금과 과거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면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물에서 모임을 갖고 전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각종 예배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혁신은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시작된다. ‘우물가 여인은 실제로 목이 말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이 실제적 경험을 연결 다리로 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영 적인 필요를 다루셨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베드 로 역시 낚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20)고 말씀하셨다. 다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베드로에 게 물고기 잡는 것과 관련해서 가르치신 것이 있다(눅 5:4, 요 21:8-11).

이 논리를 넓혀서 교회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교회를 우 리는 종종 소비자 중심의 교회라고 부른다.

###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나(워렌)는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중독 수준으로 좋아한다. 나 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교회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데 종종 교회 건물은 그 사연과 연결된다.

리마 공동체 교회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 나사렛 교회는 상당히 척 박한 지역인 오하이오 주의 리마에 있다. 데일 켈로웨이와 워렌 버드 의 「유지하는 것에서 목회하는 것으로 옮겨가기 *Moving from*

Maintenance to Ministry」란 책에서 말했듯이 이 교회는 1941년 시작됐고 지금껏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수년간의 사역으로 이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공동체로 알려졌고 목사인 빈스 넬슨은 “우리 교회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 온 사람은 금방 매력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약 87퍼센트는 비기독교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역 공동체는 영적,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이라고 넬슨은 말한다. 이 지역은 깨어진 가정과 이혼율이 미국 평균치보다 14퍼센트 높고 경제적으로는 평균치 훨씬 아래에서 씩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담임목사인 댄 허킨스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목회는 어린이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성장 동력은 아이들과 가정 목회에 있습니다”라고 허킨스는 말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아이들과 청소년 목회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여기 데코레이션은 당신의 눈을 믿지 못할 정도로 창조적입니다.” 아동부 담당자 신디 포터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 있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청소년 목회는 지역 공동체의 이목을 끌 정도로 커졌다. 청년 팀은 주에서 가장 좋은 청소년 센터 중 하나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규모는 32,000평방피트나 되었다. 배구나 농구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운동 시설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스케이트 보드장과 암

벽 등반용 벽, 비디오 게임기가 있는 게임방도 이용했다.

그 결과 45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한 이벤트에서 1/3정도의 청소년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 강력한 목회의 한 예로서 업워드 농구(Upward Basketball: 기독교 농구 전국 리그 -역자 주)를 들 수 있다. 업워드 농구 목회는 한 해 만에 참석 인원이 배가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교회로 꾸준히 인도했다.

어린이 사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역은 유급 스태프들은 최소로 구성된다. 사역의 대부분은 봉사자들로 이루어지며 현재 교회의 원칙은 “먼저 나서는 사람이 주인이다”이다. 봉사자의 참여는 학생 사역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서 중·고등부 주일 저녁 예배에 많은 학생이 참석해 지역 규모의 목회로 발전했다. 청소년 사역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청소년들은 수요일 밤에도 모임을 가지며, 성인들도 참여하는 소그룹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에 탄력을 받아서 최근 이 교회 참석 인원은 2,000명을 넘어섰고, 교파 중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 댄 허킨슨 목사는 앞으로 교회가 오하이오의 작은 동네라는 지리적 제한에 묶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몇 년간 많은 교회가 ‘왜 이게 안 되지?’라고 묻곤 했지만 우리 교회는 ‘왜 이걸 못해?’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목회 리더들이 항상 있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 지역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영적으로 회복됨에 따라서 교회는 더 큰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덴이 말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확장이 결정됩니다. 이 지역의 9만 4천 명 정도 주민이 지역 교회와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 반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리마 공동체 교회는 소비자 중심의 목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원칙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다. 이때 ‘교회’는 유쾌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 외에도 최종 목적지 같은 공간적 개념으로서, 최첨단의 예배부터 십대를 위한 비디오 게임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되어야 한다.

### 목회는 베이비 붐 세대에게 초점을 맞춘다

요즘 기사를 보면 이제 60세에 들어선 첫 번째 베이비 붐 세대가 다 이어트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베이비 붐 세대는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과거 1980년대에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의 교회들은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모색했다. 이때 더그 머렌이 목회한 워싱턴 주 커크랜드의 이스트사이드 포스퀘어 교회는 매주 참석 인원이 10명에서 4,000명으로 성장했고 15년간 17,000명

의 사람들을 결신하게 만드는 등 큰 부흥을 이끌어 냈다. 머렌은 베이비부머 목회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혁신가이며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풀러 교회성장연구소에서는 머렌에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베이비부메랑 *Baby Boomerang*」이란 책을 기반으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게 했다. 책의 이름은 잘 던져진 부메랑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책의 부제인 ‘부머 세대를 잡아라—그들이 교회에 돌아올 때’는 이 책을 더 잘 설명해준다.<sup>2</sup>

이 책은 목사들과 교회 리더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책의 주요 정신은 교인들을 ‘데려오는 자, 소속시키는 자’로 훈련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를 잇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책은 강조하고 있다. 당신이 언제라도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교회는 매달 특별히 초신자에게 맞춰진 예배와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으로써 같이 사역한다는 것이다. 이스트스퀘어 외에도 이 방법은 수천의 교회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머렌의 접근은 요즘 교회 성장 연구들과도 맞닿아 있다. 윈 안(Win Arn)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전형적인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의 초청을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광고에 의해서도 아닌, 바로 친구 손에 이끌려 오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교회라도 85 퍼센트의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온다는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절정기를 돌아보면서 머렌은 흥미롭게도 앞으로

평신도 사역의 목회를 더 많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렌은 앞으로 교회가 교회 직원, 사역자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이벤트(친구 초청 행사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관계 중심적 공동체 행사(초청한 친구를 소그룹에 속하게 하는 등)에 더 치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비 부메랑」의 후편 「리더십 전환 Leadership Shift」에서 머렌은 이렇게 적고 있다.

이스트사이드에서의 나의 15년을 돌아보면 ... 만약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목회의 80퍼센트를 평신도 주도하에 기획, 운영되도록 하고 나머지 (최대한) 20퍼센트 정도의 목회만이 교회 사역에 의해 주도되도록 한 것이다. 사실 내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너무 사역자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이스트사이드는 최근 몇 년간 80-100퍼센트 성장했고 따라서 교회 안에 꾸준한 변화와 대변동이 있어 왔다. 목회에서의 사역자 재편성은 교회의 존재 중심에 유급 사역자들이 서 있는 교회의 경우에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는 내가 1984년에 겪은 일 때문에 생긴 감정일 수도 있다. 나는 이때 한 소그룹 공동체의 힘, 특히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 리더십 발전에 있어서 한 소그룹 공동체의 강한 영향력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나는 이를 보고도 심각하게 고려하지도 않았고, 십 년이 넘도록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는 교회의 핵심 조직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1993년에서야 소그룹을 만들었고 내가 교회에서 물러날 1996년에 와서야 450개의 그룹이 생겼다. 만약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 그룹에서 더 상호적인 성경공부를 하도록 조정했을 것이다. 나는 설교가 이러한 제자 훈련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도적으로 작

동하지 않도록 주의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트사이드가 실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약하는지 배웠다. 우리는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다. 우리는 예배가 곧 전도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어떻게 평신도 사역자가 그들의 친구를 교회로 데려와서 구원받게 했는지 그 전략을 보여주었다.<sup>3</sup>

머렌의 베이비 부메랑은 대중적인 소비자 중심의 모델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거나 처음 시도한 사람은 분명 아닐 것이다. 여러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베이비 붐 세대에게 시간을 초월한 복음이 그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대중적인 산물은 버지니아에 베이스를 둔 교회성장연구소(www.churchgrowth.org)에서 배포하고 있는 엘머 타운즈의 '프렌드 데이'(Friend Day)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교회 총동원 주일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인데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특별한 행사에 참여시키는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다.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이 프렌드 데이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했다. 특별한 날을 위해 더 극화된 소비자 중심의 목회 접근법으로는 초대 음악가나 연예인 간증이라든가 아이들 행사, 교회 바자회 등이 있다. 이런 방법은 목사나 영향력 있는 교회 리더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기를 강하게 격려

함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크기의 교회와 교파에서 잘 작동된다. 홈 디포(미국의 가정생활용품 제조회사 -역자 주)의 광고 문구처럼 “당신은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란 말이 적절히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다.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당신은 할 수 있다”), 이들이 기도 등을 통해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교회는 복음적이면서도 놀랄 만한 매력적인 요소로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요즘 들어 부쩍 교회가 각종 특이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려고 하는 것 같다. 8장에서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 로버트 레이크(1735-1811)가 전원 출석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에게 금화를 주었다는 얘기를 했다. 미국의 주일학교 초기 시대의 선구자들은 파랑, 빨강 티켓을 주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티켓을 모으면 값비싼 책을 상으로 받았다. 요즘 주일학교에서는 예전처럼 그저 머리핀, 열쇠고리, 성경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와이 여행권도 경품으로 내놓고 있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수십 년간 문을 두드려 왔다.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의 제일장로교회 헨리타 미어스는 교회 방문객을 끌기 위해서 유명한 말인 트리저와 기수 로이 로저스를 불러 왔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유명한 사람들,

스포츠 스타, 유명 연예인들, 전 대통령들과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음악인들을 교회로 불렀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후에도 엘비스를 보여준다고 약속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새로운 것이 아닌 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그리고 아무리 긴 세월 동안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다.

### 매력적인 면의 이면

이 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와서 보라”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해서 ‘보게’ 하는 매력 포인트, 매력적인 프로그램과 각종 활동들이 있다. 사람을 끄는 갈고리는 다양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그 범위는 주일 예배와 아이들 교육에까지 퍼져 있다.

많은 사람이 외관상 매력적인 것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소비자 중심의 교회의 인기도 식어가고 있다. 왜일까? 교회 문화가 사람들의 필요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에 반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적인 매력은 요즘 교회들의 대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교회 리더십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장려되지 않더라도 교인들의 일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면 자기 친구를 데려오기 마련이다(이 과정은 그들이 교회를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렇게 느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잭 하일스는 인디애나 주 하몬드의 제일침례교회를 인도하고 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1971년에 시작함)라는 기록을 몇 년간 유지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하일스의 사위인 잭 챔피 목회를 하고 있다. 이 교회는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원칙주의적인 교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회 웹사이트나 책자에는 “우리 교회의 정기 예배에 참석합시다”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sup>5</sup>

존 맥아더의 그레이스 공동체 교회도 교회 성장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 교회는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추구한다고 선언, 광고하고 있다.<sup>6</sup>

브라이언 맥라렌이 시작한 씨더 리지 공동체 교회는 다이내믹한 공동체를 약속한다. 그들은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로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고, 세계를 바꾸는 기회와 연결되게 한다”라는 매력적인 말을 했다.<sup>7</sup>

하몬드 제일침례교회는 그들의 목표 대상을 꽤 분명하게 명시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본문만으로 설교하고 영혼의 찬양 같은 구식이고 원칙적인 전통 침례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제공합니다. 와서 보세요”라고 적고 있다.<sup>8</sup>

원칙주의자 챔피, 칼빈주의자 맥아더, 급부상하고 있는 맥라렌의 소비자 중심의 목회를 둘러싼 논쟁거리를 생각해 보자. 물론 식어가기

는 하지만 아직 종교적 기억이 있는 문화 아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시도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인가?

분명하게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은 매력적으로 보여서 사람들을 끌려고 하는 목회 성향을 갖고 있다. 그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말이다. 심지어 그런 용어 쓰기를 꺼리며 이러한 접근법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는 갈보리 교회는 강해식 성경공부와 설교, 예배 음악에 기반을 두고 세워졌다고 말한다. 더 잘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 그러나 변해가는 시대에 이러한 교육과 예배는 제1 갈보리 교회에서 이미 했던 것이다. 데이비드 사바티노는 예수운동(Jesus People Movement, 젊은 세대를 깨우는 영적 각성 운동 -역자 주)을 이끄는 학자이다. 그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갈보리 교회와 예수 운동은 상반되는 두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렬한다. 갈보리 교회는 목사이면서 교육자인 척 스미스 주니어와 히피 스타일 설교자인 로니 프리스비의 협동으로 세워졌다.<sup>9</sup>

스미스가 목회를 담당했던 조그만 교회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미디어의 관심도(「라이프 매거진」과 「타임」지 등) 끌게 된 소비자 중심의 교회였다. 로니 프리스비의 등장으로 이러한 특징이 더 강해졌다. 「오렌지 카운티 위클리」는 이를 두고 “그 지역 젊은이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코스타 메사의 히피 설교자’에 대해 들었는데, 그때부터 건들건들 하며 투박하고 방금 성경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이 히피 목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sup>10</sup>

쉽게 말하면 교회는 종종 관심을 받음으로써 성장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위의 모든 예들의 공통분모는 역동적인 설교자들이다. 사람들은 같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더라도 그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마련이다.

자, 이제 솔직히 털어놓자. 소비자 중심의 모델은 사람들을 끄는 데 꽤 효과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고 좋지 못한 영향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 다소 날을 세운 사람들이라도 이 사실에 있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력적인 것에 유인된다. 이제 남은 사안은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느냐와 어느 정도의 분별을 갖고 이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이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항상 비난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난을 조심스럽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는, 상대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에 ‘어필’할 수 있는 교회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도 잘 짜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사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참고로 목사들은 교회 참석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더 진지한 제

자훈련으로 옮겨가도록 몇 시간 동안 기도와 토론을 열심히 한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빈야드 신시대티의 창립자 스티브 쇼그린이 말한 “와서 보라”란 개념을 기초로 세워졌다. 이 교회는 사회적 현실과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항상 복음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가서 말하라”이며 이것은 쇼그린이 주창한 ‘섬기는 전도(servant evangelism)’를 형성시킨 것이다.”<sup>11</sup>

몇 십 년간 우리는 ‘외양간을 고치는’ 일에 너무 치중했다. 그래서 밀은 저절로 추수되도록 놔두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크고 깨끗하고, 매력적인 외양간을 갖게 되었지만 문화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건물을 말쑥하게 꾸미고 모든 교회를 더 다채롭게 만들어 가던 80년대보다도 교회의 영향력은 더 약해져 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서 전하라’ 식의 접근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반문화적 동네에 살던 겸손한 갈릴리 시골 사람 이상이셨다. 그분은 왕이시며 만백성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각종 다양한 상황에서 말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은 우리를 “가서 전하라(Go and Tell)” 방식과 “와서 보라(Come and See)” 목회 방식,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당신은 두 개가 합쳐진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 봐!

## 배울 점

우리가 소비자 중심의 교회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비신앙인들은 비신앙인처럼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고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과정의 일부이며 또한 결과이다. 여기서의 질문은 교회가 '소비자 중심주의가 있는지, 또는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지'가 아닌 '성경이 희생과 봉사의 삶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교회는 소비자들(불신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확신에 넘쳐있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들은 비현신된 소비자를 현신된 제자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끌렸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다른 기적들을 행할 때, 많은 무리가 그분에게 이끌렸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응답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하셨다. 빈야드 교회의 존 윌버는 '능력 전도(Power Evangelism)'란 개념을 기반으로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능력 복음의 가장 좋은 예로 들었다. 사람을 끄는 일은 성경의 선례 없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무언가를 탁월하게 잘할 때 교회는 성장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을 끌 만한 고급 수준, 탁월함 등 다른 무언가의 요소들이 있을 때 빨리 성장한다. 이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사실이다. 그렇다면 복음은 바뀌지 않더라도 메시지 전달 수단은 바뀐다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다. 문제는 메시지(복음)와 메시지 전달 수단(소비자 중심의 교회 접근 방법)을 헛갈리지 않고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작용할 만한 기회가 있는가? 물론이다. 거기에 걱정거리들도 있는가? 물론이다.

## 고려해야 할 사항

이제 당신은 우리가 이 주제에 있어서 무엇을 경고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으로 하는 반응은 항상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기보다는 과도한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다른 혁신들처럼 여기에도 우려할 사항이 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정리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끌어오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을 발전, 유지시키는 것은 교회 리더들이 할 일이다. 사람들이 소비자 중심의 목회의 자원은 — 물론 역동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의 경우 — 몸으로 실현하는 목회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지역

커피숍에서 세 명쯤 되는 비기독교인 친구들을 매주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교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만약 그렇게 되면 비슷한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등장해서 더 새롭고 더 나은 — 더 멋지고, 더 아동 친화적인, 아니면 더 카리스마 있는 — 방식으로 사람들을 흡수할 것이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쇼를 보여주는 정도의 교회가 될 것이며 곧 그 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여행객들이 던져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곰처럼 그러한 교회는 자발적으로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교회의 매력 포인트는 곧 패망의 요인이 될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참석자들을 둘러싸고 싸울 수도 있다

나(에드)는 은사 중심 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을 컨설팅할 때 종종 “은사 교회라는 최후 수단”이라는 문구를 쓰곤 했다. 제발 오해하지는 말라. 우리가 은사 중심적이 아니라 해서 우리의 논지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것은 ‘교회라는 최후 수단’이나 다른 것으로도 바뀔 수 있다. 이제 설명해 보겠다.

내 친구는 내가 목회했던 한 공동체에 은사주의적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수백 명이 몰려왔다. 예배는 자유로웠고 교회는 성령충만으로 가득 찼다. 그 교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교회의 예배가 더 이상 ‘답답해서 숨 막힐’ 것 같지 않아 좋다

고 흥분했다. 그 동네의 은사 중심적 초대형 교회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탬버린을 가지고 오는 것과 춤추는 것을 막았지만 반대로 내 친구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허용했다. 사람들은 이 교회가 그 마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은사적이기 때문에 끌리게 되었다.

몇 년 안에 다른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 자유해지기로 결정했다! 내 친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많은 사람들은 곧 바로 성령의 다음 ‘움직임’으로 옮겨 탔다. 그들은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열정, 그리고 뭐든지 ‘더, 더 많은 것’에 이끌렸다. 그것이 문제점이다. 매력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만약 그런 일이 당신에게 벌어진다면 떠나는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사람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끌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소비자 중심의 목회는 결국 유인 대결로 이끌 뿐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좋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더 은혜로운 예배는? 더 좋은 음악은?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교회들이 이러한 접근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반면 그 지역 공동체는 교회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란 히르시의 최근 책인 「잊혀진 방법들: 선교적 교회를 재실행하기 *The Forgotten Ways: Reactivating the Missional Church*」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미국에서 교회 성장 모델의 ‘시장 어필’ 정도는 35퍼센트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오스트레일리아의 12퍼센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이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교회의 전략적 의미와 사명적 의미 모두를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sup>12</sup>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복음을 사소한 것으로 전략시킬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인 대중문화나 사람을 끌기 위한 기교 정도로 축소될 수 없다. 흥미롭게도 어떤 변혁적 시도들 중에는 그것이 아웃리치에서 시도되는 것은 괜찮아도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프로 레슬링 선수 및 관계자들을 끌기 위해서 아웃리치를 시작한다고 하자. 조지아 주 캔톤에서 ABC 뉴스는 이렇게 소식을 전할 것이다

[B] 필드는 프로 레슬링에서 9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필드는 프로 레슬링 등에서의 폭력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폭력 사용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프로 레슬링 선수들에게 다가갔는데요, 필드는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고,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 썩 즐겁지는 않았죠”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레슬링 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 기독교 안에서 어떤 신앙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믿음도 가지지 않은 이 레슬링 선수들을 교회로 이끌고 싶었습니다.”<sup>13</sup>

다른 ABC 뉴스에서는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각종 이상하고 기괴한 시도를 하는 피어 팩터(Fear-Factor) 식의 목회를 하는 한 교회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다.

피어 팩터는 참가자들이 위험한 행동이나 먹으면 속이 뒤집히는 음식들을 먹어서 상금을 받는 리얼리티 TV 쇼이다. 이러한 피어 팩터 목회를 시작한 앤토니 마틴 목사를 찾아가 보았다. 앤토니는 “이러한 목회를 통해 아이들은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사용하는 목회의 방법은 자꾸 변하겠지만 복음의 내용은 일관성 있게 유사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sup>14</sup>

만약 정말 레슬러와 역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한 번의 아웃리치 행사가 아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끌어 오고,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과 말씀, 예배는 아무래도 초점을 잃게 된다. 정상적 교회 안에서 역기를 들어 올리는 파워 팀 그룹을 갖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지만, 아예 보디빌더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는 곧 이상한 종류의 힘(성령의 힘이 아닌 근력)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호도 별로 분리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것에 끌리기 때문이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너희보다 ...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더 우월하다!' 라는 생각들 때문이다.

### 난제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사람들이 듣게 되는 메시지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성령님이 아닌, 소비자 중심주의에 의해 소비자 중심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일까?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효과적으로 작용되는 것을 이 시대 문화적 현상으로 봐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만한 기독교 경험, 기억이 급격하게 소실되어 가는 문화 속에서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흔한 형태일 것이다. 또한 그들은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는 부류이기도 하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모든 문화에서 도전이 되었다. 어떤 문화에서도 교회는 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물론 소비자 중심의 교회도, 구별되고 성경적 교회로 남고 싶다면 두 가지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첫째, 어떤 유형의 교회인가 하는 것은 때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수준의 헌신을 하게 한다. 둘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때로는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복음전도 관점을 갖게 한다.

소비자 중심의 목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까? 물론이다. '역동적인, 흥미진진한, 필요에 부응하는'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많은 교회는 성경에 충실하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현재 문화 속에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단지 이 교회들은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회와 도전을 잘 인식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교회 모델은 특정 정황 아래서 더 잘 작용된다는 점과 한번 쉽게 얻은 열매가 사라지면 새롭게 씨를 뿌리고 새로운 밭에서 새로운 추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이 교회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에드)는 엘머 타운즈와 워렌 버드로부터 교회 변혁에 관한 책의 세 번째 공동 저자로 요청받았을 때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우선 기대가 되었던 이유는 요즘에는 변혁 그 자체가 도전해야 할 과제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몇 교회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변혁을 시도하지만 대부분 교회는 아예 변혁과는 상관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변혁에 대해 열린 자세와 분별력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는 출판물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려되었던 이유는 향후 10년간 기독교의 가장 큰 주제 두 가지는 교회론과 선교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론은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선교학은 공동체에 다가갈 때 어떠한 방식과 목회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 책은 이 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유지하기

힘든 균형이며,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

## 변혁의 대상과 중요성

북미의 교회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질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바로 말할 것이다. “현대 문화에 어울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로들이 잘 다스려야 한다”, “가정 교회가 필요하다”, “주석 설교가 필요하다”, “멀티사이트 교회가 필요하다” 등 수도 없이 많다.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제시하는 이유는 북미지역의 교회들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것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변혁’이란 무엇일까? 「엔카르타 백과사전」에 의하면 변혁은 다음의 뜻을 가진다.

1. 창작, 무엇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것을 소개하려는 행동이나 과정.
2. 새롭게 발명된 것이나 새로운 방법(이 부분은 웹스터 사전에서 보충함)

최근에 남아 있는 전통들이 한때는 모두 혁신적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역사를 보면 일부 사람들과 그룹이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 냈다. 초대교회에서 주일마다 모이기로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2세기 후반 초대교회가

건물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은 큰 변혁이었다. 예배자들이 예배 시간에 지정된 곳에 앉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변혁이었다. 몇 세기 후에 교회 시설 안에 실내 화장실과 배수 시설을 들여온 것은 그 당시로 보면 대변혁이었다.

그러나 몇 세기간의 방식과는 다르게 최근 50년 동안에는 변혁, 그 자체가 슬로건이 되었다. 교회들은 혁신하고 또 혁신을 해왔다. 엘머타운즈의 1990년 저서인 「가장 혁신적인 현대 10대 교회 심층 분석 *An Inside Look at Ten of Today's Most Innovative Churches*」에 대표적으로 소개된 교회들을 최근 시각으로 보면 너무 평범하게 보인다. (이들 중에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와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제일침례교회 등이 있다.) 그 교회들이 당시에 선구적으로 추진했던 혁신들은 지금 보면 하품 나는 것들이다.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시도해 보았기 때문이다. 아마 이 책에 나오는 유기적 가정 교회, 사이버 교회 같은 것들도 만약 내가 2020년에 같은 제목으로 개정판을 쓴다면 역시 밋밋해 보일 것이다.

우리 시대의 변혁은, 그것이 급진적이든 평범하든, 깊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별 공헌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교회를 번듯하게 세우고 예배를 다채롭게는 했지만 50년이 지난 후 오히려 현대문화로부터 더 멀어졌고 사람들의 헌신도는 더 약해졌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교회의 깊은 사안에 대해 변혁이 아직까진 그 답을 제시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교회 변혁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방법적인 변혁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복음과 말씀

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여 신학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가 속죄, 성별, 말씀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면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고쳐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메시지를 바꾸는 방법은 당연히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한 방식은 효과도 없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도 수차례 시도되어 왔다. 20세기 초 모더니스트들은 기독교를 현대 과학과 맞춰보려고 시도했지만 과학적으로는 바르게 됐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파산했다. 또 1960년대 몇몇의 주요 교파에서 메시지가 문화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신앙의 적정 경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였다. 슬프게도 이 시도는 뻔한 문화적 메시지,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노력하라, 영적으로 성숙해져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 외에는 당시 문화와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끝나버렸다. 변혁이 말씀을 떠나서 시도된 경우에는 심지어 비기독교인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 당시 문화에 맞는 변혁

이와는 다르게 일부에서는 변혁을 위하여 문화 적응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목회 방법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자체를 변혁시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복음은 여전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유다서 3절과 고린도전서 9장 22~23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우리의 열방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면 사에 성도에게 단번에 구신 믿음의 도움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도니(유 3장)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영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22-23)

유다서 3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데 반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당시 문화 흐름과 '같이 되라'고 말한다. 모두 다 중요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혁신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며 어떤 흐름에 맞추어야 하느냐를 유념해야 한다. 교회와 함께 투쟁해서 지켜내야 할 그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 우리에게는 투쟁해서라도 지켜야 할 신학적, 윤리적, 영적, 공동체적 가치들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당시 문화에 맞추며 변혁해야 할 부분은 있는가? 그렇다. 분명히 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을 위해 싸울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은 현재 문화에 맞출 것인지

를 분별하는 것이다. 특정 문화에 맞춰서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당신에게 주는 도전이다.

교회는 중요한가?

우리가 변혁을 말하면 일부에서는 “교회가 아직도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묻곤 한다. 현재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합당한 질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유럽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혐오하게 되었는데 그 현상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교회는 그 사명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나치주의에 협력했고 국가주의의 힘에 굴복했으며 복음을 위해 싸우기보다 타협만 했다. 몇몇의 사람들이 이 비슷한 문제들을 현대 교회에서 발견한다. 우리 교회는 물질주의부터 소비주의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서 모든 것과 타협하고 있다. 브라이언 맥로렌은 한 영향력 있는 글에서 “만약 교회를 살리는 일이 자기 파괴적인 사명이라면?”이라고 되묻고 있다.<sup>1</sup>

일부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도구임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션은 교회의 사명보다 더 넓은 것을 아우른다고 본다. 그들의 논리는 부분적으로 옳다. 그러나 교회가 비록 하나님 계획의 중심은 아닐지라도 그 중심부임은 맞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다.

교회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짧게 답변을 하자면 “그 말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겠다.<sup>2</sup>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내고 세상 논리를 따르게 되면 교회는 곧 문화와 분리되어 주변으로 밀려날 것이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 내리게 되면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분리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막다른 벽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과 동시에 세상에서도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있어서 중요하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뜻은 교회보다 큰 것이며 교회의 사명은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손이며 발이며 입이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교회와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한다면, 복음 전파의 지상명령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를 단지 종교적 혹은 정치적 단체로 여기는 태도가 기독교인들에게 전염된다면 우리 지역 교회와 교파는 원대한 목표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그저 생존만을 목표로 삼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

교회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열방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행 1:8) 예수님은 그 전에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선언하셨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일에 함께해야 한다. 갈릴리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민족

을 의미한다)으로 제자를 삼아 …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하셨다. 이에 제자들은 열방을 복음화하고 가르쳐 교회를 세움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다. 요한계시록 2~3장에 걸친 일곱 교회에게 쓴 편지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대한 염려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원하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겪은 고난이 교회를 위해서임을 여러 상황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서 교회의 머리시며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고, 5장 25절에 가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주셨다”라고 선포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작은 그리스도)으로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 장로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이라고 높여서 부르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서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돌보고 잘 지키게 의도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의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훈육하고, 세우고, 예배를 통해 힘을 불어넣으라고 격려한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남겼다.

경계를 조심하라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는(유다서 3장에 나오듯이) 복음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동시에 문화적 흐름에 맞출 줄도 알아야 한다(고전 9:22-23에 나온 대로). 복음의 핵심적 가치는 우리가 싸워서 지켜내지 않으면 타

협되어 변혁은 부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일부는 변혁을 위해서 문화적 흐름에 맞게 조정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래야 하는 것들도 있다.

혁신적 시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토요일에 회당에서 모이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변혁은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적 분별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원형과 동떨어진 변혁을 하게 된다. 교회는 간혹 경계선을 넘어서서 목회를 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이 경계가 현대 문화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전통적인 것을 의미한다면(이것도 과거에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 부분은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 되도록 변혁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경계가 성경적 교회와 그것의 핵심 가치들이라면 변혁은 한 발짝 물러나야 하며 문화적 흐름에 맞추는 일은 보류되어야 한다.

### 교회 지도자 혹은 성도에게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11가지 혁신적 교회 모델을 보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장에서는 각종 방법과 원칙을 설명했다. 지도자로서 당신에게 주는 이 책의 전체적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방법과 원칙에 차이가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책에 소개된 많은 교회들이 원칙의 차원이 아닌 방법의 차원에서 변혁을

이룬 경우이다. 카우보이 교회, 서퍼 교회,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 니켈로디언 어린이 교회 프로그램 등. 이것들은 교회가 기존에 목회에 사용하였던 것들과 확실히 다른 '방법'이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화에서 효과적이었던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부딪혀서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시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긴다. 방법은 시간에 따라 바뀌어야만 한다. 200년 전에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을 타고 순회했던 복음주의자의 방법은 요즘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게 당연하다. 다시 한 번 아래 내용을 기억하자.

- 당시 문화에 맞추는 것은 항상 효과적이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성경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이 책에 나온 혁신적 방법도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후에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 이 책의 방법들은 미국 밖의 다른 문화에서는 잘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 책의 방법들이 같은 미국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잘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교회 전통이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 이런 혁신적 시도는 실패와 불안감에서 탄생하며 교회가 성

장을 멈추거나 거의 죽어버린 상황에서 접목이 시도된다. 기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은 “혹시 … 이렇게 되면 어찌지?” 식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한 새로운 변혁을 기도하면서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기억하자. 절대 복음을 바꾸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 전달 방법에 변화는 필요하다.

변혁은 부족한 상황을 느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 소외된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은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는데 이때 회복 목회는 치유의 통로가 된다. 이러한 목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혹시 다른 곳에서 이미 시도해 봤다고 해도 저절로 자라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변혁은 비전에 넘치는 리더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낼 때,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소외시켰거나 다가가지 못했던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위협 부담을 감수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부분의 역동적 변혁이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비롯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형 교회들은 스스로 변화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형 교회들이 하는 것이라곤 교회 신조를 쓰고 목회 모델을 차용하고 자신의 성과를 글로 써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를 변화로부터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보통 ‘이단야’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가진 창업가 스타

일의 리더들이 아무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못한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그들은 요즘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이 필요에 맞게 계획하고 바로 실행에 착수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행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공한 후에는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라 하기 시작하고 이 혁신적 리더들의 목표를 이루는 일을 돕기 위해서 변혁의 기차에 같이 탑승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대부분 혁신은 편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당신의 교회에서 이러한 혁신적 시도에 대해 말하면 몇몇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할 질문과 반박에 대비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에도 미리 준비해두라. 대부분 사람들은 편안한 교회, 편안한 목회에 머물러서 편안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렇다면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데려 가고 그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해서 그들이 지금껏 이루어 본 적 없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대 차이

이제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있는 변혁의 문제를 간단히 다루어 보자. 미국의 과거 50년간에 있어 왔던 세대들은 모두 그 전 세대와 달랐다. 재건 세대(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재건했던 전쟁 세대)는 그들의 부모와는 달리 세계 대공황 시기에 태어났다. 경제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 세대는 자연적으로 성공 중심적이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천 가지가 넘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었고, 성공한 몇 사람은 산업 왕국을 세우기도 했다. 그들의 문화는 역경을 이겨내고 생존자가 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재건 세대이다.

- 재건 세대 : 1926-1946
- 베이비 붐 세대 : 1946-1964
- 포스트모던 세대 : 1964-1988
- 차세대(각종 분파 그룹들) : 1988-2006

미국의 서로 다른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각 세대는 각기 다른 문화를 만들었고 다른 가치 시스템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각 세대는 그들의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나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그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문제에 있어서 종종 그들의 자녀보다 전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과거 세대들은 그들의 세대가 해왔던 과거의 교회 전통을 꼭 붙잡고 자신의 방식을 도무지 바꾸려 들지 않는다. 자녀 세대들이 기독교

를 그들의 문화를 통해 새롭게 표현하려고 할 때 부모 세대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 또 한 번 교회 혁신을 둘러싸고 세대 전쟁이 벌어진다.

재건 세대는 전 세기의 미국적 음악의 부활에 열광하고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연주되는 유럽의 훌륭한 찬양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비트가 더 들어간 음악에 어쿠스틱 기타나 드럼, 플루트도 연주에 조금 가미된 음악을 들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는 마우스 케티어, 피터 폴 앤 메리, 비틀즈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 부모들은 독주곡, 성가 4중주와 성가대를 들으며 자라난 반면 베이비 붐 세대는 성가대가 아닌 찬양 팀을 더 선호했고 또 이들이 연주하는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재건 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 간에는 늘 예배 전쟁이 일어났다.

X세대의 경우 그들 세대와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의 다른 점은 앰프 볼륨 크기의 차이였다.

차세대들은 매끄럽고 잘 닦여지기만 한 교회의 권위적인 것들을 밀쳐내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후 세대는 어떠한가? 차세대들은 이 책에 소개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세대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충돌을 수반한다.

만약 당신이 변혁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한 정서를 알고 싶다면, 음악의 흐름을 보면 된다. 모든 세대는 음악은 자고로 자신들이 사춘기 때 접했던 음악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춘기는

아동기를 벗어나서 자아 인식을 형성하면서 스스로를 성인의 세계로 밀어 넣는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대 때 불렀던 노래나 음악을 일평생 부르며 듣지 않는가? 모든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의 혁신적인 음악을 비난한다.

어쨌든 당신의 자녀는 어떤 '혁신적인' 교회에 나가게 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당신의 교회도 이 혁신적인 교회 중 하나가 될 것인가?" 이다. 이것은 꽤 심각한 질문인데 이는 지금 당신이 하는 방식이 20년 후에는 여러모로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교회는 변하거나 쇠퇴하거나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름 아닌 당신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 너무 과도한 변혁

당신은 이 책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항상 우리의 초점을 복음에 두자. 복음을 변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바꾸게 하지도 말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악기로 연주할 때 당신이 그 연주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연주를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자.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열정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강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이 혁신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

열정은 기존 기독교에서 상실된 하나의 핵심 현(鉉)이다.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안정적인 교회들의 그 자리는 곧 역동성을 잃어버린 황량한 자리가 될 것이다.

보통 우리는 기도나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 심지어 다른 기독교인과의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빨리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가장 좋은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신이 이 책의 변혁을 주의 깊게 시험해 보고 이것들이 당신의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라는 것이다. 당신의 심장에 지상 명령, 구령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지 않는지……. 단지 다른 사람의 교회를 그대로 베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을 위한 틈새 시장을 찾아라!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지 변혁만을 위한 변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디 책에 나온 것을 읽고 "이게 좋겠다" 하고는 단지 색다르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교회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설명한 혁신의 방법이 당신 교회와 당신이 살고 있는 문화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우선 확실히 하자. 당신이 너무 깊은 물에 다이빙해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자.

●이 변혁은 흥분되는 것이지만, 성경적인가?

- 이 변혁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
- 이 변혁이 효과적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효과적인 까?
- 이 변혁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 나는 이 변혁을 좋아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교회에서 시도할 때 교인들이 이를 따르려고 할까?
- 이 변혁은 잘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서 잘될까?
- 이 변혁은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재정이 있는가?

아마 이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 변혁이 나에 의해 시작되긴 했지만 그 최종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내가 그 일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 내가 그때까지 교회에 있지 않다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억하자. 변혁이 일어나는 도중에,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에 사람들은 당신을 다른 목사로 교체할 수도 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던 책 「메가트렌드 *Megatrend*」의 저자 존

나이스빗(John Naisbitt)은 그 책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어정쩡하게 붕 뜬’ 시기에 살고 있다. 이것은 두 시대 사이에 낀 시간이다. 산업시대는 끝나고 있고 우리는 정보중심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많은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변혁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변혁을 실행할지를 결단하고, 그 전에 변혁이 가져 올 변화의 장단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변혁이 좋은 것만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변혁에 정직하자. 그리고 당신이 이 ‘어정쩡하게 붕 뜬’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우리가 살았던 어떤 때보다도 전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기회가 넘쳐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 배워야 할 11가지 진실

고대-미래 교회에서 과거의 예배 의식과 신조가 탈기독교 시대에 다시 한 번 교회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한다는 것과 몇몇의 교회들이 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유기적 가정 교회는 기독교의 단순한 진실을 돌아보게 했다. 우리는 복잡한 프로그램, 건물, 비싼 악기, 어느 정도의 재정, 정교한 기반 시설이 없이도 이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교육을 담당하고 사람들 간 유대감이 형성되는 교회임을 확인했다.

도시 복음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이 교회들은 그들의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 1:8)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는 지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에 참여하여 그들의 공동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태도를 가지고 선한 사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이버 교회는 정보 기술을 사용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굳건히 하는 일을 돕는다. 이 교회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교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목표를 이행하고 항상 열린 공간에서(인터넷)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도록 돕는다.

니켈로디언 스타일의 주일학교 특성화 교회는 다감각적 접근을 통해서 세서미 스트리트 세대에 다가가고 이들을 교육시키라고 말한다. 이것은 요즘 아이들은 감각기관의 체험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배우도록 자라났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회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를 목표로 두고 이를 실행하는 중이다.

여정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회심'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

람이 이것을 외부적으로 선언하는 그 이상의 어느 것도 아니며 따라서 교회는 더 성경적으로 정확한 구원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의 예비단계를 거치고 있을 때 이미 구원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람들이 너무 선부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멀티사이트 교회는 한 교회가 가진 자원(재정, 관리감독, 인력, 정보와 자료 등)을 결집시켜 교회 설립에 쏟아 부을 때 더 많은 공동체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 장소에서 의도한 대로, 계획적으로 확장된다.

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6)는 신념을 바탕으로 상처받고, 종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도움과 치유와 원조를 제공해준다. 이것은 종종 상담, 교육, 친밀한 관계형성과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는 가능한 모든 사람을 끌기 위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목회에 사용한다. 이것은 신자에게는 영적 성장,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란 문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공동체를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화하게 된다.



## 책의 의미

이 책이 당신과 당신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은 지금 세계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개괄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 교회 모델을 따라해보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몇몇 교회는 이러한 교회 모델을 따름으로 인해서 활력을 얻기도 하겠지만 다른 경우는 이러한 모델들이 당신 교회에게는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해 볼 때 교회가 오히려 정체되고 심지어 분열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신을 격려하기를 원한다. 당신은 그 교회들과 전혀 비슷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그들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이들을 실제로 따라하든 아니든 우리는 당신이 이 교회들로부터 배우길 원한다. 그들은 당신 교회와는 구조 자체부터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지만, 이 교회들은 당신 교회의 초점을 더 분명하게 만들거나, 당신 교회 프로그램을 다른 장소에서도 행하거나 지부 등을 확장하는 일에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11가지 변혁을 통해서 어떤 것이라도 배웠다면 우리는 초기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우리의 큰 목표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부활시키는 것이다. 물론 몇몇 교회의 경우 그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 뒤쳐져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책이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서 당신의

교회에 새 생명과 부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안다. 우리가 이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쏟아 붓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극대화되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변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변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후원자인*

엘머 타운즈, 에드 스테저, 워렌 버드

## 극단의 교회들

몇몇 교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극단으로 가기도 한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일부가 되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델을 본받아 이들은 교회 자체를 끌고 다른 세계에 진입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위해 고기 낚는 비유("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 4:19)를 쓰셨던 것처럼, 농부들의 경우 농경 용어가 그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교회들은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그룹과 예수님을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태도를 갖고 여기에 임한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22-23).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어떤 이들은 교회의 영역 안에서,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사역의 영역 밖에서 중점적으로 목회를 하기도 한다. 이들 중 몇몇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간혹 심히 적정

스러운 극단의 방법으로 치우쳐 가기도 한다.

### 배우 교회

런던의 서쪽 끝에 있는 한 교회는([www.actorschurch.org](http://www.actorschurch.org)) 특별히 연극 관련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교인은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교회의 원래 이름은 성 바울 언약 가든(1633년에 세워졌다)이었지만 연극배우들, 극작가, 연출자들이 이 교회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게 되면서 '배우 교회'란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이 교회는 주일 예배와 콘서트, 문학과 연극 행사를 제공한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볼 수 있다.

### 카우보이 교회

테네시 주 네쉬빌의 카우보이 교회([www.nashvillecowboychurch.org](http://www.nashvillecowboychurch.org))는 극장을 교회 건물로 쓰고 있는데, 완전한 시골 정취와 웨스턴 밴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다. 이 교회 분위기는 사람들이 평소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 분위기여서 청바지 차림으로 편안히 온다. 예배자들이 꼭 다 카우보이일 필요는 없지만 모두 웨스턴 문화를 즐기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안 내위원은 모자를 돌려서 현금을 걷는다. "마음속에서 저는 항상 카우보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의 목장에서 자라난 해리스 예이트 목사가 말했다. "저는 쓰리 피스 양복(조끼까지 있는 양복)과 타이틀 꼭 매고

다니는 부류와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이런 동일한 이유로 교회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창조해냈고 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라이브-인 교회(Drive-in: 차를 탄 채로 들어가는 식당, 휴게소, 영화관 등)  
플로리다 주 데이тона 해변의 데이тона 크리스천 교회(www.driveinchurch.net)는 1953년부터 있던 자동차 극장을 교회로 바꾸었다. 사람들이 차를 세우면 안내위원들은 그들에게 주보와 예배 기기를 건네준다.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FM 88.5에 맞추면 예배가 시작된다. 벽도 없고, 장의자도 없는 교회에서 사람들은 아멘을 외치거나 박수를 치는 대신에 클랙슨을 울린다. 안내위원들은 헌금통을 돌리는 대신에 골프 카트를 차 사이사이로 몰고 다니면서 헌금을 걷는다. 영화 스크린이 있던 곳은 여러 단으로 높은 강대상과 성가대석으로 대체되었고 스낵 파는 곳은 공동체 친목 도모 홀로 바뀌었다.

#### 힙합 교회

플로리다 주 탬파의 크로스오버 공동체 교회는 힙합 중심인 교회로서 예배는 비디오 클립과 랩퍼, 디제이와 비트 박스를 통해 기독교적인 맛을 내고 있다. 목회자 본인도 랩퍼이다. 영적인 메시지가 힙합 문화의 음악적이고 시각적인 요소들과 잘 어우러져 있다. “처음에 우리

는 이러한 시도가 과연 잘 될까 걱정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청소년 목회에는 효과적이지만 전체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턴테이블을 주일날 가져와도 되나요?”라고 담임목사는 말했다.

#### 모터보트 교회

워싱턴 주의 듀네딘의 새 목적 공동체 교회는 2004년 시작했고 성 요셉 사운드가 보이는 부둣가 근처의 레스토랑을 개조해서 교회 건물로 쓰고 있다. 한 지역 신문이 이를 두고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티키 바(tiki bar, 하와이언 풍의 야외 바)와 간이 선착장과 안내 데스크를 모두 갖춘 유일한 교회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 교회에서는 술 대신 공짜 스타벅스 커피와 소다 같은 음료를 제공한다. 대형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트 부두 앞과 뒤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의 상황을 볼 수 있게 했다.

#### 야외 교회

플로리다 주 스투어트의 숲속의 교회는 초교파 교회로, 2001년에 시작되었다. 이곳에는 장의자나 스테인드글라스도 없고 말 여물통에 사람을 담그는 것으로 침례를 한다. 이 교회는 138에이커의 소목장에 위치해 있고 깔개가 깔린 스테이지와 각종 색깔의 캔버스 천막을 친 피크닉 테이블이 즐지어 서 있다. 또한 짙으로 지붕을 올린 전망대와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데 교회는 매주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악어와 곰, 뱀 등을 주의하도록 하라고 광고한다(현재 웹사이트

트가 없다).

#### 감옥 교회

텍사스 주 락월에 있는 레이크 포인트 교회는(www.lakepointe.org) 지역 교도소에서 몇 년간 매주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남성들, 여성들 따로 드리는데 예배 팀은 수감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이끈다. 대부분 수감자들은 예배 중 처음 온 사람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오면 낄낄거린다. 설교는 본부 교회의 최근 설교 DVD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 스케이트 교회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은혜의 장소 교회(www.graceplace.org)는 스케이팅 목회라고 스스로 정의한 사역을 매주 주차장에서 한다. 많게는 40명의 스케이터들이 90분의 수요일 밤 무료 스케이트 수업에 참가한다. 교회는 장비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을 한다. “나는 이 사람들이 ‘스케이팅은 인생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맥지니스 청소년 사역 목사가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스케이팅 세션이 끝나면 교회는 저녁 7시에 ‘유티’이라는 청소년 예배를 드린다.

#### 극장 교회

워싱턴디씨에 있는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www.theaterchurch.com)는 유니언 역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을 교회 건물로 사용한다. 이 교회는 할리우드에 의해 강하게 틀에 맞춰진 오늘날의 문화를 상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 바로 옆에 복구된 유니온 역 기차 터미널은 그 도시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로 사람들은 이 교회를 금방 찾을 수 있다. 교회 위치는 지하철역에서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옆에는 택시 정류장과 통근 주차장도 있다. 하나의 큰 강당은 어른들을 위한 예배실로 쓰고, 다른 강당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 사용하며 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은 근처의 40개 푸드 코트에서 식사를 하며 친밀한 유대를 쌓는다.

#### 언더그라운드 교회

언더그라운드 교회는 2002년 뉴욕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의 기독교인 펑크족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교회의 어린 교인들은 뽀족뽀족한 번개 머리카락이나 레게 머리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매주 이스트 제칠 침례교회(East Seventh Baptist Church)에서 하는 성경공부에 참석하는데 이 교회는 종종 그래피티 교회라고 불리기도 한다(www.graffitichurch.org).

새로운 교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http://www.newchurches.com/public/about/index.php>를 방문하기 바란다.

## 저자 서문

1.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개정판, (HarperSanFrancisco), 1975.

## 서론

1.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03).
2. 1969년 나(엘머)는 *The Ten Largest Sunday Schools*를 썼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책에 나온 교회 모델과 주일학교 모델을 따라했다. 이 책을 읽으려면 [www.elmertowns.com](http://www.elmertowns.com)이란 사이트에서 Books/Books Online을 클릭할 것. 교회 변혁에 관한 두 번째 책 *Ten of Today's Innovative Churches* (1990년)도 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다.
3. Elmer Towns, *Theology for Today* (Fort Worth, TX: Harcourt Custom Publishers, 2001) pp. 649-651.
4. Elmer Towns & Douglas Porter, *Churches That Multiply*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2003).
5. Wolfgang Simpson, 2006년 4월 25일 [HouseChurchBlog.org](http://housechurchblog.org), [http://sojourner.typepad.com/house\\_church\\_blog/2005/04/wolfgang\\_simpson.html](http://sojourner.typepad.com/house_church_blog/2005/04/wolfgang_simpson.html)
6. "What is Purpose Driven", [PurposeDriven.com](http://www.purposedriven.com/en_US/AboutUS/WhatIsPD/7+Myths+of+PD.htm), 2007 [http://www.purposedriven.com/en\\_US/AboutUS/WhatIsPD/7+Myths+of+PD.htm](http://www.purposedriven.com/en_US/AboutUS/WhatIsPD/7+Myths+of+PD.htm)(목적이 이끄는 삶)
7. Elmer Towns, *Putting an End to Worship Wars*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1996).

8. Elmer Towns & Ed Stetzer, *Perimeters of Light* (Chicago, IL: Moody Publisher, 2004).
9. Leadership Network. <http://www.leadnet.org/Innovation2007.asp>에 책에 나온 부분 언급됨.

## 1장 \_유기적 가정 교회

1. "Our History: 1990-Present" Church Multiplication Associates, 2003. <http://www.cmaresources.org/about/history.asp> 6년간 널 콜은 32개 주와 23개 나라에 있는 700여 개 교회 설립을 도왔다. 이 Church Multiplication Associates은 널 콜이 공동 창립한 유기적 가정 교회 네트워크로서 대부분의 가정 교회들이 이를 통해서 설립되었다.
2. Neil Cole, *Organic Church: Growing Faith Where Life Happens* (SanFrancisco: Jossey Bass, 2005) p.xxii.
3. 위와 동일한 책, p.xxiv.
4. 위와 동일한 책, p.xxv.
5. 위와 동일한 책, p.xxiv.
6. "Rapid Increase in Alternative Forms of the Church Are Changing the Religious Landscape" *The Barna Update*(본문에 나온 바나 연구소의 전문 소식지), 2005년 10월 24일. <http://www.barna.org/FlexPage.aspx?Page=BarnaUpdateNarrow&BarnaUpdateID=202>
7. Center for Missional Research 공식 홈페이지 주소: [www.missionalresearch.info](http://www.missionalresearch.info)
8. 위와 동일
9. "House Churches Are More Satisfying to Attenders than Are Conventional Churches" *Barna Update* (바나 연구소 전문 소식지), 2007년 1월 8일자.

<http://www.barna.org/FlexPage.aspx?Page=BarnaUpdateNarrowPreview&MarnaUpdateID=255>

10. Ed Stetzer, *Planting Missional Churches* (Nashville, TN: Broadman and Holman, 2006).
11. J. S. Henkel, *An Historical Study of the Educational Contribution of 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 박사 학위 논문. University of Pittsburgh, 1962. Henkel 의 연구 내용은 엘머 타운즈의 책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5) pp. 82-88 에 나와 있다. 이 책 또한 [www.elmertowns.com](http://www.elmertowns.com)에서 볼 수 있다(reference 클릭).
12. "The Full Story", Lights of Christmas Worldwide Ministries.  
<http://www.thelightsofchristmas.org/christmas/story.html>
13. Elmer Towns와 Roscoe Brewer는 1970년 말에 24개의 중국어 성경책을 열차 객석에 실어서 몰래 중국에 들여보냈다. 열차 승무원이 이것을 300마일 떨어진 사람들에게 손에서 손으로 보냈고 그 주변 교회들은 성경을 한 달에 한번 돌려 읽을 수 있게 되었다.
14. T. Austin-Sparks, "What is the Church?", T. Austin-Sparks의 온라인 서재.  
<http://www.austin-sparks.net/english/000433.html> 에서 읽을 수 있다
15. 가정 교회를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고 싶다면 Frank Viola, *So You Want to Start a House Church: First Century Styled Church Planting for Today* (Gainesville, FL: Present Testimony Ministry, 2003) pp. 114-116을 참고할 것. 이 책은 <http://ptmin.org/movement.htm>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16. Frank Viola의 "An Interview with a Modern-Day, Sunday-Morning, Church-Going Christian" *TheOoze*. 2005년 10월 15일자.  
<http://www.theooze.com/articles/article.cfm?id=1255>
17. Randy Frazee, *The Connecting Church*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1).

18. Thom Rainer & Eric Geiger, *Simple Church* (Nashville, TN: Broadman and Holman, 2006).
19. David Garrison, *Church Planting Movements* (Midlothian, VA: WIGtake Resources, 2003).

## 2장 \_회복 목회 중심의 교회

1. 'Salvation Army' (구세군)란 단어를 *Encyclopedia Americana*(아메리카나 백과사전) 에서 찾음. 16권, p. 136.
2. Neil Anderson, *The Bondage Breaker* (Eugene, OR: Harvest House, 2000).
3. John Baker, *Celebrate Recovery*(회복의 기쁨) 공식 웹사이트  
<http://www.celebraterecovery.com/index.shtml>
4. Teresa Mcbean & Warren Bird의 인터뷰 중. (2006년 9월 1일, 텍사스 주 델러스)
5. "Teen Challenge's Proven Answer to the Drug Problem: A Review of a Study by Dr. Aaron T. Bicknese, *The Teen Challenge Drug Treatment Program in Comparative Perspective*,"  
Teen Challenge(틴 챌린지) 웹 주소: [http://www.teenchallengeusa.com/about\\_studies4.html](http://www.teenchallengeusa.com/about_studies4.html)

## 3장 \_멀티사이트 교회

1. Elmer Towns, *10 of Today's Most Innovative Churches* (Ventura, CA: Regal Books, 1990), pp.163-173.
2. "Survey of 1,000 Multi-site Churches"를 볼 것. [www.leadnet.org](http://www.leadnet.org)에서 만 제공 가능하다.
3. 위와 동일한 자료
4. 위와 동일한 자료

5. Geoff Surratt, "Should Your Church Consider a Multi-Site Strategy", Rick Warren's Ministry Toolbox 제 263권 2006년 6월 14일자로 실림.  
http://www.pastors.com/RMWT/?id=263&artid=9533&expand=1
6. Thom Rainer, "One Church, Two Locations", *Outreach* 제 4권 4호 (2005년 7/8월) p.18.
7. www.multi-site.org를 참고할 것.
8. Geoff Surratt, Greg Ligon & Warren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Being One Church in Many Location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6).
9. Bill Easum & Dave Travis, *Beyond the Box: Innovative Churches that Work* (Loveland, CO: Group Publishing, 2003), p.85.
10. Elmer Towns, *How to Go to Two Services* (Forest, VA: Church Growth Institute, 1989) 이 책 내용과 관련된 비디오 자료나 정보가 들어가 있는 비디오 패키지는 www.churchgrowth.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 W. Charles Arn, *How to Start a New Service: Your Church Can Reach New Peopl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7).
12. Mark Jobe의 "Unlikely Candidate" 글을 읽을 것. *Leadership Journal* 에 2003년 7월 1일 실림.  
http://www.christianitytoday.com/le/2003/003/6.46html. Michael Pocock & Joseph Henrique, *Cultural Change and Your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3) pp. 179-192와 "My Patient Revolution: An Interview with Mark Jobe," *Leadership Journal*, 2005년 봄호, 사이트 주소는http://www.christianitytoday.com/le/2005/002/1.20html 이다.
13. 위에 나온 Surratt, Ligon &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p.51.
14. 위와 동일한 책

15. "Church Franchise a Hit, But Hostile Take-overs Rattle Congregations," LarkNews.com에 실림. http://larknews.com/march\_2006/secondary.php?page=1
16. 나온 용어나 표현은 위에 언급되었던 Surratt, Ligon &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p.144-145에 나온다.
17. 위와 동일한 책, pp.80-81.
18. Geoff Surratt, "Ideas on How to Fund a Multi-Site Ministry" Pastor.com  
http://www.pastors.com/RWMT/article.asp?ArtID=9588
19. Surratt, Ligon &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p.113
20. 위와 동일한 저서, pp.164-165
21. www.leadnet.org, "Survey of 1,000 Multi-Site Churches"
22. Surratt, Ligon &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p.54
23. Thom Rainer & Eric Geiger, *Simple Church* (Nashville, TN: Broadman and Holman, 2006).

#### 4장 고대-미래 교회

1. Dan Goetz가 편집자인 ChurchLeadership.net의 제11호, 1999년 6월 2일 실림. http://www.christianity.net/cln
2. Sally Morgenthaler, *Worship Evangelism*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5) p.30.
3. 1999년 11월 11일 텍사스 주 댈러스에 있었던 "Church Champion" 행사 (주최:Leadership Network)를 참여했던 Warren Bird가 메모했던 내용을 발췌함.
4. Richard J. Mouw, "The Missionary Location of the North American Churches"은 Craig Van Gelder가 편집자인 *Confident Witness-Changing Worl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의 p.8에서 인용되었다.

5. Elmer Towns & Warren Bird, *Into the Future: Turning Today's Church Trends into Tomorrow's Opportunities* (Grand Rapids, MI: Revell, 2000), pp. 151-158.

#### 5장 도시 복음화를 위한 교회

1. Al Weiss가 Vision USA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http://www.vision4usa.com/index.cfm?page=7>

2. 위 자료와 동일

3. Jerry Falwell, *Capturing Your Town for Christ* (Old Tappan, NY: Fleming H. Revell Company, 1973).

4. Ed Silvano, *That None Should Perish* (Ventura, CA: Regal Books, 1977), *Prayer Evangelism* (Ventura, CA: Regal Books, 2000).

5. Frank Damazio, *Crossing Rivers, Taking Cities* (Ventura, CA: Regal Books, 1999).

6. John Fuder, *A Heart for the City* (Chicago, IL: Moody Press, 2000)

7. Jerry Falwell, Baptist Bible College(미주리 주 스프링스필드에 위치)의 졸업생이다. 엘머 타운즈는 그 학교 교목은 보통 이렇게 말하며 학생들을 독려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졸업을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지역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영혼을 얻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 도시를 공략하십시오."

8. Jerry Falwell, *Building Dynamic Faith* (Nashville, TN: World Publishing Inc., 2005) p.59.

9. Elmer Towns, *A Practical Encyclopedia of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Ventura, CA: Regal Books, 1995), p.348.

10. "Super Aggressive Evangelism"(본문에서는 초 공격적 복음 전도로 번역)이란 단어는 엘머 타운즈가 제리 포웰의 열정과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11. Elmer Towns, *The Ten Largest Sunday School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69) pp.99-104

12. 위에 언급된 적 있는 Silvano, *That None Should Perish*, p.32.

13. Prayer Walking(땅 밟기 기도)

14. Silvano, *That None Should Perish*, p.52.

15. 위와 동일한 책, p.294.

16. 위와 동일한 책

17. Ed Silvano의 또 다른 저서, *Prayer Evangelism*, p.127.

18. 위와 동일한 책, p.131

19. 위와 동일한 책, p.132

20. Frank Damazio, *Crossing Rivers, Taking Cities* (Ventura, CA: Regal Books, 1999), pp.169-170.

21. 위와 동일한 책, p.174

22. 위와 동일한 책, p.287

23. 위와 동일한 책

24. Jack Dennison, *City Reaching: On the Road to Community Transforma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9), pp. xiii-xiv

25. 위와 동일한 책

26. Elmer Towns, John N. Vaughan, David J. Seifert, *The Complete Book of Church Growth*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ers, 1990) pp.61-68

27. Larry Stockstill, *The Cell Church* (Ventura, CA: Regal Books, 1998)

28. Tim Keller, "A New Kind of Urban", *Christianity Today* 2006년 5월호. <http://christianitytoday.com/ct/2006/005/1,36.html>

29. Timothy J. Keller & J. Allen Thompson, *Church Planter Manual* (New York, NY: Redeemer Church Planting Center, 2002), p.8.

30. Glenn Smith, "Articulating the Mission of God in the Large City/Regions Across the Globe: Background Paper in Preparation



for the Urban Issue Group of the 2004 World Evangelism Forum” (Montreal, Quebec: Christian Direction Inc., 2004), p.3.

31. Robert C. Linthicum, “Networking: Hope for the Church in the City”, *Urban Mission* (1987년 1월)에 실린 내용이 Glenn Smith가 편저자인 *The Gospel and Urbanization* (Montreal Quebec: Christian Direction Inc., 1990)의 p.3-42에 나옴

#### 6장 \_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1. Bob Roberts, *Transformation: How Global Churches Transform Lives and the World*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6).
2. Lianne Hart, “Churches Putting Town Out of Business”란 제목의 글, 2006년 9월 7일자 Los Angeles Times.  
<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nation/la-na-churches31jul31,0,6286040.story?coll=la-home-nation>
3. Rick Rusaw & Eric Swanson, *Externally Focused Church* (Loveland, CO: Group, 2004) pp. 28-29.
4. Charles Roesel, *World Magazine*, 제20권 32호, 2005년 8월 20일자
5. Charles Roesel, Lee Weeks에서 “Meeting People’s Needs Yields Harvest of Souls, Pastor Says” *Baptist Press*, 2004년 8월 11일자 한 말
6. 위에도 언급되었던 Rusaw & Swanson, *Externally Focused Church*, pp. 20-21
7. Robert Lewis & Rob Wilkins, *The Church of Irresistible Influenc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1).
8. Robert Lewis & Wayne Cordeiro & Warren Bird, *Culture Shift: Transforming Your Church from the Inside Out* (San Francisco: Jossey-Bass, 2005) p.138.
9. 위와 동일한 저서, pp.127-142.
10. William G. McLoughlin의 “Revivalism”은 Edwin Scott Gaustad가 편저자인 *The Rise of Adventism*에 인용되었다.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p.132.
11. Stephen L. Carter, *The Culture of Disbelief: How American Law and Politics Trivialize Religious Devotion* (New York: Basic Books, 1993), pp.23-43.
12. Tim Stafford, “The Criminologist Who Discovered Churches”, *Christianity Today*, 1999년 6월 14일자 실림, 제43권 7호 pp.35-39.
13.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How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a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7).
14. Jerry Pierce, “Rick Warren: Rebuilding Always More Difficult than Building”이란 제목의 글. Purpose Driven (목적이 이끄는 삶) 사이트  
<http://www.purposedriven.com/en-US/HurricaneRelief/News/rebuilding.htm>
15. Adolph von Harnack & Thomas Bailey Saunders, *What is Christianity?* (Minneapolis, MN: Augsburg Press, 1987).
16. Walter Rauschenbusch, *A Theology of the Social Gosp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n Knox Press, 1997).
17. Elmer Towns & Warren Bird, *Into the Future: Turning Today’s Church Trends into Tomorrow’s Opportunities* (Grand Rapids, MI: Revell, 2000), p.245.
18. George Hunter & Dale Galloway, *Making Church Relevant, Beeson 시리즈*, 2번째 개정판에서 언급한 내용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1999), p.255.
19. George G. Hunter, *How to Reach Secular People* (Nashville, TN: Abingdon, 1992); *Church for the Unchurched* (Nashville, TN:

Abingdon, 1996); *The Celtic Way of Evangelism: How Christianity Can Reach the West ... Again* (Nashville, TN: Abingdon, 2000).

## 7장 \_사이버 교회

1. 이 장을 시작하면서 든 일화는 Paul D. Rosevear의 “10 E-Learning Questions You Wish You Had Answered, Continued”란 제목의 글에서 나온다. [http://reference.aol.com/onlinecampus/campusarticle/\\_a/10-elearning-questions-you-wich-you-had/20050829212309990001](http://reference.aol.com/onlinecampus/campusarticle/_a/10-elearning-questions-you-wich-you-had/20050829212309990001)
2. Geoff Surratt, Greg Ligon & Warren Bird, *The Multi-Site Church Revolut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6).
3. 이것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Mark M. Stephenson, “From a Single Page to Web-Empowering Churches Worldwide”란 글을 보 것. *The Internet Evangelism Coalition*의 2006년 7월자. <http://www.webevangalism.com/Brix?pageID=19155>
4. Mark Stephenson, *Web-Empower Your Church: Unleashing the Power of Internet Ministr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7).
5. 위와 동일한 책, p.88.
6. 위와 동일한 책, p.84.
7. Lee Rainie 의 “CyberFaith: How Americans Pursue Religion Online” 이란 글.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2001년 12월 23일자. <http://www.pewinternet.org/reports/toc.asp?Report=53>
8. Ellison Research 의 연구는 *Facts & Trends* 2006년 1월/2월호에 실렸다. (LifeWay Christian Resources 출판물)
9. “More People Use Christian Media than Attend Church”란 글. *The Barna Update* 지의 2005년 3월 14일자. <http://www.barna.org/FlexPage.aspx?Page=BarnaUpdate&BarnaUpdateID=184>
10. Rainie, “CyberFaith: How American Pursue Religion Online”
11. Eric Tiansay, “Online Religion is Bigger Attraction than Money,

Report Says”란 글. Charisma News Service의 2001년 12월 31일자, 제 3권, 195호. <http://strang.com/search.php?sp=30&query=tiansay>

12. Brenda Brasher, *Give Me that Online Religion* (Piscataway,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와 John J. Shaughnessy, “Web Opens New Window on Religion”이란 글-Christian.com, 2005년 2월 27일자에 실린 내용을 참고할 것 <http://www.christian.com/ArticlesDetail.asp?id=1715>
13. Rainie, “CyberFaith: How American Pursue Religion Online”
14. Mark Batterson, “Godcasting” *Christianity Today*에 2006년 봄호, 제 XXVII권, 2호. <http://www.christianitytoday.com/1e/2006/002/9.81.html>
15. Rainie, “CyberFaith: How American Pursue Religion Online”
16. Sherri Day, “Faithful, Church Connect Online”이란 글. *St. Petersburg Times*에 2006년 6월 6일 실림.
17.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www.themobileword.com](http://www.themobileword.com)을 방문.
18. Batterson, “Godcasting”, *Christianity Today* 수록
19. Neela Banerjee의 “Intimate Confessions Pour Out on Church’s Web Site”란 글. *New York Times*에 2006년 9월 1일자에 실림. [http://www.nytimes.com/2006/09/01/us/01confession.html?\\_r=1&ref=us&oref=slogin](http://www.nytimes.com/2006/09/01/us/01confession.html?_r=1&ref=us&oref=slogin)
20. 앞의 두 문단의 내용은 Paul Steinbrueck이 2006년 10월 27일자 블로그에 올린 포스팅에서 사용하였다. <http://blog.ourchurch.com/2006/10/27/the-lifechurchtv-internet-campus/>
21. “Most Churches Did Not Answer the Phone”이란 글. *Barna Update* 에 2004년 1월 26일자 수록. <http://www.barna.org/FlexPage.aspx?Page=BarnaUpdate&BarnaUpdateID=157>

22. Carl George & Warren Bird,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참고. (Grand Rapids, MI: Revell, 1991), pp. 110-111.

#### 8장 \_주일학교 특성화 교회

1. Elmer Towns, *The Ten Largest Sunday Schools and What Made Them Grow* (Grand Rapids, MI: Bakers Book House, 1969).
2. Elmer Towns, *The Town's Sunday School Encyclopedia* (Wheaton, IL: Tyndale House, 1993) pp.278-279.
3. Philip Conner가 편자자인 *Children's Evangelism Survey Research Report* (Alpharetta, GA: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2005) 이 연구는 [www.missionalresearch.info](http://www.missionalresearch.info)에서도 제공 가능하다.
4. 위와 동일한 책
5. 위와 동일한 책

#### 9장 \_다문화 교회

1. "Redmond, Washington: Demographics,"란 연구. Experts Archive의 2000 census data에 속함.  
[http://experts.about.com/e/r/re/Redmond,\\_Washington.htm](http://experts.about.com/e/r/re/Redmond,_Washington.htm)
2. "Kirkland, Washington: Demographics,"란 연구. Experts Archive의 2000 census data에 속함.  
[http://experts.about.com/e/k/ki/Kirkland,\\_Washington.htm](http://experts.about.com/e/k/ki/Kirkland,_Washington.htm)
3. Antioch Bible Church 웹사이트: [www.abchurch.org](http://www.abchurch.org)
4. Bridgeway Community Church 웹사이트: [www.bridgewayonline.org](http://www.bridgewayonline.org)
5. David Anderson, *Multicultural Ministry: Finding your Church's Unique Rhythm*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4)
6. George A. Yancey, *One Body, One Spirit: Principle of Successful Multiracial Church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3) 또한 Manuel Ortiz, *One New People: Models for Developing a Multiethnic*

*Churc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도 참고할 것.

7. 위와 동일한 책, p.15
8. Jim Cymbala, *Fresh Wind, Fresh Fire: What Happens When God's Spirit Invades the Hearts of His Peopl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7) 또한 Jim Cymbala & Dean Merrill, *Fresh Faith: What Happens When Real Faith Ignites God's Peopl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3)도 참고할 것.
9. "Our Mission, Vision and Values", Church On the Way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다.  
[http://tcotw.org/landing\\_pages/15,3.html](http://tcotw.org/landing_pages/15,3.html)
10. Scott Thumma, Dave Travis & Warren Bird, "Megachurches Today 2005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Hartford Institute for Religious Research.  
[http://www.hartfordinstitute.org/megachurch/megatoday2005\\_summaryreport.html](http://www.hartfordinstitute.org/megachurch/megatoday2005_summaryreport.html)
11. Dave Galloway & Warren Bird, *Starting a New Church: How to Plant a High-Impact Congregation*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2003), pp.29-31.
12. Orlando Crespo, "Our Transnational Anthem" *Christianity Today*에 2006년 8월, 제50권 8호, p.20에 수록되었다. <http://www.christianitytoday.com/ct/2006/008/35.32.html>

#### 10장 \_여정 교회

1. Community Christian과 관련된 더 알고 싶으면 Dave Ferguson, Jon Ferguson & Eric Bramlett, *The Big Idea: Focus the Message, Multiply the Impact*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7)를 참고할 것.
2. 여정 목회 접근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Nelson Searcy & Kerrick

- Thomas, *Launch: Starting a New Church from Scratch* (Ventura, CA: Regal Books, 2007)를 참고할 것.
3. Elmer Towns & Douglas, *The Ten Greatest Revivals Ever* (Ann Arbor, MI: Servant Publications, 2000) pp.84-85.
  4. Charles Gradison Finney, *Lectures on Revival* (Minneapolis, MN: Bethany House Publishers, 1989) Finney는 처음으로 교회 부흥의 방법/목회를 시스템하고 정립한 사람 중 하나이다.
  5. Towns & Porter, *The Ten Greatest Revivals Ever*, p.131.
  6. 위와 동일한 책
  7. 관련된 정보를 더 얻고 싶으면 Bible.com 의 "Instantaneous Salvation"을 볼 것.  
([www.gotothebible.com/HTML/Sermons/instant.html](http://www.gotothebible.com/HTML/Sermons/instant.html)) 이 설교는 현재까지 설교 중, 가장 훌륭한 10대 설교 중 하나로서 구원에 대한 기존 목회 개념 자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간 후 구원에 이르게끔 한다는 방식이 주였는데 이와는 달리 무디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무디의 이 설교 이후, 빌리 그레이엄의 '결단'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천천히 변하게 되었다.
  8. "Billy Graham and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historical Background" Billy Graham Center Archives, Wheaton College. <http://www.wheaton.edu/bgc/archives/bio.html>
  9. Elmer Towns, *The 10 Largest Sunday Schools and What Made Them Grow* (Grand Rapids, MI: Bakers Book House, 1969).
  10. Dallas Billington, *God Is Real*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1962).
  11. Elmer Towns & Ed Stetzer, *Perimeters of Light* (Chicago, IL: Moody Press, 2004).
  12. Andy Stanley- Ed Stetzer와의 인터뷰 중에서(2002년 8월 25일)

## 11장 \_소비자 중심의 교회

1. Dale Galloway & Warren Bird, *Moving from Maintenance to Ministry* (Kansas City, MO: Beacon Hill Press, 2007)
2. Doug Murren, *Baby Boomerang: Catching the Boomer Generation as They Return to Church* (Ventura, CA: Regal, 1990)
3. Doug Murren, *Leadershift* (Mansfield, PA: Kingdom Publishing, 1999), pp.185-186.
4. Rick Rasberry, "An Analysis of the Friend Day Program, Written by Elmer Towns and Published by Church Growth Institute, Lynchburg, Virginia" 박사학위 논문, 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5. <http://www.elmertowns.com/index.cfm?action=bio>에서도 볼 수 있다.
5. First Baptist Church 웹사이트: <http://www.fbchammond.com/schedule.php>
6. Grace Community Church 웹사이트: [www.gracechurch.org](http://www.gracechurch.org)
7. Cedar Ridge Community Church 웹사이트: <http://www.crcc.org/section.php?SectionID=27>
8. First Baptist Church of Hammond, Indiana에서 발행한 *The Voice*지의 제1권 1호.  
[http://www.fbchammond.com/the\\_voice/01퍼센트20decembervoice2003.pdf](http://www.fbchammond.com/the_voice/01퍼센트20decembervoice2003.pdf)
9. David Di Sabatino의 Jesus People Movement에 관한 학위 논문 1993-1994, <http://www.apologeticsindex.org/13-loonie-frisbee-and-calvary-chapel>
10. Matt Coker의 "The First Jesus Freak" *Orange County Weekly*에 2005년 3월 3일자 실림.  
<http://www.ocweekly.com/features/features/the-first-jesus-freak/19081>

11. 뒤에 나오는 모든 책은 Steve Sjogren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Conspiracy of Kingdom: A Refreshing New Approach to Sharing the Love of Jesus* (Ventura, CA: Regal Books, 2003), *101 Ways to Reach People in Your Community*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4), *101 Ways to Reach People in Need*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2), *Changing the World Through Kindness* (Ventura, CA: Regal Books, 2005).
12. Alan Hirsch, *The Forgotten Ways: Reactivating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 Brazon Press, 2007년 발행 예정)
13. Jake Tapper & Clayton Sandell, "Spreading the Gospel Through Pro Wrestling" *ABC News*에 2005년 12월 20일 실림. <http://abcnews.go.com/WNT/story?id=1426365>
14. "Fear Factor Ministry: Florence Church Youth Swallow Live Fish" *Decatur Daily*에 2005년 10월 7일자 실림. <http://www.decaturdaily.com/decaturdaily/news/051007/fear.shtml>

### 결론

1. Brian McLaren, "Bless This House?" *Christianity International Leadership Journal*에 2004년 실림. <http://www.christianitytoday.com/leaders/newsletter/2004/cln40629.html>
2. 아래는 내(Ed)가 2006년 11월 미국 교회성장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아래 여섯 가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 **영적 권위**: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구약에 근거해 그들의 가르침과 설교의 권위를 확실히 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설교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바울은 그의 교회 순회 사역을 시작할 때 구례대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했다(행 17:2-3 참조).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에서 교회에 있

어서 말씀의 권위를 확립하기도 하였다.

• **성경적 리더십**: 교회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은 신약성경에도 분명히 나온다. 물론 리더십에는 여러 가능한 형태들, 다른 모양의 리더십 위치나 타이틀, 역할 등이 있겠지만 변혁을 한다고 해서 리더십 자체를 들어내어 버리면 안 된다. 신약성경에는 장로들, 감독, 목사, 집사, 전도자,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이 모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가 변화를 시도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식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한다 해도 일단 누군가에 의해 조직화 되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때 교회의 리더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목회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며(엡 4:11-12) 이것을 넘어서 성경은 좋은 리더들의 경우 심지어 "두 배로 존경하고" 따르라고 하고 있다(딤후 5:17).

• **설교와 가르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들은 복음의 진실에 대해 들어야 하며,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은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설교에 앞서 나오는 찬송과 이에 반응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찬양과 설교를 포함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각 문화에 따라 설교의 스타일이나 길이는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은 문화를 뛰어넘는 불변의 요소이어야 한다.

• **주의 만찬**: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일"(행 2:42)을 충실히 지켰다. 이 부분이 주님의 만찬이란 개념의 출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예수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명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었다(고전 11장). 이와 비슷하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방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은 신자들이 이 명령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랐는지를 보여준다(행 2:41).

• **언약 공동체**: 혁신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교회가 언약 공동체에 속한 신자 그룹, 그리고 속하지 않은 신자들 그룹으로 나뉘지는 것을 허용하거나, 이 둘 그룹을 서로 다르게 대접하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모든 신자들을 동등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신자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몇 가지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행 2:42-47). 먼저 그들은 교회의 공통된 교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 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적고 있으며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을 성실하게 따랐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회중 기도도 성실히 임했는데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서로의 짐을 나눠졌다. 서로 물리적,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때에 따라 교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하였다.

• **선교**: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큰 선교의 일부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또 자주 말하고 있다. 선교는 세계적 복음 전파, 사회적 정의 구현, 사람들을 돕는 일 등의 여러 사역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사도행전 내용)과 신약의 사복음서는 모두 이러한 선교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아쉬운 점은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현대 교회의 많은 이들이 신학이 있기 전 교회가 이미 선교를 감당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3. John Naisbitt, *Megatrends* (New York: Warner Books, 1988).

## 21c 교회성장 & 축복의 통로

**교회진흥원**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교육, 문서선교 기관으로서 교회의 교육, 목회, 선교활동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 출판 및 보급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각 연령별 교회학교 공과, 구역공과, 제자훈련 교재, 음악도서를 기획, 출판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강습회를 실시합니다.
- 요단출판사를 운영하며 매년 70여 종의 각종 신앙도서와 제자 훈련 교재를 기획, 출판합니다.
- 4개의 직영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요단출판사의 사역정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성장과 영성 개발에 필요한 신앙도서를 엄선하여 출판, 보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 **F**or God For Church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도서를 기획 출판합니다.
- **O**nly Prayer  
오직 기도뿐이라는 자세로 사역합니다.
- **W**ay To Church Growth & Blessings  
교회성장 &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 **G**ood Stewardship & Professionalism  
선한 청지기와 프로정신으로 사역합니다.
- **C**reating Christianity Culture & Developing Contents  
각종 문화 콘텐츠를 개발함으로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합니다.

### 직영서점

요단기독교서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9-14 반포쇼핑타운 6동 2층  
교회용품센터 TEL 02)593·8715~8 FAX 02)536·6266 / 537·8616(용품)  
둔산침례회서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92번지 신둔산 빌딩 2층  
TEL 042)472·1919~20 FAX 042)472·1921  
대전침례회서관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1-27  
TEL 042)255·5322, 256·2109 FAX 042)254·0356  
부산요단기독교서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침례병원 지하편의시설(내)  
TEL 051)582·5175 (FAX 겸용)

요단인터넷서점 [www.jordanbook.com](http://www.jordanbook.com)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다시 부흥한 324교회성장 리포트

에드 소택지, 마크 도슨 지음 | 김광석 옮김 | 신국판 | 284면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 성경 리더십, 가르침, 설교, 구제, 인양 공동체, 선교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다시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을 연구하여 그 메이터와 믿음의 조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2011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목회자포부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중형교회 컨설팅 보고서

라일리 웨러 지음 | 임종원 옮김 | 신국판 | 184면

이 책에서 작자는 중형교회에 신적한 뒤인 쾰 문제들의 꼬투리를 에리하게 찾아낸다. 부교역자를 두어야 할지, 교회를 건축해야 할지, 각 기편을 활성화하려면 담임목회자가 어디까지 간섭하고 어디부터 믿고 믿게 야 할지, 제직들과 소위 교회의 실세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실제 중형 교회의 현상과 그 해결책을 말한다.



다가오는 교회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클 조지 지음 | 전익우 옮김 | 신국판 | 432면

미래교회 리더 양성과 부작용 없는 교회 구조조정 실현 안내서로 30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감 넘치는 포 회개혁 종합 컨설팅 보고서다. 어느 교회 에나 적용이 가능한 교회 자기진단 노하 우와 그 처방이 담겨 있다. 미래교회의 최 우선순위 과제인 자세대 리더 양성역의 지 점이 제시되어 있다.

